



4

1985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5. 4호

(루계 450)



## ◆◆◆◆◆◆◆◆◆◆ 차 례 ◆◆◆◆◆◆◆◆◆◆

인민의 념원 .....	4
해 돋 이 .....	5
장 생 도 .....	5
달 비 .....	6
오 자유의 날 영광의 날이여 .....	16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	16
만경대 고향생각 *외 1 편Ä .....	17
사랑의 파원 .....	17
전승혁명사적지를 찾아서 .....	18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는 생각 *외 1 편Ä .....	20
꽃과 같이 수림과 같이 .....	20
총서 《불멸의 력사》는 수령형상창조에서 이룩한 빛나는 문화적재보 .....	21
숫눈길에 남긴 자욱 .....	30
위대한 추억 .....	31
즐기 뻔은 그끝을 내 몰라라 *외 2 편Ä .....	31
뜨거운 눈 .....	32
백두산우에 눈보라 칠 때 .....	32
사람들이여 무심히 보지 마시라! .....	33
어머니들의 그 미소속에 .....	37
80년대사람 .....	38

묘향산에서 .....	47
축 복 .....	47
어 머 니 .....	48
아직은 말 못해 .....	48
탄 생 .....	49
전적지를 걸으며 .....	57
네바강기슭에 꺼지지 않는 불길 .....	58
나는 보통공민 .....	60
우리의 대답 .....	60
운률에 대한 편지 .....	61
령길우에 핀 꽃 .....	72

# 인민의 념원

오재신

눈서리 찬바람속에서도  
고이 품었다가  
그 꽃망울 터뜨리는 4월  
가슴에 품은 사연  
그 간절한 념원  
함께 꽃피나는 보름날 이 아침

축원의 인사안고  
마음은 앞서 달리건만  
걸음걸음  
몽클 젖어오르는 뜨거운 생각이여

미처 몰라라  
우리 수령님  
이 아침도  
또 어느 공장 어느 포전길에  
이 하루를 정하고계시는지  
그 어떤  
거창한 전변의 새날을 불러  
이 하루를 이어가시려는지

아  
간절한 소망은  
쌓이고쌓여  
우리 수령님  
어느때 한번  
잊지 않으시고  
이날을 맞으신적 있었으랴

눈덮인 백두의 설령  
밀림속  
찾아든 그 봄날은 류달랐어도  
행군길에 오르신  
수령님 감발에선 김이 올랐어라

준엄한 전화의 나날  
작전도우에  
붉은 화살표를 그으시던 최고사령부  
뜨락엔 그날따라 만발하던 살구꽃  
여느날과 다름없이 흘러간 그날을  
수령님께선 아셨던가

그해 봄도 바로 이날  
우리 수령님  
농촌마을 밭머리에 계셨더라

오는 계절  
왕가물이 걱정되시여  
지하수 솟구치는 줄장도 살피시고  
굴포도 몸소 돌아보시며

몇번이고 몇번이고  
아뢰었던만  
사람마다 다 생일이 있는 법인데  
이 바쁜때 내라고  
어떻게 생일을 쇠겠는가고 하시던  
서부탄전에서의 그 아침에도

화창한 봄  
환희의 계절  
인민에겐 명절날을 주시고도  
더 큰 인민의 기쁨을 마련하시려고  
이 하루마저 휴식을 잊으시는  
우리 수령님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그길에  
금나락 설레이는 황금벌을 펼쳐드리면  
우리 수령님  
더는  
거친 날 험한 길을 걷지 않으실가

번영하는 나의 조국  
자동화의 노래높은 일터에 모시면  
풍어로 흥성이는 포구에 모시면  
아 그러면  
우리 수령님  
마음의 시름을 다 놓게 되실가

경사스러운 4월 보름날  
이 아침  
인민의 마음속에 간절한 념원  
축원의 꽃향기로  
하늘땅에 넘치나니

모시여 끝없는 행복에 젖어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영원히 높이 모셔가는 영광을 안고  
인민은 삼가  
우러르며 안기며  
만수축원의 노래 드리노라

# 해 돋 이

오영환

오늘은 누구나 한번  
스스로 가슴에 새겨보라  
해마다 아이들의 설맞이에 나가시는  
우리 수령님의 새해 첫걸음

그렇게 시작되더라, 내 나라 설날의 해돋이는  
아버지 어머니들보다 먼저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루만져주시는  
색동저고리 아이들의 고운 두불에서

옛날에는  
아버지 어머니들을 울리던 날이 설맞이  
여서  
우리 수령님 먼저  
아이들을 품어주시는가

아이들이 웃으면 힘이 난다고  
웃는 불에 입맞춰주시는 우리 수령님  
천만 꽃중에 아름다운것  
아이들 얼굴에 피어난 꽃이더라

그 꽃은 계절없이 피어났더라  
땅을 분여받던 발머리에서

장군님 안아주신 그 아이 불에도  
전화의 날에 반토굴학교에서  
원수님 쓰다듬어주신 그 아이 불에도  
새 교복 타입고 뛰놀던 운동장에서  
수령님 사진 찍어주신 그 아이 불에도

20대 청년도 그렇게 자라났고  
50대 중년도 그렇게 자라났더라  
아이들의 설맞이에서 시작한 걸음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어가신 길  
수령님 조국땅을 돌고도신 길  
오늘의 이 꽃을 보자하심이였구나

알아라, 우리 나이는  
수령님 축복해주신 년년의 표적  
먹은 나이로 역사를 깨닫고  
먹을 나이로 미래를 깨달아라

나라의 힘이 거기에 숨어있고  
민족의 기상이 거기서 뽐낼아라  
진정 우리 맞이할 행복의 년대와 년대는  
그렇게 밝아와라 희망찬 해돋이같이

# 장 생 도

럼우봉

따르는 인민의 마음처럼  
꽃물결은 흘러 끝이 없고

모시는 인민의 축원 아려  
만경봉의 소나무는 이리도 푸르른가

그림같이 펼쳐진 일만경치속에  
백학도 깃을 편 락락장송

아, 만경봉은 수령님 길이 모셔갈  
시대의 장생도를 펼쳐안고  
인류의 축원속에 높이 솟아 빛나누나

## 달 비

박 현

## 1

알뜰하게 손질된 정원의 포석길로 물색치마에 흰 저고리를 가든하게 차려입은 처녀가 최한운을 따라 걸어왔다.

저녁무렵, 길어진 나무들의 그림자가 푸른 잔디밭을 서늘하게 덮고있었다.

처녀는 최한운이 이르는대로 길옆의 장의자에 소꿉이 앉았다. 속눈썹이 길고 눈이 큰 가름한 얼굴이 가무스레 별에 그슬려 펴 애티어보인다.

그는 고요한 눈길을 들어 정적속에 잠긴 주위를 둘러보았다. 첫눈에도 보통공원이 아니라는것이 알리는 이곳에서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곧 닥쳐 오리라는 예감으로 가슴이 조여드는듯 가볍게 입술을 옥물었다. 마음속의 불안을 누르며 애써 태연해지려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최한운은 소리없이 큰숨을 쉬었다.

어째서 저 애는 줄곧 침묵만 지키고있을가. 나를 피하며 따라오려 하지 않았을가. 정말 이 처녀는 우리가 찾는 그 애가 옳을가.

벌써 열스무번도 더 떠올랐던 의문이 다시금 되살아나고있었다. 굳게 닫힌 처녀의 속을 아직 한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그는 도저히 진정할수가 없었다. 이제 어떤 일이 처녀를 기다리고있는지 한운은 잘 알고있는것이였다.

두달전, 이 땅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며칠 안되어 연합부대 지휘관이었던 최한운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한운은 한달음에 평양으로 달려갔다. 가렬한 전화속에 몸을 잠근 3년간, 멀리 전선에서 어느 한순간도 잊은적 없이 그리던 수령님의 품이였다. 미제를 쳐부시고 승리한 지금 더더욱 그이를 만나뵙는 감격이 커 집무실로 향하는 그의 발길은 나느듯하였다.

수령님께서도 그를 반가이 맞으시였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소. 이렇게 건강한 동무를 보니 기쁘오. 그래 부상자리는 어쩡소?》

그이께서는 관통상을 입었던 한운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시였다.

《우리는 어려운 전쟁에서 끝내 강대한 원수를 무찌르고 이기고야말았소.

그러나 이제 더 큰일이 앞에 놓여있소. 미국놈들은 우리 인민이 해방후 5년동안 이룩해놓은 모든것을 죄다 파괴하여버렸소. 온 나라가 폐허로 변해버렸소. 그렇지만 우리는 재더미속에서 다시 일어서

야 하겠소. 다시 일어나서 새생활을 창조해야 하겠소.》

그자리에서 수령님께서서는 한운에게 파괴된 제철소복구를 책임져보지 않겠는가고 물으시였다. 한운은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아직 군대를 떠난 생활을 상상한적이 없고 경제에는 전혀 문외한인 자기가 제철소복구를 맡다니.

어깨를 내리누르는 그 임무의 중압때문에 한운은 잠시 어쩔바를 몰라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심중을 읽으신듯 미소하시였다.

《한운동무, 우리는 오래동안 같이 싸워왔지. 이번에 동무가 받은 과업도 힘겨운것이요. 몹시 아를 차오. 일에 착수하면 알게 되오. 그래서 동무에게 맡기려는거요.》

수령님의 말씀은 한운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는 문득 전쟁의 나날에 대학출신군인들과 기술일군들을 전투대오에서 소환하여 후방으로 돌려보낼데 대한 명령을 접수하던 일이 생각났다. 온 전선을 승리의 신심으로 넘치게 한 그 명령이 바로 오늘의 복구건설을 위한것이 아니었던가.

한운은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맡겨진 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겠노라고 엄숙하게 말씀드렸다. 장령의 담력있는 대답은 수령님을 만족하게 하여 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정에 찬 눈길로 한운을 바라보시였다.

《좋소. 한운동무야 언제나 그런 대답밖에 모르지. 그런데 ...》

수령님께서서는 무엇인가 더 말씀하시려다말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시였다.

최한운이 따라일어서려 하자 그대로 앉아있으라고 어깨를 눌러주고는 천천히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시였다.

잠시 말씀을 잊지 않고 바람벽에 걸린 조선지도를 바라보시였다.

《나는 어제 기순동무의 어머니를 찾아보았소. 참 오랜간만이였소. 벌써 가보았어야 하는건데 전쟁으로 하도 바쁘다나니 어제야 겨우 틈을 내었소.》

한운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기순이는 유격대시절에 한운의 소대에 있던 녀대원이였다. 기순이의 남편 김석환이와도 한운은 각별한 사이였었다.

《어머니는 전쟁기간에도 곳곳이 잘 싸웠소. 전선원호에도 앞장서고 인민군대와 자위대를 도와 산

간지대에 박힌 비적놈들을 숙청하는데서도 큰 공을 세웠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무 혈육도 없이 홀로 살고 있는것이 몹시 속에 걸리었소. 어머니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외로와하는것 같아 평양으로 모셔오도록 했지만 마음이 내려가지 않소.》

수령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였다.

《이럴 때 기순이가 남기고 간 딸이라도 어머니 곁에 있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혁명에 바치고 혼자 남은 어머니가 아니요.》

수령님께서는 혼자말처럼 조용히 뇌이시였다.

《그 애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순이가 유격대에 입대할 때 동두탄에는 딸아이를 어머니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했다지?》

《네.》

《그 동무는 자기 소대장이 걱정할가봐 그렇게 말했겠지. 기순이는 것처럼 속이 깊은 동무였소. 나 무랄데 없는 동무지.》

최한운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해방을 맞아 조국에 돌아온 다음 그도 기순의 어머니를 만나러 마천령기슭의 외진 마을을 찾은적이 있었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어머니는 한윤이가 찾아온 사연을 알자 손을 덥석 잡았다.

《산에서 싸웠다니… 그래 우리 이월이 기별을 가지고왔소?》

순간 확 빛나는 어머니의 눈에 딸을 기다려온 10여년 세월이 비끼는듯싶었다.

한운은 그 긴 나날, 귀중한 딸의 모습이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었음을 느꼈다.

머리채가 치렁치렁한 처녀로 자랐어도 언제나 첫 걸음마를 때며 방긋방긋 웃는 어린 아기로 느껴져 모진 세월에 일찌기 홀로 된 어머니에게는 눈물만 자아내던 외동딸, 그 딸이 유격구로 떠나겠다는 엄청난 청을 할 때 어머니는 처음 어이없어하며 만류하였다고 한다.

《원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네 어린것이 저기 가서 무슨 일을 치려구.》

딸은 어머니의 다심스런 념려를 아랑곳않고 못견디게 즐겼다. 어머니는 비로소 딸이 다 컸다는것을, 이제는 어머니와 품에 안겨놀며 이월이라고 불리우던 어린아이가 아니라는것을 깨달았다.

집을 떠나기전에 딸은 긴 머리채를 잘라만든 달비를 어머니앞에 내놓았다.

《어머니 제가 남긴것은 겨우 이것뿐이에요. 무산자 혁명이 승리하는 날 꼭 다시 돌아올테니 그때까지 저대신 이것을 보여주세요.》

머리를 깊이 숙여 작별인사를 올리는 딸의 큰눈에 눈물이 고이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맑은 웃음을 지으며 살짝문을 나섰다.

가난에 쪼들린 어머니는 로자돈 한푼 구할길이

없어 길량식으로 집안에 남은 감자를 털어 한꾸레미 들려주었다.

그러나 딸을 바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그 감자꾸레미가 부엌구석에 도로 놓인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감자꾸레미를 안고 달려나가며 소리쳐 불렀다.

《이월아 !》

그때부터 어머니는 딸이 돌아올 날을 굳게 믿으며 살았다. 해마다 제일 굵고 먹음직한 감자를 골라 그 애가 돌아오면 먹이리라 광주리에 파로담아 놓곤하였다.

장한 길을 떠나는 딸애를 빈손으로 보낸 일이 두고두고 가슴에 맺혀 잊혀지지 않았던것이다.

한운은 어머니에게 기순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하기 괴로웠다.

광복의 날까지 믿음을 안고 기다려온 어머니에게 가슴아픈 소식을 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어머니는 눈물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주름깊은 얼굴을 들고 딸이 떠나간 길쪽을 바라보며 한동안 굳어진듯 앉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왜놈들과 싸우려 간 아이를 어떻게 꼭 살아 돌아 오기만 바라고있겠소. 아무튼 제구실을 하고 죽었다니 이제는 마음을 놓겠소나. 이렇게 찾아와주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소다.》

그리고는 모처럼 온 손님에게 저녁을 대접하겠노라며 부엌으로 내려갔다.

한운의 앞에는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감자그릇이 놓였다. 하나같이 굵고 먹음직스러운 감자들이…

한운은 차마 그것을 들수 없었다.

그때 그는 의례히 어머니옆에 와서 같이 살고있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기순이의 딸아이가 전혀 그 곳에 나타난적이 없었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 기순이의 살붙이인 외손녀가 있다는것조차 모르고있었다.

터지는 가슴을 안고 한운은 그때부터 기순이의 딸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아무리 사방으로 수소문해도 그 애는 땅에 잣아들어버린듯 종적이 없었다. 전쟁이 터지자 한운은 하는수없이 그 일을 뒤로 미루었다. 싸움이 끝난후에 다시 그를 찾으리라고 마음먹었다.

한운은 비로서 지금까지 엄혹한 전쟁과 전승의 격동속에서 자신이 그동안 기순의 어머니와 딸에 대하여 까맣게 잊고있었음을 깨달았다.

수령님께서는 이윽도록 멀리도 눈길을 주시였다.

《전쟁의 피해가 아무리 크다 해도 파괴된 공장을 다시 복구하면 되고 폐허가 된 도시도 기계를 돌리고 세멘트를 생산하면 채더미를 털고 새로 일떠서게 되오. 그러나 사람들의 가슴에 생긴 상처는 쉽사리 지워버릴수가 없소. 지워지지 않지…》

최한운은 온 나라가 승리를 맞아 환희에 싸여있

을 때 수령님께서서는 기쁨만이 아니라 이 승리를 위해 우리 인민이 바친 희생의 아픔도 안고계신다는 것은 느끼며 고개가 숙여졌다.

《아무리 우리가 어머니를 잘 돌봐드린다고 한들 딸자식이 살아온것만이야 하겠소. 이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것을 알면서도 한구석 기다리는 마음을 간직하고있는것이 어머니들의 심정ियो. 그 외로운 품에 성옥이를 안겨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소… 전쟁기간에 나도 여기저기 계속 알아보았는데 여전히 나타나지를 않소.

그렇게 찾아도 없다니… 혹시 그사이 폭격에 잘 못되지는 않았겠는지.》

수령님께서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거창한 복구가 시작된 때에 수령님께서 그 일까지 마음쓰시게 하는것이 한운은 몹시 죄스러웠다.

《수령님, 제가 성옥이를 찾겠습니다. 제철소를 복구하러 가기전에 꼭 찾아내겠습니다.》

한운은 가슴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말씀드렸다.

《동무가? 방금 어려운 과업을 주었는데 그 일까지 말할수 있겠소?》

《기어이 찾아내겠습니다. 미국놈을 쳐부셨는데 이 땅에 있을 성옥이를 못찾겠습니까.》

수령님앞에 굳게 다짐한 그날부터 한운은 어려운 전력의 길을 줄곧 걸었다.

저 멀리 철령과 무수단과 서수라를 거쳐 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고장이란 거의 없었다.

그것은 실망과 기대가 엇바뀌는 참으로 어렵고 안타까운 나날이었다. 하지만 몇백리길 뒤끝에 다가오군하는 쓰거운 환멸속에서도 그는 오래 락심하여있지 않고 인차 치친 몸을 일으키군하였다. 자기를 배려주시던 수령님의 안색이 잊혀지지 않았던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한 처녀를 찾아냈다.

성옥이라는 이름이며 나이, 생활경로에 이르기까지 주위에서 하는 말을 들으며 기순의 딸일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굳어졌다.

그런데 뜻밖이었다. 만나보았던 술한 처녀들중에서 제일 본인에 가까운 그가 한운이 찾아온 리유를 알게 되자 이상하게도 담화에 응하려고 하지 않았다. 한운은 하는수없이 그를 찾아갔다.

처녀는 깨끗한 합숙 뒤마당에서 《구구구》 부드러운 소리로 닭들을 부르며 모이를 주고있었다.

한운을 보자 얼굴이 활짝 붉어졌다. 그가 거기까지 올줄은 몰랐던것이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물음에는 역시 같은 대답이었다.

전혀 모른다고, 이름조차 모른다고…

한순간 주춤거리며 무언가 말할듯했으나 다시 머리를 숙이며 입을 꼭 다물어버렸다.

성옥이를 찾은것 같아 기뻐하던 한운은 처녀의 의외의 태도에 어리둥절해졌다. 도무지 영문을 알수 없는 일이었다. 왜 그럴가.

그는 이제껏 새로 찾은 유자녀들마다 혁명에 목숨바친 부모들에 대한 공지에 넘쳐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하나라도 더 듣고싶어하고 그뒤를 이을 굳은 각오를 다지는 모습에 익숙되어있었다.

그러나 이 처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혹시 정말 아무 관계없는 처녀가 아닐가. 하지만 주춤거리던 한순간 처녀의 눈에 비끼던 사무친 기대의 빛을 그는 잊을수 없었다. 분명 무슨 곡절이 있는 처녀였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최한운이 이 이상한 처녀에 대하여 전화로 보고드렸을 때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처음 산곳이 어느 마을인가. 그를 길러주었다는 로인의 이름이 무엇인가 물으시였다. 로인이 사망한지 오래되고 전쟁통에 사람들도 많이 뒤바뀌다 보니 이름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여 그저 《도끼령감》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리자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도끼령감이랴… 도끼령감이란말이지. 그런 별명을 가진 령감이 있었소.

손도끼 하나를 가지고 전구도 파고 칼도마도 깎고 별재간을 다 부린다고 그렇게 불렀지. 유격대를 성심성의 도운 좋은 로인ियो. 그 로인이 키웠다는것을 보니 그 애가 기순의 딸이 틀림없을것 같소. 석환동무가 지방공작나갔던 바로 그 마을에서 도끼령감이 본래 살았더랬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제 부모에 대하여 그렇게 전혀 모를수는 없을텐데 왜 숨기려고 할가…》

수령님께서도 그 점을 리해하기 어려워하시였다.

《하여튼 내가 그 애와 말을 좀 해봐야겠소. 어린 나이에 고생을 하면 옛일을 더러 잊을수도 있지.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보면 그때 기억이 되살아날는지도 모르오.》

그리하여 최한운은 처녀를 데리고 평양으로 올라와 지금 이 정원에서 대기하고있는것이였다.

그이를 만나뵈을 시각이 가까와올수록 한운은 마음이 몹시 옥죄여졌다. 복잡하게 엉켜드는 나라일로 밤잠을 잊으시는 수령님이시다. 혹시 서글픔이 간간히 비끼군하는 저 눈과 침묵을 지키는 성미로 하여 수령님께 더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지는 않을까.

(정말이라면 얼마나 좋을가. 수령님께서 오죽하면 이 애를 직접 만나보라고 하셨겠는가.)

최한운은 오래지 않아 어버이수령님께서 돌아오실 저택의 현관쪽을 초조히 바라보았다.

## 2

정문쪽에서 들리는 차소리에 한운은 걱정스런 생각에서 깨어났다.

농촌에 나갔던 수령님께서 래일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러 시간맞춰 돌아오신것이였다.



한운은 그리로 달려갔다.

《데려왔소? 오래 기다렸겠구만. 어제부터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 어떤 애인가 좀 봅시다.》

종일 짬시간의 휴식도 없이 눈두렁길을 걸은 수령님이시였다. 이제부터 진행할 사업을 앞두고 잠시 쉬며 저녁식사도 하셔야 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곧추 정원으로 발길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 앞장서시자 한운은 하는수없이 뒤를 따랐다. 처녀가 앉아있는곳이 가까와질수록 수령님께서서는 걸음이 빨라지셨다. 한운은 그이께서 차츰 흥분하시는것을 느꼈다. 그러자 그도 가슴이 두방망이질했다.

(어떻게 될가. 정말 이 애가 기순의 딸일까?)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나 딸로 되어주었으면 하는 심정이였다.

발자국소리를 듣자 처녀는 일어나 장의자앞 포두에 섰다.

노을빛이 처녀를 비쳐 그는 불길속에 든것처럼 전신이 붉게 물들었다. 함함이 흘러내린 머리칼도 부채살처럼 비쳐드는 노을빛에 활활 타번지는듯했다.

그이께서는 그의 앞 몇걸음 못미쳐 멈춰서시였다.

온 마음을 눈길에 부은 한없이 다정하고 자애로운 빛으로 처녀의 가름한 얼굴, 들먹이는 어깨, 저고리고름을 꼭 잡는 손을 하나하나 뜯어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순간 오랜 세월 뇌리에서 잊혀진 적 없는 귀중한 전사의 모습을 보고계시였다. 저처럼 노을빛을 받으며 유격구마을 숲언저리에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섰던 애티어린 모습.

기나긴 싸움의 나날을 지나오면서도 조금도 지워지지 않은 기억이 생생히 살아오고계시였다.

《기순이지? 그렇지.》하고 부르짖으려는 심정이시였다.

《그래 네가... 네가 아버지 어머니를 전혀 모른단말이나? 도끼령감이 이야기해주지 않더냐?》

수령님의 목소리는 젖어계시였다.

여기가 수령님의 저택인줄 몰랐고 수령님을 만나 뵈울줄은 더구나 상상도 못했던 성옥이는 감격에 넘쳐 미처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었다.

그러나 최한운의 안타까운 물음에 그처럼 고집스레 모른다고 하던 그가 수령님앞에서는 더 그런 소리를 안했다. 오히려 무언가 마음속깊이 사무친 간절한 사연을 그이께 말씀드리고싶어하면서도 한편 주저하는 모습이였다.

성옥이는 머리를 숙이며 들릴락말락 대답을 올렸다.

《해주었습니다.》

《네 어머니이름이 리기순이 옳지? 유격대에서 싸웠고...》

《네 ...》

수령님께서서는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성

옥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안도의 숨이랄가, 즐겁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한 오랜 회고의 빛이 눈길에 따뜻이 어리시였다.

아버지는 김석환이라고 한다.

틀림없이 수령님께서 찾으시던 그 성옥이다. 최한운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듯했다.

《그런데 왜 이때까지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른다고 했느냐?》

처녀는 그이의 물으심에 아무 대답도 못올리고 고개를 깊이 숙이기만 했다.

수령님께서서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시였다. 한운을 돌아보며 말씀하시였다.

《한운동무, 지체하지 말고 나와 같이 갑시다. 이애를 데리고 갑시다. 성옥아, 어서 가사. 이제야 찾았구나.》

수령님의 목소리는 걱정에서 젖어있었다.

이윽고 승용차는 대동로로 미끄러지듯 달리였다. 거리 양옆은 밤을 모르는 건설자들로 뽕고있었다. 기중기들을 움직이는 호각소리, 대학생들의 노래소리, 쿵크리트잔해를 까내는 메질소리...

수령님께서서는 그 모든 소음들을 듣지 못하고 옆에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있는 성옥의 등에 손을 얹으신채 사랑이 가득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기만 하시였다.

차는 대동강변에 방금 솟은 5층아빠트건물앞에 멈춰섰다.

얼마전에 기순의 어머니를 모셔다 살림을 펴준곳이다.

한운은 수령님께서 성옥이를 앞세우고 현관으로 들어서시기전에 먼저 2층으로 뛰어올라갔다. 땀기냄새가 상긋한 새문을 굽히 두드렸다. 인차 대답이 없었다. 또 두드렸다. 그러자 문이 열렸다.

《누구를 찾으시오?》

조용히 물으며 문턱을 넘어서던 어머니는 한운을 알아보자 반가이 팔을 잡아끌었다.

《이게 누구요. 난 또 웬 손님이 찾아왔는가 했구만. 어서 들어갑시다. 원. 문을 두드릴거나 있소. 제 집처럼 들어올거지.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소?》

어머니는 흥분으로 번쩍이는 한운의 눈을 보고 놀랐다.

《어머니, 수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지금 올라오십니다.》

《뭐라구요. 수령님께서요?》

인차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던 어머니는 바빠 홀어진 흰머리를 쓰다듬어넘기고 옷매무시를 바로 잡았다.

수령님께서서는 급히 허리굽혀 인사드리느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였다.

《어머니. 오늘은 내가 누구를 데리고 왔는가 보십시오. 자 이 애가 누구같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며 성옥이를 앞에 내세우시었다.

그에게로 눈길이 향하는 순간 어머니는 흠칫 놀랐다.

20년전에 집을 떠나간 딸애, 디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던 이월이가 지금 앞에 서있지 않는가.

그때와 같은 가름한 얼굴, 울려다볼 때마다 사물사물 웃던 정기있는 검은 눈동자, 얹전히 다문 입...

세월이 순간에 흘러서 딸은 조금도 변치 않은 예전 그 모습인가 어쩌면 이리도 꼭 같단말인가.

《어머니 이 애가 바로 기순이 딸입니다. 어머니의 외손녀입니다.

정말 제 어머니를 꼭 닮았지요. 나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수령님의 음성에는 살뜰한 사랑과 뜨거운 감개가 어려계시었다.

그 애에게로 눈길을 돌린 순간 어머니는 삼시에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호릿한 안개속에 수령님께서 앞에 내세워주신 처녀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꿈결에도 잊지 않았던 모습을 자세히 보려고 어머니는 허둥지둥 눈물을 닦았다. 허지만 아무리 닦아도 눈물은 처녀의 모습을 눈여겨볼 사이 없이 솟았다.

《이월아! 이월이가 왔구나!》

어머니는 두팔을 벌리며 떨리는소리로 불렀다.

### 3

밤 정적, 도간도간 끊어졌다이어지는 눈물배인 나직한 목소리.

세상에 홀로 뿌려진 불쌍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조용한 방안에 울리고있었다.

깊은 산골부락... 가재가 많은 시내가의 집... 도끼로 나무곰이며 메돼지같은 장난감을 잘 짤 수 염 텃수룩한 로인과 손녀...

할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손녀에게 토끼가 룡왕을 속여넘겼다는 옛말이며 유격대가 장군님의령을 받들고 왜놈치는 신나는 이야기같은것을 곧 잘 해주었다. 어린 소녀가 세상일에 눈뜨면서 알고싶어하는 엉뚱한 물음도 웃어넘기는법없이 쉬운 말로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만은 해주지 않았다. 그저 먼데로 돈벌러 갔는데 성옥이가 조금만 더 크면 돌아온다고 말할따름이었다. 철이 들수록 어린 성옥이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갔을가.

우리 집엔 왜 어머니까지 없을가.

다른 집엔 아버지들이 돈벌러 갔어도 어머니만은

남아서 빨래도 하고 밥도 짓는데 우리 집에서는 왜 할아버지하고 내가 밥을 하나? 성옥이는 같은포래아이들이 부러웠다. 그들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한데 모여 한집에서 오붓하게 살고싶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때마다 마음 착한 할아버지의 얼굴에 어리는 쓸쓸한 빛이 감촉빠른 성옥이에게도 안겨와 그것은 입밖에 내면 안되는 슬픈 희망으로 생각되었던 탓이었다.

차겨워진 바람이 마지막 나무잎사귀들을 훑어가 는 늦가을날, 로인은 자리에 누웠다. 언젠가 왜놈의 류치장에 갇혀 고문을 받은 어혈로 철기가 바뀔 때마다 고생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일어날 기운을 잃어버리고말았다. 기력이 쇠진한 로인은 멀지 않아 자기가 눈감게 되리라는것을 알았다. 그러기에 세상에 의지가없이 남을 소너를 바라보는 눈에 설음이 고이였다.

할아버지의 심상치 않은 기색에 성옥이는 겁이 덜컥 났다.

《할아버지 죽지 말아. 죽으면 어쩌나. 내가 아버지 어머니 데려올게. 어디 있나. 아무리 먼데라도 인차 가서 데려올게.》

줄라대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로인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성옥이가 처음 본 할아버지의 눈물이였다. 할아버지는 그를 옆으로 가까이 불러앉혔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전에 남겨야 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결코 하지 않으려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성옥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 들어라. 놀라지도 말고 울지도 말아. 듣고 아무에게도 옮기지 말고 가슴에 혼자 묻어두고있어라. 난 네 친 할아버지가 아니다. 네 어머니 부탁을 받고 이때까지 너를 키웠을뿐이지...》

뜻밖의 말에 성옥이는 할아버지가 실성하지 않았는가 하고 바라보았다.

그러나 로인의 얼굴은 평온하였고 눈은 자기의 말을 꼭 믿어야 한다고 당부하고있었다.

《난 너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꼭 한번 보았을뿐이지...》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한밤중에 누군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더구나, 열어보니 웬 젊은 녀인이 애기를 안고 문앞에 서있었다. 왜놈과 싸우려고 가는 데 애기를 맡아달라고, 꼭 다시 돌아와 은혜를 갚을테니 받아달라고 간청하더구나, 받았지. 그리고 〈아예미 헤지기전에 마감으로 젖이라도 배불리 먹이고 가시우.〉 하고 말했다.

애기는 배를 곯았겠는지 정신없이 젖을 먹자 인차 잠이 들었다. 그 녀인은 애기를 내려놓고 떠나기전에 고이 자는 모습을 한참 내려다보더라. 그런데 금방 쓰러질것처럼 지치고 피기없는 그 얼굴에 어찌면 그리도 슬픈 기색이 깊이 스며들었다.

보고보고 또 보다가 애기를 입맞춰주고 일어섰다.  
〈정말 가지우?〉 내가 물으니 〈가야 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래서 〈애 아버지는 누구요?〉 하고 또 물었다.  
그런데 그 말엔 인차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리는데 속이 갈기갈기 모질게 찢  
기는것처럼 아픈 피눈물이었다.

〈다르게는 생각 마오. 혹시 아예미가 못돌아오  
더라도 애기한테 알려줘야 할테니...〉 하니까 눈물  
을 닦고나서 아버지 이름을 대더라. 그때 재를 뿌린  
것처럼 뿌연게 흐려지던 눈이 지금도 선하다.

성옥아, 그 녀인이 바로 네 엄마였다.

애기는 너였고...》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있나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나요?》

성옥이는 다급히 물었다.

《그다음에 ? 그다음엔 ... 그다음엔 ...》

로인은 말이 막혔다.

고통스레 숨을 헐떡이며 성옥이를 한동안 바라보  
다 천정으로 눈길을 돌렸다.

눈에 무서운 불이 이글거렸다.

온 세상과 맞서 통분한 마음을 터뜨리고싶은 심  
정을 가까스로 참는듯 삿자리모서리를 악마디진 손  
으로 짹 틀어쥐었다.

《성옥아, 너의 어머니는 장군님의 품을 찾아갔  
다. 일후에 누가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나쁜 사람이  
라고 하면 넌 절대로 믿지 말어라. 뭐라고 해도 믿  
지 말어라.

난 안믿는다. 믿지 않기에 이 말을 하는거다. 그  
렇게 싸우려 떠난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되는법이  
없느니라.》

성옥이는 공포에 싸여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끝내 말하지 않고 숨져가는 그다음에  
이야기속에 어떤 무서운 사연이 숨겨져있음을 감촉하  
고 무시무시해진것이었다.

바람잔 이튿날 새벽 산천의 고요가 아직 깨지지  
않은 때 할아버지는 수수께끼를 품은채 숨을 거두  
었다. 눈감기전에 또 한번 말했다.

《믿지 말아라.》

그 말은 절통한 눈물이 맺힌채 눈을 감은 로인의  
모습과 함께 성옥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며칠후 산에 가서 불쏘식게감을 주어가지고 집으  
로 들어서던 성옥이는 안에서 두런두런 울리는 말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평소에 할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던 동네 두 늙은이가 찾아와 그를 기다리며 이  
야기를 주고받고있었다.

《그래 성옥이란 애를 이제 어찌겠소?》

《어찌긴, 우리가 거둬줘야지.》

《그런데 애부모가 왜놈의 개노릇을 했다면데...  
그래서 유격대가 죽였다면서.》

《돌아가는 풍문을 다 듣다간 귀구멍이 두더지굴

처럼 커지겠네.》

《풍문이라니. 도끼령감도 그 소식을 듣고 애한  
테 루가 미칠가봐 여기로 피해왔다네.》

《쓸데없는 소리 말게. 괜히 불쌍한 애 귀에 들어  
가지 않게.》

문손잡이를 쥐려던 성옥의 손은 맥없이 떨어졌다.  
할아버지가 숨진 수수께끼, 마지막까지 그가 모르  
도록 하려고 했던 사연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톡  
톡히 알게 되었다.

성옥이는 온몸이 얼어드는것 같았다.

무심한 어조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방안의 두 늙  
은이가 무섭기까지 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놈의 앞잡이라니, 그래서 유격  
대의 손에 죽다니...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날밤 어머니를 남몰래 부르며 목놓아울던 성옥  
이는 이튿날 어디 있는지 모를 어머니를 찾아 정처  
없이 떠났다. 그때부터 성옥이는 눈물이 없는 아이  
가 되었다. 조용하고 공손하고 그러면서도 누구에  
게 내심을 드러내보이는법을 모르는 처녀로 자랐다.  
해방이 되어 사람들은 왜놈들의 등쌀에 고생하면  
서 유격대를 믿고 살아온 이야기, 유격대를 만나보  
았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그러나 성옥이는 그런  
기쁨속에 섭쓸리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심어준 마음속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 굳어졌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 기쁨을 같이 누릴수 없는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하는것만 같았다.

홀로 있을 때에만 여전히 자랑스러운 유격대어머  
니, 왜놈과 싸운 부모를 생각하였다. 할아버지가 이  
야기해준 어머니가 떠나던 마지막 모습이 늘 눈앞  
에 살아있었다. 그 어머니를 언제면 만나게 될가.

그것은 누구도 알수 없는 막연한 앞날의 일이었  
다. 성옥이는 오직 한분 어머니가 그 품을 찾아떠난  
수령님만을 믿고있었다. 그이께서만은 모든 사연  
을 다 알고계실것이었다.

성옥이는 수령님께 찾아가 안타까운 마음을 말쑤  
드리고싶었다. 어떻게 하면 수령님을 만나볼수있을  
가, 기차를 타고 평양에 가면 되지 않을까. 평양에  
가기만 하면 거기 사람들은 수령님께서 계신곳을  
누구나 알고있지 않을까. 성옥이는 이렇게 공상하  
군했다. 하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공상도  
사람들앞에서는 숨기고있었다.

#### 4

성옥이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수령님께서서는 점  
점 더 그들이 짊어지시었다.

그의 눈물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듯 상의 옷단추

를 벗기려 손을 올리다말고 창가에 가 서시었다.

한운은 수령님께서 얼마나 피로와하고계시는지 잘 알수 있었다.

일제의 리간책동에 발맞춘 파쟁분자들이 반 《민생단》 투쟁을 극좌적으로 벌리면서 혁명동지들을 무참히 학살하던 엄혹한 그 시절에 대한 회상이 수령님께 각별히 쓰라린것으로 남아있는것이였다.

《그래서 네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른다고 했단말이나… 그게 언제 일이라고 아직까지도… 왜 벌써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수령님께서서는 더 말씀을 잇기 어려워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가라앉으신 음성으로 정치일군이였던 성옥의 아버지가 당내직위를 일시적으로 차치하고 책동하는 파쟁분자들과 추호의 동요도 없이 싸우다가 희생된 사연을 차근차근 이야기하였다.

《…그때는 한번 체포되지만 하면 풀려날길 없는 삼엄한 때였습니다.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심문〉이 있고 〈심문〉 끝에는 군중심판이 열렸는데 거기서 내리는 선고는 미리 정해져있었습니다.

놈들이 자기를 체포하려 한다는것을 알고 이 애 아버지는 몸을 거의 풀게 된 기순동무에게 좁쌀겨를 한자루 얻어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기고갈것은 이것밖에 없소. 몸조심하오.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였다는것을 똑똑히 이야기해주오.〉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성옥의 아버지를 총살하는 장소에는 기순동무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성옥의 아버지가 얻어다놓은 좁쌀겨자루가 아래목에 있는것을 보고 까무라쳤다고합니다.… 몸을 풀고서 몇달이 지나 그동안 계속 감시를 받고있던 기순동무는 주구가족이니 같이 일을 할수 없다고 유격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기순동무는 죽어도 혁명의 길에서 죽겠노라고 하던 남편의 마지막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석환동무의 뒤를 이어 파쟁분자들의 정체를 폭로하며 우리 혁명의 로선을 지키려고 다시 유격구로 찾아왔습니다. 성옥이는 남의 집에 맡기고… 복만에서 돌아오던 길에 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동무를… 석환동무를 잃은것이 너무 가슴아파서 잠을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격구로 다시 돌아온 기순동무까지 또 종파놈들에게 체포되었다지 않겠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절통하여 목소리가 떨리시였다. 격하신 숨소리만 방안에 울리였다. 한운은 험악하던 그때의 일이 방금처럼 회상되었다.

파쟁분자들은 기순이가 되돌아온것을 보니 왜놈들의 임무를 받은것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다짜고짜 체포하고서는 악착하게 고문했다. 그리고 그에게서 아무 《자백》도 받아내지 못하자 악질이어서 불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악질한테는 총알도 아까우니 총창으로 찔러죽여야 한다고 지껄여댔다.

수령님께서 그를 구원하려고 급히 말을 달려가셨을 때 피가 랑자한 기순은 포승에 묶여 끌려나가고 있었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얼마나 격노하시였던가. 불이 필필 이는 눈길로 쏘아보던 그이께서는 와락 목갑총을 쥐시였다.

기순의 뒤를 따르던자들은 얼굴이 흠뻑이 되어 비실비실 쫓기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떨리는 손으로 기순이의 포승을 풀어주시였다.

《장군님 !》

놈들의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입술을 짓씹으며 신음소리 한번 안내던 기순은 눈물을 쏟으며 그이를 불렀다....

《성옥아 너의 부모들은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의 공산주의자답게 잘 싸웠다. 정말 훌륭한 혁명가들이였다. 어머니는 왜놈들에게 체포된 다음에도 혁명의 결개를 지켜 빛나게 최후를 마치고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웅글은 소리로 말씀하였다. 그 말 씀만으로는 가슴속에 끓어번지는 걱정을 다 새길수 없으신듯, 그리고 그 말 이외에 더 다른 표현을 찾을수 없는것이 안타까운듯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한번 되뇌이시였다.

《참 잘 싸웠다. 도끼령감이 한 말이 옳다. 너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할줄 모르는, 샘처럼 맑은 량심을 가진 사람들이였다. 어떤 강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혁명가의 지조를 지킨 참된 투사들이였다.》

순간 할머니의 손을 잡고서 처음 앉았던대로 자세를 형크리지 않고있던 성옥이의 머리가 번쩍 들리며 얼굴이 확 빛났다.

《그럼...》

어떤 속삭임이 저도 모르게 입밖으로 뿜어나왔다.

《너의 아버지를 학살하고 어머니마저 끌어가던 놈들이 극악한 원수들이였지.

나는 그놈들의 죄상을 모조리 밝혀 웅당한 벌을 받게 하였다. 우리 혁명을 좀먹던 원수들은 모두 처단되었다. 그날 나는 사람들앞에서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참된 공산주의자들과라고 선포하고 너의 어머니를 유격대에 받아들였다.》

《수령님 !》

고개를 떨구고있던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부르짖었다.

성옥이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였다. 자책이랄지 자랑이랄지 이름할수 없는 감정으로 몸부림치고싶도록 피로우면서도 한편 무한히 행복하였다.

수령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두고 말씀하여 주신다 ! 훌륭한 유격대원이라고 하신다 !

눈앞에 서리였던 어둠은 자취없이 사라졌다. 성옥이는 오랜 꿈에서 깨어나 마음속까지 환하게 밝혀주는 따뜻한 해빛을 맞이한듯싶었다.

《성옥아 너를 찾은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못찾았더라면 너는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있을게 아니냐. 그렇게 훌륭하게 싸운분들을...》

《아버지 ! 》

따뜻한 녀려와 사랑에 젖은 그이의 말씀이 가슴 저리도록 사무쳐와 성옥이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오열을 씹어넘기는 그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어제날 포승에서 풀려나 눈물흘리던 기운을 련상하듯 눈에 물기가 어리시였다. 바라볼수록 그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찢는듯 말씀이 없으시였다.

창밖으로 끝없이 열린 밤하늘에 보석같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 대지를 굽어보며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 별빛아래로 잔잔히 흐르는 넓은 대동강의 수면을 거스르며 불어오는 바람이 한결 서늘해졌다.

밤이 깊어졌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시간을 잊는듯하시였다.

무엇이든 성옥에게 어머니에 대한것을 더 들려주고싶어하시며 그가 할머니에게 배워서인지 산나물국을 구수하게 끓일줄 알았다고, 인정이 많아 남도와주기를 잘했는데 장백에서 갓 입대한 철송이라는 꼬마대원이 잠이 많아서 한해겨울에 모자를 일곱번이나 우등불에 태운것을 그때마다 나무람하지 않고 기워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성옥이가 한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 김석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였다. 키가 크고 눈썹이 진하고 주먹도 컸다고. 원래 광산에서 일했는데 성미가 시원시원해서 연설도 잘하고 우스운 말도 잘하고 군중공작에도 능숙했다고 하시였다.

수령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는 자꾸만 옆에 앉은 성옥이를 바라보았다.

커다란 상실의 아픔이 기쁨과 뒤섞인 어머니에게 성옥이는 손녀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방금 자기 품으로 돌아온 딸애를 동시에 안고있는듯싶었다.

이 귀한것이 집을 떠나서 별별 고생을 다 했구나. 수령님이 아니시였다라면 너를 다시 만나지 못할번하였구나. 수령님이 아니시였다라면 누가 그런 지경에 이른 너를 구원해주었겠니.

어머니는 성옥이와 함께 언제까지도 그이를 모시고 해빛같이 따사로운 미소가 어리신 모습을 봐우며 그이의 말씀을 듣고싶었다.

하지만 밤이 꽤 깊었다는것이 생각되자 정신이 펴쩍 들었다.

그제야 수령님께서도 시계를 보시며 가볍게 놀라시였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까? 금방 와왔은것 같은데 벌써 자정이 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우리 이야기를 더 합시다. 이렇게 마주앉아 지나온 이야기를 하는것이 얼마나 좋습

니까. 여기에 도끼령감까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것입니다. 참 고마운분이였는데... 성옥아. 넌 이제 가서 자지 않겠느냐.》

《일없습니다. 저도 할머니와 함께 원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싶습니다.》

두눈이 별처럼 반짝이며 온몸이 귀가 되어 수령님의 말씀 한마디한마디를 놓칠세라 듣고있던 성옥이는 어린애처럼 그이의 팔에 대달렸다.

수령님을 집에 모신 이 밤에 잠을 자다니 성옥이는 한시도 그이의 옆에서 떨어지고싶지 않았다. 꼭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서 다시 돌아온듯싶었다.

《그래도 자거라. 내 네가 사흘밤을 꼬박 새웠다는 말을 들었다. 오죽 피곤하겠느냐.》

한운을 따라오면서 이틀,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를 가슴두근거리는 초조속에서 또 하루, 성옥은 창황히 쫓기는듯도 하고 무언가 비상한 일이 다가오는듯도싶은 기다림속에서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두눈이 초롱초롱해서 밤을 새웠다. 새벽빛과 함께 밀려오는 지친 피로와 금시 그것을 잊게 하며 새롭게 솟는 불안, 그속에서 시달리던 마음까지 헤아려주시는 수령님의 따뜻한 말씀에 성옥이는 눈굽이 다시 뜨거워졌다. 그는 핑 젖어드는 눈물을 수령님께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수령님께서서는 부드럽게 미소지으며 이번에는 살림살이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시였다.

이 집에서 외손녀와 한가정을 이루어 이제까지의 외로움을 잊고 웃으며 살라고 당부하시였다. 문득 수령님께서서는 말씀을 멈추고 성옥이를 바라보시였다. 그는 할머니의 품에 머리를 기대채 술곳이 잠들어버린것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따뜻한 눈길로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시였다. 깨여날새라 조심스레 고르로운 숨소리에 귀기울이시였다.

이 밤에 자가가 잠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성옥이다. 이제껏 마음을 짓누르던 근심걱정을 다 떨어버릴듯 모든 시름을 잊고 그는 깜박 잠들어버렸다.

수령님께서도 그것을 짐작한듯 바라보는 눈길이 부드럽게 빛나기도 하고 성옥이가 이제까지 겪어온 슬픔을 헤아리며 측은한 빛을 띠기도 하시였다.

《어머니, 이 애를 좀 더 빨리 찾지 못한것이 유감입니다. 이때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어린것이... 해방후 별 어중이떠중이들이 혁명을 했노라고 으시대며 행세를 했는데 이 애는 그렇게 훌륭한 부모를 숨기고있어야 했다니... 기순이가 해산한후 좁쌀겨로 겨우 연명을 하다니 이 애는 영양이 부족해서 몇달이 되도록 눈을 바로 뜨지 못했습니다. 강보에 싸였던 때부터 고생하며 자란 이 애가 아버지 어머니를 여태껏 떼땀이 자랑하지 못했으니 나는 그것이 분합니다.

가슴에 못이 박힌것 같습니다...

이 애를 보니 기순동무 생각이 더 납니다. 한번만 인라도 그를 다시 보고싶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사

진이라도 한장 간수한것은 없습니까?》

《네 사진은 없고…》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장 통속을 주섬주섬 뒤지었다. 명주보자기에 차곡차곡 쌓던 달비를 수령님앞에 꺼내놓았다.

《이게 그 애가 집을 떠날 때 두고 간것입니다. 이것밖에는…》

긴긴 나날 딸을 기다리던 어머니의 숨결이 배인 달비를 받아든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말쑥없이 바라보시기만 하였다. 거기에서 기순이의 얼굴과 강의 하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어머니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들었다.

20년세월 그 머리칼 한오리한오리가 낡아기른 딸의 귀중한 몸 한부분이어서 누구도 범접을 못하게 하며 고이 간직한 달비. 흙냄새 풍기는 노전방에서 뒤척거리며 잠 못이루는 긴긴 겨울밤에도, 쪽잡에서 놀라 깨어난 새벽에도, 한낮에도 딸애가 기다려질 때마다 만져보던것이다.

허지만 수령님께서 그것을 보아주시고 귀중히 여겨주실 날이 오리라고야 상상이나 했던가.

수령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어머니, 제가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할가 합니다. 이 달비를 저에게 맡길수 없겠습니까. 어머니에게 무척 귀중한것이고 한시도 몸에서 뗄수 없는것인줄 알면서도 이런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는 목에 눈물이 차왔다.

그것이 빛이라고 수령님께서 이리도 뜨겁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하여주시는가.

어머니는 이월이를 낳고 젖먹여주었다. 그러나 그 애가 절통하게 미어지는 가슴을 안고 남편의 사형장에 서있던것도 자신이 또한 그길로 걸어가던것도 보지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 그것을 아시였고 보시였던분 그를 억울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새생명을 주시고 영광스런 싸움의 길에 내세워준분은 바로 수령님이시었다.

자고있는 성욕이가 방긋 웃었다.

어린아기처럼 밝은 웃음이다.

그를 굽어보던 수령님께서도 미소하시었다.

《어머니, 이 애가 꿈을 꾸는것 같습니다. 아마 좋은 꿈인가봅니다… 기순이가 이렇게 자는 딸을 한번만 봤으면…》

수령님께서는 미소하시었다.

그러나 나직이 말씀하는 그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픔이 스며제시었다.

이윽고 수령님께서는 밤이 깊은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자리를 뜨시었다.

그이께서는 잠시 불밝은 성욕이네 창문을 올려다보다 승용차를 타려하지 않고 천천히 강변길을 따라 걷기 시작하시었다.

폐부깊이 스며드는 싱그러운 대기속에 수양버들 가지에서 이슬이 내리고있었다.

은은히 깊어가는 밤의 호흡소리가 정적속에 들려

오는듯싶다.

수령님께서는 어스름속에 일렁이는 물결을 굽어보시며 이윽도록 걷기만 하다가 조용히 뒤따르는 최한운을 돌아보시었다.

《한운동무, 석환이가 마감으로 기순에게 남긴 말이 생각나오?… 아버지에 대해 똑똑히 말해달라고 했지…》

《예…》

《오늘에야 우리가 그 부탁을 들어준셈이군. 아마 이제는 그가 눈을 감을거요.》

기나긴 싸움의 나날 희생된 혁명전사들의 흩어진 가족들을 하나하나 모아 그들에게 떠나간 투사의 뜻을 넘겨주려고 애썼고 그러고나서야 한시름 놓곤 하던 수령님이시었다. 그 유가족들 하나하나를 찾으신 때마다 싸움의 나날 새로운 동지 하나를 얻은 때처럼 기뻐하시던 수령님, 그러나 오늘은 수령님의 그 감회가 류달리도 깊으신것 같았다.

강건너 건설장에서 눈부신 용접망의 불보라가 자욱하게 허공에서 부서져내리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두 손을 가슴에 포개여엎으시고 깊은 사색에 잠기서 용접망을 바라보시었다.

《초연이 가실 날이 없었던 저 하늘에서 이제는 축포가 터져오르고 오늘은 건설의 불꽃이 튀고있소. 한운동무, 기순이가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며 최후의 순간에 그려본것이 저런 불꽃이 아니였을가. 그의 마음속에서 번쩍인것이 바로 저 불꽃이 아니였을가.》

수령님의 안광에 어린 다감한 걱정의 파도가 한운의 가슴에도 밀려와 그는 눈굽이 뜨거워졌다. 오래동안 그이를 모시고 수많은 시련의 언덕을 넘어왔지만 이리도 깊은 감회에 잠겨 말씀하시는것은 처음 듣는듯싶었다.

《오늘은 왜 그런지 옛동무들 생각이 더 간절해지오. 많은 동무들이 희생되었지. 조국을 광복하는 싸움에서, 이번 전쟁에서… 그들은 비록 갔어도 우리에게 그 누구도 꺾을래야 꺾을수 없는 강의한 혁명정신을 남겨주었소. 그 정신이 있기에 우리인민은 어떤 싸움에서도 언제나 승리하는것이 아니겠소.》

가슴을 뿌듯하게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한운은 치밀어오르는 뜨거운것을 주체하지 못하여 수령님을 따라 강건너 건설장을 바라보았다. 대지에 펼쳐진 건설의 휘황한 불꽃이 하늘의 별바다와 한데 어울려 강물위에 무르녹는 초가을의 야경이 이리도 신비하도록 아름다움을 그는 이 순간 처음 느끼고있었다.

## 5

혁명박물관을 새로 개관한 날.

수령님께서는 다른 일들을 다 미루고 먼저 그곳부터 찾으시었다.

용광로복구공사장에서 밤낮없이 살던 최한운도 마침 평양에 올라와있어서 기순의 어머니, 성옥이와 같이 그이를 모시고 박물관으로 가게 되었다.

정중한 침묵속에 한층 또 한층 수령님을 따라 걷는 한운의 앞에 전우들의 체취가 스민 물건들이 차례로 흘러갔다. 총, 노래집, 시계, 표창받은 금반지...

수령님께서 매 유물들앞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곤하시었다.

그 유물들에 갖든 사연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수령님이다. 한운은 가슴이 후터워졌다.

수령님을 모시고 싸우던 그때가 생생하게 되살아왔다. 어렵고 피로왔지만 수령님의 은정속에 승리를 믿고 싸우던 시절, 돌이켜보면 볼수록 벅차고 피가 끓는 시절이다. 성옥이는 눈을 크게 뜨고 한운의 옆에 붙어있었다. 여기에 펼쳐진것은 그가 모르고 처음 보는 생활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만큼 더 귀중하게 여겨지고 마음속으로 가까워진 친근한 세계였다.

어느 한 방에 들어서자 그는 못박힌듯 서버렸다.

《아저씨 저기...》 한운의 팔을 당기며 말했으나 목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그쪽을 돌아본 한운은 흠칫 놀랐다. 채광이 좋은 방의 넓은 벽에서 기순이가 그들을 맞고있었다.

장백현소학교운동장, 술렁거리는 사람들우로 떠오른 날리는 머리카락, 찢어진 군복, 볼끈 틀어쥐여 놓이 든 주먹...

《너는 무엇을 믿는가. 네가 공산을 한다고 나서서 얻은것이 무엇인가. 너와 남편은 자기 동지라는 사람들 손에 목숨을 잃었고 너도 죽을번하지 않았는가.》

지껄이는 왜놈들에게

《나는 김일성장군님을 믿는다. 나는 장군님의 전사다.》 대답하며 끝까지 사람들을 혁명에 불려 일으키던 최후의 모습이 액틀속에 정지되어있었다.

성옥이는 아프도록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젖힌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 순간의 그들은 똑같은 모습이었다.

눈길도, 표정도, 얼굴도...

성옥이는 그림속의 자기를 보고있었다.

그러는 성옥이를 바라보던 수령님께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유화쪽으로 이끄시었다.

정교하게 다듬어만든 커다란 유리콤팩이 흰 대리석 대우에 놓여있다. 그속에 붉은 비로도천에 받쳐서 달비 하나가 소중히 간직되어있었다.

《성옥아. 너의 어머니 달비다. 집을 떠날 때 할머니에게 맡기고 간거다.》

한운은 수령님께서 어쩌서 어머니에게 달비를 자신께 맡길수 없는가 물으셨는지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성옥의 지난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슴에 못이 박

힌것 같다고 하시던 잇을수 없는 그 밤에 하시던 말썸이 귀전에 되살아왔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박물관에 기순의 모습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남기게 하셨으랴. 그 앞에 성옥이를 세워주셨으랴.

성옥의 눈에 눈물이 고여 방울방울 흘렸다. 그는 손바닥으로 조심조심 유리우를 더듬었다.

어린 성옥이는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웠던가. 젖내나는 품에 안겨보고싶었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웃는지 단 한번만이라도 그 얼굴을 보고싶었던가.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살아왔다. 자랑스런 어머니, 땀뻗한 혁명가 어머니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모습으로 긴긴 세월 떨어져있던 그를 반겨주고있었다.

성옥의 옆에서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주름진 볼로도 두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부터 어머니가 보고싶으면 여기로 찾아오 군하여라. 할머니랑 모시고...》

한운은 문득 기순이만이 아니라 귀중한 동지들 모두가 이곳으로 돌아온듯싶었다.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생생한 숨결과 웃음까지 감축할수 있는 림 림한 모습으로 앞에 서있는듯싶었다.

《정치위원동무, 기순동무 철송이...》

한운은 마음속으로 불러보았다. 눈이 젖어졌다.

《동무들, 사령관동지께서 오셨소. 사령관동지께서 지금 동무들을 보고계시오...》

...그날저녁 한운은 다시 현지로 떠났다. .공사와정에 제기된 난관과 해결받아야 할 여러가지 부득이한 문제들때문에 무거운 걸음을 한 그였지만 수령님께 그런것은 하나도 말씀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더 든든했다. 그는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정치위원이며 기순이며 모자를 일곱번 태운 철송이며 모두 만나보고 가는것이였다.

《나는 장군님을 믿는다》고 높이 웨친 기순의 목소리를 듣고 가는것이였다. 수도의 밤거리는 불야성을 이루었다.

활기있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웃음이 차창밖으로 흘렀다.

한운은 희생된 동지들의 웃음도 그속에 비껴있는듯싶었다. 그들이 자기와 함께 가며 지난날에 대하여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깨우쳐주는듯했다.

그들이 다 돌아온듯했다. 아니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수령님께서 고귀한 은정으로 그들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계시기에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것을 굳게 믿는것이였다.

수령님의 품속에서 싸우던 전사는 죽어서도 그 따뜻한 품으로 반드시 돌아오는것이 아니겠는가.

한운은 그가 어쩌서 미소하는지 영문을 몰라하는 운전사에게 승용차의 속도를 높이라고 일렀다. 지금 그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서 전투장에 돌아가고있었다.

# 오 자유의 날 영광의 날이어

프레드 아그로 불리

4월 15일

그 거룩한 봄날  
다시금 이 땅에 동터울 때  
오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 원수님이시여  
충성으로 불타는 우리의 마음  
만경대를 그리며 당신을 노래합니다

우리 영원토록 그날을 노래하렵니다.  
그날에 위대한 태양 만경대에 솟아  
세계를 밝게 비치며  
노예살이의 설움을 가시여주셨기에

우리를 자유의 품속에 안아주신  
어버이 그사랑 그 은혜 그 은덕을  
영원토록 노래하렵니다

하늘을 날으는 천리마인양  
혁명의 열정안고  
당신을 목청껏 노래하렵니다  
만민이 우리르는 **김일성** 원수님이시여

우리 그 언제이고  
백두의 준령을 뚫아올라  
천지의 맑은 물에 무지개로 비낀  
당신의 혁명력사를 배울  
끝없는 기쁨  
성스러운 가락에 담아  
축원의 춤 추어드리렵니다

그날이 올 때면  
우리 영광의 추억을 더듬으며  
당신께서 제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빛나는 나날을 회고하고

락후하던 나라를

환희의 락원으로 꽃피우신 력사의 날들을  
소리높이 노래할것입니다

오 만민의 태양 **김일성** 원수님이시여  
그날은 올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받아안을것입니다  
세계를 엮매인  
고통과 억압과 노예의 사슬을 풀어주시려고  
당신께서 인류에게 안기신 선물  
성스러운 주체의 선물을

만경대는 마음의 고향  
혁명의 성지  
우리 열풍이 불어나나 비가 오나  
당신만을 따라  
오로지 주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렵니다

높이 자란 소나무숲  
천리마 타고 그우를 날으며  
우리는 사회주의개조와 락원의 무지개를  
잡으려 가렵니다

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이시여  
우리 순결한 마음 충성의 마음담아  
영원한 사랑으로 불타는 가슴안고 축원하나니  
당신께서 부디  
영원토록 행복하시고 안녕하시여  
천만년 길이길이 장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옵니다

(필자 가나주체사상전국협회  
문학예술인지부 위원장임)

##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로제 고토 조무

해빛밝은 초원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노래합니다  
생활의 화원속에 별처럼 빛나는  
당신의 크나큰 업적을 노래합니다

만경대로부터 비쳐온

자양분과도 같은 사랑의 빛발 받아  
수정같이 맑아진듯한 마음안고  
우리 당신의 경사스러운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유명한 저작들을 읽노라면  
우리의 눈엔 광명이 비쳐드는듯하고



우리의 기쁜 마음  
당신의 위대한 품으로만 물결쳐갑니다  
당신의 저작들은 정녕 자유의 하늘에  
빛나는 별과도 같은것입니다  
우리 친근한 정 안고  
당신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노래에 끝없는 흠모와 경모의 인사를 담  
아 보냅니다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김일성** 주석이시여 !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백전백승의 원수님이시여 !  
우리는 당신께서 부르시는 그 자주세계를 향  
하여  
힘을 가다듬고  
신념을 더욱 굳건히 다지며  
주체의 등대 평화의 밝은 희망안고  
지구의 모든곳에서 걸음을 다그칩니다

당신의 위대한 사상 있기에  
우리 궁지도 드높이  
새세계의 창조를 위하여 몇몇이 나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리켜준 휘황한 미래가 있기에  
우리 영광의 대오 굳게 짜고  
모든 대륙인민들의 희망찬 래일을 위하여  
억세계 나아갑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이시여 !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백전백승하는 당신께서는  
조선인민을  
통일의 그날에로 부르십니다

경애하는 주석이시여 !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김일성** 주석이시여 !  
평화의 교향악속에  
락원의 새세계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흠모의 정 받아안으시고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자 기네주간잡지 《호로야》 기자)

## 만경대 고향생각 외 1 편

리정술

유난히 달도 밝은 밀영의 한밤  
대원들은 그리움에 잠 못 이루네  
장군님 들려주신 만경대이야기  
못잊을 고향집이 눈에 어리네  
아 달빛타고 은하타고 어리어오네

만경대 고향에도 봄은 오련만  
추녀에 쌓인 눈은 녹지 않았으리  
장군님 맞이할 그날 기다려

이 밤도 사립문은 열려있으리  
아 백두산을 우러러 열려있으리

꿈결에도 그리운 만경대고향  
눈보라 만리길에 안고 걸었네  
삼천리에 꽃물결 설레일 그날  
장군님 모시고 찾아가리라  
아 만경대고향집 찾아가리라

## 사랑의 과원

사과꽃 향기 흘러 아득한 꽃바다  
처녀들의 웃음꽃도 만발한 꽃바다  
몇리나 되는가고 묻지를 마오  
수령님 사랑속에 백리과원이랴오

애어린 사과나무 안고오시여  
포연속에 청춘과원 펼치신 그 사랑  
알알이 무르익어 백리이랴오

행복이 무르익어 하늘끝에 닿았소

과원엔 충성의 열매가 익구요  
이 마음엔 간절한 소원이 불타오  
그 소원 무엇인가 묻지를 마오  
수령님을 가울닐에 모시고싶은 마음

아 백리과원 사랑의 백리과원

# 전승혁명사적지를 찾아서

조광희

밤사이 차분히 내린 비에 씻겨 모든것이 청신하게 안겨지는 상쾌한 아침이다.

전승혁명사적지는 말그대로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다왔다. 이깎나무, 전나무들이 예나 지금이나 푸르려 서있어 사적지를 한결 더 아름답게 돋구어 주고있다.

보면 볼수록 황홀하게만 느껴져 좀처럼 뜨고싶지 않는 전경을 바라보던 우리는 참관자들속에 섞여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야외사적지로 걸음을 옮겼다.》

## 위대한 수령님 마음속에 인민이 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업하시던 야외집부실이다.

진격의 화살을 굶던 그 빛나는 예지로 전후복구 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고 별무리 흐르는 오솔길을 거닐며 조국의 만년대계를 구상하시고 무르익히신 야외집부실.

너무도 겸손한 자그마한 집이다.

여기서 강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쟁이 한창 가렬하던 1951년 5월 2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이 집에서 평양시 복구건설총계획도를 친히 보아주시며

»» » » G » »

「라고 뜨겁게 말씀하면서 우리 식으로 평양을 보다 아름답고 화려한 현대적인 대문화도시로 건설하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었습니다. 또한 어느해 설날엔 가는 이 집에서 녀성비행사전투영웅도 친히 만나시여 신년경축연회를 마련해주신 자리에서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을 뵈기 위하여 찾아온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을 비롯하여 수많은 외국대표들도 만나주시고 보고문 정서같은거야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되지 않는가고 한 외국인이 올린 소박한 말을 들으시고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으로 다 바쁘는데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하시며 친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 보고문을 정서하신 곳도 바로 이 집입니다.》

실로 이 자그마한 집에 태양을 따르는 우주의 별들이 비끼듯싶었고 그 자그마한 프락에 사랑만을 받으며 사는 온 겨레가 모여선듯싶었다.

우리가 이런 생각과 함께 주의깊은 눈길로 사적

건물들을 돌아보고난 뒤였다.

《야! 저게 도라지가 아니야?》

갑자지 누군가가 가볍게 탄성을 올리자 너무도 희한한 광경에 저저마다 속생각을 감추지 못하고 모여들었다.

불혈듯 도라지를 보노라니 전화의 그날, 집무실을 나선 어버이수령님의 산책길에 송이송이 반겨오던 그 도라지가 아닐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든다.

모든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생각을 깊게 해주는 싱스러운 땅이었다.

전쟁이라는 엄혹한 시련을 외면한채 차거운 달덩이마져 잠에 취한듯 하늘 한쪽에 비껴서서 졸고있던 깊은 밤.

얼마전에 찾으셨던 미암리 한 전제민가정의 어둡컴컴한 부엌과 방안세간들을 다시 그려보시는가 아니면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들을 키워가던 순천군의 한 농촌녀성이 올린 소박한 말씀을 생각하시는가.

마음속에 항시 인민을 안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 프락을 조용히 거니신다.

옷 한벌, 이부자리 한채 변변한것이 없고 끼니마저 잇기 어려웠으나 오히려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장군님의 안녕만을 간절히 바랐고 포화에 뒤덮인 고지우에서 불타는 거리와 마을에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 것처럼 용감히 싸워서 이긴 우리 인민이었다.

그 마음을 헤아리셨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 더 주고싶으시여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 상정시킬 전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대책을 무르익히시며 이 프락을 걷고 걸으시었다. 거니시면서 혁명자유자녀들과 전재고아들을 국가적부담으로 키우실 구상과 각곳에 세울 유자녀학원과 초등학교와 애육원을 그려보시었다.

바로 이 프락에 남기신 이러한 사랑의 자욱이 있었기에 세계전쟁력사상 가장 치렬한 피해와 가장 참혹한 파괴를 당했으나 집이 없어 얼어죽었거나 먹을것이 없어 굶어죽은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우리 인민이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

수령님 마음속에 인민이 있고

인민의 마음속에 수령님 계시네

...

## 사랑과 의리

저마끔 앞서간 동무들이 부르는 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난 우리는 급한 걸음으로 참관자들을 따라섰다.

《여기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계시던 갯도입니다.》

강사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 참관자들의 숨소리도 잠든듯 조용해졌다.

포화가 멎은 그 밤처럼 아직도 조용히 귀를 강구면 폴랑폴랑 석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것만 같고 푸릿한 이끼가 내뿜친듯싶은 좁다란 갯도, 가장 준엄했던 력사의 모든 시련이 여기에 다 비친듯 들성듬성 나무동발이 서있고 질퍽한 바닥엔 석수 흐르는 갯도, 여기서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였다.

갯도의 구석구석을 찬찬히 살펴나가던 우리는 매방들의 표어판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 지켜 새벌처럼 잠못드는 흥조편 얼굴이 그속에 보일것만 같은 갯도보초소,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 40돐을 맞으시던 바로 그날에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올린 헌시도 친히 보아주시고 희미한 전등불이 꺼지면 초대 성냥을 그어대시며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 보고서를 작성하셨다는 감회도 깊은 사무실.

다음방은 천리 전선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전쟁으로 령락된 인민들의 생활을 헤아리시여 여러가지 시책과 법령을 채택하시는 크고작은 회의가 200여차례나 열렸고 영화는 여러 사람이 보아야 재미가 있다시며 군인들을 부르시여 영화도 함께 보신 회의실이였다.

그런가 하면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 땐 우리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시며 언제나 수수한 조밥을 드시던 식당...

실로 인민을 위한 은정으로 가득찬 갯도였다.

또 그 다음방, 그 다음방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끝없이 충실한 항일혁명투사 김책동지가 사용하던 방이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과 의리로 빛나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 방에서 사업하던 김책동지가 최고사령부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찾아가간것은 1951년 1월 30일 밤이었다. 불쑥 찾아온 그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김책동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올리였다.

《지난날, 김정숙동지의 생일날에도 와보지 못했는데 이달도 다 가니 암만 생각해도 그냥 있을수 없어 때늦게 찾아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하시여 아무 말씀 없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의리를 지켜 충신으로 살아오는

그가 못내 미더워 밤새도록 그동안의 회포를 나누고 또 나누시였다.

밤은 퍼그나 깊어 인젠 그만 돌아가겠다고 일어서는 김책동지를 찬찬히 살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의 께진 양말에서 눈길을 멈추시였다.

김책동지의 께진 양말을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부관을 시켜 자신의 새 양말을 가져오게 하시고는 끝끝내 갈아신겨주시고서야 그를 앞세우고 현관으로 향하시였다.

사랑하는 자식을 바래우는 사리깊은 어머니처럼 문밖에까지 따라나서신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선뜻 떠나기 아쉬워 전사는 몇번이고 몇번이고 돌아보고서야 자동차에 올랐다.

그런데 이것이 어버이수령님과 그이의 충직한 혁명전사 김책동지사이에 마지막리별이 될줄이야.

바로 몇시간전만 하여도 것처럼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나누던 김책동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화로 받으신 수령님께서서는 이 사실이 굳이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벌써 세번째 전화를 걸어서야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신 수령님께서서는 폭격이 심한 대낮에 차를 달려 이곳으로 오시였다. 잠든듯이 누워있는 그를 와락 그러안으시고는 생사운명을 함께 하자던 사람이 어떻게 가는가고, 오늘처럼 많은 일을 남겨두고 왜 그렇게도 일찌기 가는가고 목메여 말씀하시며 《김책이, 김책이》 하고 사랑하는 전사를 부르고 또 부르시였다.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지난밤 떠나려는 김책동지에게 인젠 밤도 깊었으니 하루밤 쉬고 아침에 가라고 이르시던 위대한 수령님이시였고 그이의 안녕을 위해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일어난것이나 어버이 그 품을 떠나기 아쉬워 선뜻 돌아서지 못한 김책동지였다. 그렇게 떠난 김책동지가 몇시간후엔 바로 여기 이 책상앞에서 저 의자에 앉은채로 세상을 떠날줄이야...

수령님께서서는 조용히 누워있는 김책동지를 다시 내려다보시였다.

엿저녁처럼 무엇인가 그와 속삭이고싶으시였다.

그 머나먼 길을 함께 걸어온 더없이 귀중한 전우였다.

이제라도 부르면 엿저녁처럼 벌떡 일어나 황급히 단추부터 채우며 옷을것만 같은데 전사는 대답이 없었다. 다만 충직하고 강직한 기상만이 생전처럼 그의 얼굴에 비껴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눈가엔 뜨거운 눈물이 맺히군하였다.

슬프시였다. 너무도 원통하시였다.

오죽하셨으면 김책동지의 장례식날, 그의 령구를 메시고 맨 앞장에서 걸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함께 걷는 투사들에게 동무들,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김책동무를 어디로 데려가는가고 하시며 비통

함을 감추지 못하셨겠는가.

얼마나 피로우셨으면 그의 령구를 안치하고 내려 오신후에도 련 사흘 침식을 잊으시고 그가 있던 방을 찾으시고는 한참씩 바라보시곤하셨겠는가.

아직도 그가 앉아있던 저 의자에서 살아있는 전사를 다시 보시려는듯...

그렇다. 생전에 어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을 받아온 김책동지는 그사랑, 그 품속에 안겨 오늘도 우리 인민들과 함께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수여하신 공화국영웅칭호와 함께 그의 고향에 세워진 동상과 그의 이름을 단 《김책시》와 《김책공업대학》, 《김책제철소》, 《김책군관학교》와 더불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있다.

## X

이러한 사실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과 혁명전사들에게 베풀어주신 위대한 사랑과 고귀한 의리에 대한 이야기의 한토막에 불과하다.

이 위대한 사랑과 의리는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속에 삶의 불씨가 되고 투쟁의 전부가 되어 우리당을 따르는 한길에 투사로, 용사로 세워주었으며 이런 사랑과 의리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한 세대

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세상에서 가장 큰 무적의 힘, 불패의 힘을 지닌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전승혁명사적지-여기는 사랑과 의리로 가득찬 혁명의 학교이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 사적지에서 보아주신 평양시 복구건설총계획도가 오늘은 락원거리, 창광거리로 높이 솟아 인민의 요람으로 영원하고 싸우는 전사들을 찾아 걸으신 그 사랑의 길이 오늘의 우리 조국-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를 건설해온 길에 이어졌고 그 자랑찬 길이 래일의 희망찬 길- 인류의 리상사회인 공산주의 지름길로 이어져있다.

전승혁명사적지에 대한 참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취재수첩우에 방금 적어넣는 글을 다시 펼쳐보았다.

《...찾아올 땐 그저 아름답게만 느껴지던 전승혁명사적지에서 우리는 한없이 은혜로운 품- 뜨거운 사랑과 의리로 빛나는 가장 위대한 품을 보았다. 그중에 우리 운명의 모든것을 맡기고 그 품에 우리 언제나 영생하리라. 참되고 굳세게...》

##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는 생각 외 1편

한원희

가는 세월 멈춰세우면  
우리 수령님 젊어계실가  
오는 세월 빛내이면  
우리 수령님 젊어계실가

그이 한평생 가꾸어오신  
인민의 기쁨 다 모아드리고  
밝은 미래 앞당겨 올리면  
그이 언제나 젊어계실가

해빛안고 피어나는 온갖 꽃들이  
태양의 은혜 갚지 못하듯  
영원히 남아있는것인가  
수령님을 위한 인민의 마음

어디에 서면 그 어디에 가면  
가는 세월 멈춰세우라  
수령님 젊어계실 그 길이라면  
아, 한생이 다하도록 나는 가리라

## 꽃과 같이 수림과 같이

우리 수령님 가까이 뵈옵자고  
환호의 군중들 꽃바다 이루네  
조국땅이나 외국땅 그 어디서나  
저저마다 발돋움 키돋움하네

아, 이렇게 한껏 자라오르네  
우리 인민도 세계의 인민도  
태양을 우러러 자라오르는  
꽃과 같이 수림과 같이

## 총서 《불멸의 력사》는 수령형상창조에서 이룩한 빛나는 문화적재보

방연승

인류가 낳은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가장 큰 행복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끝없이 흠모하며 높이 우러러 따라배우는것은 우리 시대 혁명적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신념이고 의지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 우리 사회주의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수령형상창작에 대한 사상리론을 내놓으시였을뿐아니라 몸소 그 구현을 위한 창작작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문학부문만 보더라도 총서 《불멸의 력사》와 같은 빛나는 문화적재보가 이룩되며 그 위용을 떨치고있으며 커다란 영향력을 널리 발휘하고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가 수령형상에서 달성한 귀중한 문화적재보로 되는것은 첫째로 총서작품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숭고한 품모와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를 대영웅서사시적화폭속에 체계성있게 전면적으로 담은 빛나는 문학적기념비로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대영웅서사시적화폭속에 전면적으로 체계성있게 반영하는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가지는 백과전서적인 내용과 혁명교양에서 그것이 가지는 절대적인 의의와 관련된다.

진정 우리의 수령님은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이 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명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심오한 혁명리론과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시고 빛내이신 로동계급의 가장 위대한 수령이시며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장구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찬란히 수놓아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그 영생불멸의 의의도 하여 이른바 《작품이 될수 있고 소설이 되기 좋은 소재》를 골라내어 형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묘사대상이 아니다. 아버지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전면적으로 형상되어야 할 가장 귀중한 혁명의 재보이다.

그것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인민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을 생활그대로

영원히 전하는것이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다하게 하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중요한 창작적임무로 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며 수령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혁명활동을 깊이 있게 형상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와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한 작품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의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중추적인 자리를 차지하며 무궁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요구들을 구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형상하는것은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숭고한 위업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에 첫 빛나는 해답을 준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대영웅서사시적화폭속에 빛나게 담은 총서작품들이다.

현재까지 출판된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은 《맞은 올랐다》, 《혁명의 려명》, 《은하수》, 《대지는 푸르다》, 《1932년》, 《근거지의 봄》, 《백두산기슭》, 《압록강》, 《잊지 못할 겨울》,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 《준엄한 전구》 등이다.

장편소설들인 《맞은 올랐다》와 《혁명의 려명》은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한 조선혁명을 자주성의 기치밑에 새롭게 시작하심으로써 그 운명을 구원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신 혁명활동을 그리고있다. 전자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심으로써 자주성의 기치밑에 주체혁명의 출발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혁명활동을 그리고있다. 후자는 인민대중과 리탈하여 파쟁만 일삼고있던 민족주의자들과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의 본질적약점을 통감하시고 인민대중이야말로 혁명의 주인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깨우치고 묶어세워

야 한다는 원리,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체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구현하시어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비롯하여 각종 혁명조직을 꾸리며 세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과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시어 첫 승리를 거두시는 혁명활동을 그리고있다.

《은하수》와 《대지는 푸르다》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전환에 질겁한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과 1930년 5.30폭동과 8. 1폭동의 후파로 위기에 처한 조선혁명을 구원하며 보다 높은 무장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진로와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고 몸소 그 실천적구현을 위하여 파괴된 조직을 수습확대하시며 만주와 국내 등 광활한 지역에서 인민대중을 혁명화하여 조선혁명을 튼튼한 대중적지반위에 올려세우시는 혁명의 영재로서의 혁명활동을 서사시적으로 그리고있다. 전자는 옥중투쟁을 벌리시면서 출옥후 조선혁명의 낡은 터전을 근본적으로 갈아엎고 주체의 위업의 새 터전을 튼튼히 마련하시며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밝히신 정치적수령으로서의 혁명활동, 해동이력사를 그려내고 있다면 후자는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 진두에 서시어 안주와 국내 등 광활한 지역을 무성하는 혁명의 푸른 대지로 전변시키시는 주체의 태양으로서의 혁명활동내용을 그리고있다.

《1932년》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남북 수천리에 걸치는 간고한 첫해 원정을 승리로 이끄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민족해방혁명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양양시키신 혁명활동을 그려보이고 있다면 《근거지의 봄》은 조선혁명의 책임자인 유격근거지를 내오고 인민혁명정부로선과 그의 제반민주개혁과 인민적시책을 실시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의 전인민적중심을 마련하시였으며 세계반제혁명의 진로와 본모기를 실천으로 과시하신 혁명활동을 그려보이고있다.

《백두산기슭》은 역사적인 남호두회의방침을 집행하는 진두에 몸소 서시어 십여명의 대원만 데리시고 새 사단을 편성하시며 거족적인 조국광복회를 결성하시어 조선혁명전반을 일대 고조으로 끌어올리신 혁명활동을 서사시적으로 담고있다면 《압록강》은 백두산근거지를 개척하시고 국내진공 작전을 벌리시어 보천보의 화불로 민족재생의 불길을 지피시였으며 누리에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위력을 과시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의 대전성기를 펼치신 혁명활동을 서사시적으로 재현하고있다.

《잊지 못할 겨울》은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의 발악과 좌경모험주의로선의 광풍이 물려와 조선혁

명이 준엄한 시련을 겪게 된 시기에 비범한 과학적 통찰력으로 우리 혁명의 주체관적조건을 분석하고 비상한 예지와 확고한 주견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조선혁명의 진로와 임무를 다시금 천명하시어 혁명전사들의 심장에 주체의 혁명적신념을 심어주심으로써 조선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주동적으로 헤쳐나가신 혁명활동을 서사시적화폭으로 재현하였다.

그런가 하면 《고난의 행군》은 조선혁명을 다시금 일대고조으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 일제의 발악적인 《토벌》공세와 그 총검의 숲을 뚫고 조국진군의 길을 열어나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유명한 《고난의 행군》을 력사적인 승리로 이끄신 혁명활동을 서사시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두만강지구》는 일제의 《철벽》의 국경경비를 헤치고 조국땅 무산지구일대에 진출하여 놈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가하시였으며 두만강일대에서의 군사정치활동을 한해 여름 맹렬하게 벌리심으로써 조선혁명의 전성기를 또다시 이룩하신 혁명활동을 폭넓고 깊이 그리고있다. 그런가 하면 《준엄한 전투》는 중일전쟁을 빨리 결속하고 새 세계대전을 도발하기 위하여 그 《암》으로 되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하는 《대토벌》작전에 거족적인 력량을 투입하여 가을부터 한겨울 내내 발악적인 공세를 감행하여나선 일제침략군을 평활한 대부대선회작전으로 물리치시고 조국광복을 위한 최후진공작전을 벌릴수 있게 조선인민혁명군을 튼튼히 보존하였을뿐아니라 강화발전시키신 혁명활동내용을 서사시적화폭속에 극적으로 부각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작품들은 력사적인 명월구회의 전후시기부터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까지와 북만원정시기와 조국을 해방한 최후작전시기를 반영한 작품들까지 출판되던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이 시기적으로 이어지고 전면적으로 체계성있게 그 발전단계와 계선이 그어지게 반영하게 된다. 말하자면 매 시기 매 단계에서의 정치로선을 밝히시는것을 비롯하여 다방면적인 혁명활동의 심오한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지고있다.

그리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총서작품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민족해방투쟁,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흐름과 그 본질을 다방면적으로 깊이 그려보이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그 첫단계의 혁명을 승리로 현명하게 령도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빛나게 부각하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활동은 체계성있게 전면적으로 담은 총서작품들의 성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의 빛나는 문화적재보로 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어떻게 처음으로 개척하시고 반제민

죽해방혁명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시었는가 하는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활동의 전반내용을 영원히 전하여야 할 숭고한 임무를 다할수 있게 폭 넓고 깊이 반영한 첫 문학작기념비로 되기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이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뿌리로서 주체위업, 독립, 자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전단계에서 확고히 옹호고수발전시켜야 할 당과 혁명의 무리임을 현실그대로의 산 모습으로 재현한 혁명전통교양, 혁명교양의 총서로 되고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총서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사를 대서사시적화폭속에 체계성있게 반영한 주체혁명의 백과전서적인 생활의 교과서로 자기의 역사문헌적인 재보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있다.

수령형상작품들이 과거에도 통일성이 없이 개별적인 하나의 문학형상으로 창작출판된 실례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를 체계성있게 전면적으로 반영한 혁명적대작들의 총서가 있어본적은 없었다.

이 획기적인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성있게 형상할것을 요구하는 시대와 인민, 혁명과 사회주의문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깊이 헤아리고 수령형상문학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의 위업으로 내세우고 수령의 혁명력사를 체계성있게 전면적으로 그리는것을 확고한 지도적원칙으로 정립하신 사상리론의 영재,

건설과 창조의 영재, 령도의 영재로서의 수령의 후계자의 지도가 없이는 생각할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형상문학예술을 건설하는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의 가장 중요한 위업으로 규정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전면적으로 체계화된 완벽한 사상리론을 내놓으시였다.

그 하나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성있게 형상할데 대한 리론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성있게 반영하는 방도로서 혁명력사를 시기별로 한고리씩 잘 형상할데 대하여서와 그 실현을 빛나게 보장할수 있는 새로운 문학적인형식으로 총서 《불멸의 력사》 형식을 밝혀주시였다.

실로 혁명문학총서형식, 혁명소설총서형식의 발전은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시기별로 나누어 한고리씩 체계적으로 담을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 위대한 발전이다.

혁명문학총서 혁명소설총서인 《불멸의 력사》가 종전의 인민문학총서와 본질적으로 다른것은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공산주의 운동의 본질을 밝히는 혁명적대작의 대규모적인 묶음을 형성한 총서이며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활동

력사를 전면적으로 체계성있게 담은 영웅서사시적인 장편소설들의 대규모적인 묶음으로 이루어진 혁명문학총서라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수령의 위대성을 철저히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인간학적으로 밝힘으로써 혁명발전에서의 수령의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에 대한 인식과 수령을 모시고 받드는 자세와 립장을 생활적으로 심장으로 터득하게 하는 력사적체험을 안겨주는 대서사시적화폭의 일대 화랑으로서의 특징을 가진 력사문헌적이며 인간학적인 대작들, 일관성과 상대적독자성을 겸비한 대작들의 커다란 묶음이라는데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가 이처럼 혁신적의의를 가진 문학작재보로 자기 위용을 떨칠수 있게 된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인 지침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으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가 수령형상에서 달성한 귀중한 문학작재보로 되는것은 둘째로 총서작품들이 수령형상작품의 풍격을 전면적으로 빛나게 갖춘 혁명적대작의 일대 화랑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기때문이다.

수령형상작품의 풍격은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빛나게 그려내야만 갖추어지게 된다.

수령의 위대성은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 혁명적 풍모와 덕성의 위대성, 업적의 위대성과 그 의의의 불멸성을 포괄하고있으며 혁명발전에서의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역할로 표현되고있다.

그러므로 수령형상작품으로서의 풍격을 전면적으로 갖추자면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풍모와 숭고한 덕성, 위대한 업적과 현대적의의의 불멸성을 사실그대로 깊이 빛나게 그려냄으로써 사람들에게 력사적 체험을 감동적으로 안겨주게 되어야 한다.

수령형상작품으로서의 풍격은 전면적으로 갖춘 혁명적대작은 사람들의 수령관 형성과 확립에서 비할바없이 큰 역할을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수령관은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대한 과학적인식과 력사적체험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수령형상대작이 사람들의 혁명적수령관 확립에서 더없이 중요한 견인력을 발휘하는것은 수령의 위대성, 혁명발전에서의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을 인식하고 체득하게 하는 력사적체험을 다면적으로 심오하게 안겨주는 작용을 하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한데서**



## 나오는 숭고한 사상감정입니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이 사람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혁명적 수령관으로 무장시키는 수령형상대작으로서의 풍격을 전면적으로 갖춘 문학적재보로 빛나는것은 수령님의 위대성을 다면적으로 깊이 그리고있기때문이다.

총서작품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빛나게 그린 성과는 우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그 구현을 위한 령도풍모와 불멸의 업적을 폭넓고 깊이 그린데 있다. 이것은 총서작품들이 수령형상대작으로서의 풍격을 갖추는데서 달성한 중요한 성과로 된다. 그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해나가신 령도풍모와 불멸의 업적을 생활적으로 그림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조선혁명의 력사적흐름과 그 본질을 깊이 그려낸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장편소설들인 《백두산기슭》이나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 《준엄한 전구》의 훌륭한 성과만 보아도 알수 있다.

이 작품들은 개별적인 장면이나 생활세부들에서만 아니라 구성조직자체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주체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몸소 진두에서 조직령도해나가심으로써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나가시는 사상의 영재, 령도의 영재로서의 면모를 사실주의적으로 감명깊게 확인하고있다.

《백두산기슭》에서 보는바와 같이 력사적인 남호두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제반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다시금 제시하신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그 실현을 위하여 미혼진을 거쳐 무송지구으로 진출하신다. 작품은 위대한 사상과 령도의 영재로서의 면모를 력사적사실에 의거하여 예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남하하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선을 기본선으로 설정하고 그에 리경준부부, 장기령, 한남실 등 《민생단》 혐의자들의 선과 유자녀들의 선들을 배합교차시키였으며 《대통령감》 선을 자선으로 주선에 배합일관시키고있다. 이렇게 되어 남호두를 나시여 미혼진에 이르는 행군길의 우등불가에서 유명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작성하시며 미혼진과 마안산, 무송 등지에서 남호두회의로선과 방침을 관철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사상가로서의 위대성과 령도의 영재로서의 풍모를 예술적으로 확인할수 있었다. 말하자면 주력을 북만지구에 떼두고 10여명대원만 거느리시고 무송지구에 진출하시여 단 두달어간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새사단을 편성하시고 거족적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

시며 무송현성전투를 승리로 이끄심으로써 백두산지구에 진출할수 있는 토대를 다 닦으시는 위대성이 어디에서 온것인가? 그 기적은 바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보고 대하는 주체사상, 인민을 중심에 놓고 혁명을 대하는 혁명사상에 대한 굳은 신념과 사람과의 사업만 잘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주체의 령도방법에 대한 신념을 실천적으로 구현해나가신 현명한 령도에 있다. 이것을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는것이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구성이며 미혼진, 마안산, 무송 등지의 장면들이며 《민생단》 보파리를 태우며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히시는 생활세부들이다.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남파자회의를 여시고 준엄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일제의 《대토벌》공세를 짓부시며 파괴된 조직을 복구하고 국내으로 진출할 목적밑에 북부국경지대로 진출할데 대한 주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시는 사상의 영재로서의 면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력사적사실 그대로 아군선과 적선을 일관하게 병행교차시키는 구서를 짜고 엮음새를 생활적으로 펼침으로써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위력한 요인으로 보는 주체사상의 창시자로서의 면모, 인민을 중심에 두고 혁명의 모든 문제를 보고 처리할데 대한 혁명사상을 주체의 령도방법으로 구현해나가시는 령도의 영재로서의 위대성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부각하고있다.

그리하여 관동군사령관 데라우찌를 비롯하여 《토벌》작전을 직접 지휘하고있는 하시모도소장, 모리중좌, 기꾸찌중대장과 그 사병 등의 형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적들은 30~40도를 오르내리는 류레없는 강추위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타격을 받고 붕괴되어가며 마지막에는 원전히 짐승으로 전락되어 저희들끼리 잡아먹는데까지 이른다. 그러나 아군은 대원들과 인민들을 믿으시고 생사교락을 같이 하시며 그들을 상상을 초월하는 불패의 힘의 체현자로 이끌어올리시는 위대한 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마침내 승리하고 조국의 대안인 구시산등판에 오른다.

패배의 책임을 지고 철직된 하시모도는 기꾸찌대장의 아들로서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던 기꾸찌중위놈의 백팔상자를 메고 처량한 몸으로 본국으로 불리워간다면 몸을 맞은 환희에 넘친 어린 대원 김재영은 잃었던 신발 한짝까지 찾아시고 구시산등판에서 처음으로 조국산천을 바라본다.

장편소설은 이처럼 사람이 바로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근본요인임을 발견하시고 사람, 인민대중을 조직하고 불러일으키심으로써 혁명의 그 어떤 난국도 뚫고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시는 사상의 영재, 령도의 영재,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경애하는 사



평판동지의 위대한 면모를 철학적으로 깊이 그리고 있다.

장편소설 《두만강지구》 역시 주체사상의 구현인 역사적인 북대정자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1939년 5월에 조국으로 진군하고 인민들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벌리며 군사활동을 안받침하심으로 써 조선혁명을 새로운 전성기로 이끌어올리시는 사상과 혁명의 영재로서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그리고 있다.

일제의 파썸적인 탄압과 유격대가 다 소멸되었다는 허위선전, 국제파시즘의 피비린내나는 광풍으로 검은 구름이 조국땅에 낮게 드리운 질식상태속에서 극도로 위축되고있는 인민들에게 뽀대고 설 힘을 주시기 위하여 그 어떤 고난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벌이며 무산지구전투를 벌리시고 한해 여름 두만강지구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맹렬하게 벌리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 그 숭고한 형상은 그이시야말로 인민을 위하여 시작한 혁명, 인민의 힘을 믿고 시작한 혁명은 오직 인민에게 혁명의 주인된 자각과 신심, 용기를 안겨주어야만 승리한다 는 혁명의 원리를 가장 헌신적으로, 투철하게 구현해나가는 혁명의 영재이시라는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인민을 위한것이 혁명이요 그 주인인 사람, 인민을 묶어세우는것이 혁명이라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과 그 거대한 생활력을 생활적으로 깊이 그리고 수령님의 령도력의 참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여기에 작품의 철학적깊이가 있다.

그리하여 장편소설 《두만강지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백두산동 북부일대에서의 군사정치활동이 조선혁명의 새로운 고조를 가져오고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 불멸의 기여를 한 요인이라는것을 철학적으로 깊이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극성이 넘치게 밝힌 혁명적대작으로 빛나고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인 전략전술적방침과 그 구현을 위한 수령의 령도가 있는한 조선인민혁명군은 그 어떤 준엄한 시련도 이겨내며 필승불패하다는것을 격동적으로 그려낸 혁명적대작이다.

일제는 거족적인 련합 《토벌》사령부를 내오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최종적인 결판을 내기 위한 《대토벌》공세를 감행하였다. 조선혁명의 앞길에는 또다시 일대 시련기가 닥쳐왔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이런 정세에 대처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1939년 10월 안도현 량강구에서 진행된 군정간부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대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가 예정된 비밀로정을 따라 대부대선회작전을 벌리어 적들의 공세를 물리치고 조선혁명을 구원하신 불멸의 위대성을 서

사시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작품은 력사에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선회작전의 빛나는 승리의 비결을 폭넓고 깊이 감동적으로 그려보이고있다.

돈화원정때의 강행군장면과 백석탄밀영학습장면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오직 대원들을 믿으시고 그들에게 혁명의 주인된 자주의식,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북돋아주는 정치사업을 하시며 그들을 무궁무진한 힘의 체현자로 높이 이끌어올리시는 령도력은 바로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다. 주체의 령도방법이 숭고한 인품과 고결한 덕성과 결합될 때 그 령도의 위대한 생활력은 무진장하다. 충신의 빛나는 전형인 오중훈의 형상과 갱생의 길을 걷고있는 리성림의 극적인 형상에서 그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확인할수 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이것을 확증하고있는 대작이다.

이밖에도 주체사상의 두가지 출발점을 력사적사실에 철저히 의거하여 예술적으로 확인하고있는 《혁명의 려명》을 비롯하여 《은하수》, 《대지는 푸르다》, 《1932년》, 《근거지의 봄》, 《압록강》, 《잊지 못할 겨울》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리론의 구현인 주체적인 정치로선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폭넓고 깊이 그려낸 성과는 총서작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되고있다.

총서작품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빛나게 그린 성과는 다음으로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공산주의적인간애와 혁명적동지애, 자애로운 덕성과 인간세계를 감동깊이 아로새긴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품과 사랑, 덕성을 인간학적으로 감동깊이 그리는것은 수령형상작품의 또하나의 중요한 풍격으로 된다. 왜냐하면 로동계급의 정치적수령은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며 특히 로동계급의 수령의 귀감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은 인민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성으로 혁명활동을 수놓아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시기때문이다. 이 숭고한 인품과 덕성이 깊이 밝혀져야 아버지수령님의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역할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밝힐수 있다.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공산주의적인간애와 혁명적동지애는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구현이며 그이의 한없이 높은 인품의 발현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사람중심의 주체사상,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혁명을 보고 대하는 혁명사상을 창시하신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비범한 통찰력과 비상한 사색력, 뛰어난 예지, 높고 풍부한 지성에 그 주되는 요인이 있을뿐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비길수 없는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 헌신적인 열정을

지는데 그 중요한 요인이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구현을 위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그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것은 사람, 인민, 조국, 혁명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과 헤아릴길이 없는 포용력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이시기때문이다.

바로 이것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그리고있는 찬연한 서사시적화폭들이 바로 총서작품들이다.

총서작품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인간세계와 덕성을 그리는데서 거둔 성과는 혁명적동지애의 최고구현자로서의 위대성을 사실 그대로 감동적으로 수놓은데 있다.

력사적으로 실제한 세사람의 억제할수 없는 심장의 고백을 그리고있는 작품의 실례만 보아도 그것을 알수 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 형상된 최인관의 심장의 고백은 혁명전사 오중훈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적동지애가 얼마나 뜨겁고 심원한것인가를 형상적으로 확인하고있다. 그리스도교신자였던 최인관이 항일투쟁때 나서겠다고

스스로 결의해나서는것은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고결한 인품에 완전히 매혹된데 있다. 집으로 떠나가는 최인관을 위해서 마련된 동석식사장면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오중훈이 마지막으로 남기고간 찬거리로 만든 음식이라는것을 아시고 최인관에게 가버린 오중훈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많이 들라고 하시며 《참 사람이란...》, 솟구치는 걱정을 조용히 혼자말씀처럼 토로하실 때 진정 최인관은 자기의 매물은 모든것과 결별할수 있는 매혹된 인간으로 량심의 절정으로 승화된다.

사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일제가 조선인민혁명군과의 마지막 결판을 내기 위하여 거대한 력량을 기울이면서까지 《대토벌》을 감행해나섰지만 종시 놈들이 참패를 당하고만 요인이 바로 전사들과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끝없는 사랑에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불패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는, 말하자면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적동지애와 덕성에 대한 극적인 서사시라고 말할수 있다.

오중훈의 절대성, 무조건성, 리성림의 불굴성도 그리고 최인관의 아름다운 인간적인 량심과 의리도 다 어버이수령님의 인간애의 최고표현인 혁명적동지애, 끝없이 고결한 인품, 위대한 포용력이 가져온 결실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인간애, 혁명적동지애, 매력적인 인품, 그 넓이를 알수 없는 포용력에 대한 끝없는 매혹은 사람들을 가장 높은 경지로 승화시키는 사상정신적량식이라는것을 보여주는 또 하

나의 형상이 바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대통령감》의 형상이다.

소설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혹된 녀, 매혹된 열정으로 끝없이 승화된 《대통령감》은 솟구치는 자기의 걱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그이께서 지니신 빛나는 예지, 그것은 곧 태양의 빛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뜨거운 사랑, 그것은 곧 태양의 별이다.

그 광휘로운 빛과 따사로운 별을 한몸에 지니신 그이는 인간세계의 찬란하고 위대한 태양이시다!》

이것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끝에 실망하고 은둔생활을 하고있던 오랜 지성인인 《대통령감》의 심장의 고백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권혁석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처음 대하고 끝없이 소탈, 겸허하시고 너무나도 소박하신 인품에 이끌려 철저한 평범성이야말로 그 어떤 영웅호걸이나 위인도 가질수 없었던 비범성으로 된다고 절감한 그때로부터 걸음걸음 그 거룩한 인품, 위대한 인간애,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에 완전히 매혹되어 쏟아놓은 심장의 토로이다.

여기에 또하나의 매혹된 녀, 매혹된 열정이 쏟아놓은 심장의 토로가 있다.

《나는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담화하는 과정에 그들중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의 사상을 파악하고 그에 공명하기에 앞서 그의 인격에 먼저 감동되어 다시말하면 그가 베푸는 사랑에 감동되어 그를 따르게 되었으며 그다음에 그의 사상으로 점차 무장되면서 혁명가로 자라났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여 근로민중의 아픔과 괴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의 심혼에서 우러나는 이 심오한 사랑은 그 깊이나 크기에서 어느 누구도 모방하거나 가식으로나마 흉내낼수조차 없는것이다. 그의 초인간적인 정력적활동의 원동력은 바로 무산민중에 대한 이 위대한 사랑이다!》

《그는 탁월한 혁명가, 정치가, 군사가이며 천재적인 예술가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대중에 대한 현실적복무정신을 증추로 하여 탁월한 리성과 다감한 감성, 철저한 원칙성과 적에 대한 비타협성, 대해같은 포용력, 강철의 의지와 비범한 예지... 이 모든 훌륭한 자질들이 결합되어 령도자로서의 그의 인격의 총체를 이루고있다.

그는 조선의 피어린 력사와 인민대중이 낸 유일무이한 걸출한 령도자이다.

동지들, 놀라지 말라!

만민이 흠모하며 따르는 **김일성**동지는 올해 22세의 청년장군이다.》

이것은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에 형상된 국제당파견원 류현민이 국제당의 원동국에 보내는 보고서에 쓴 그의 심장의 토로이다.

국제당파견원은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이른바 《신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거지에 찾아왔던 것이다. 경애하는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를 기꺼이 맞아들이고 근거지의 실정을 마음대로 료해할 조건도 보장해주시였으며 그의 요구에 의하여 《신소》문제와는 관계없이 장시간 담화도 하시였다. 그의 신변을 위하여 호위성원까지 붙여주시였다. 류현민은 《신소》가 날조된 음모라는것을 스스로 확인하였을뿐아니라 일제 《토벌》공세속에서도 근거지가 끄떡없이 혁명의 보루로 자기 사명을 다하고있는것이 바로 **김일성**장군님의 주체사상, 그 구현인 인민혁명정부로선과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민주개혁과 인민적인 시책, 특히 **김일성**장군님의 고결한 인품, 숭고한 인간애, 혁명적동지애, 대해같은 포용력으로 하여 이루어진 전인민적중심에 의하여 밀받쳐있기때문이라는것을 생활을 통하여 심장으로 확인하였다.

국제당파견원 류현민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느덧 **김일성**장군님의 사상과 방침에서 세계반제혁명의 새 진로와 본보기를 발견하며 **김일성**장군님의 숭고한 인품과 혁명적동지애에 완전히 매혹된다. 이것으로 하여 그는 위대한 수령을 찾은 더없는 행복감과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기까지 한다.

이처럼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인간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주체의 인간애를 구현한 공산주의적인간관계가 이루어졌으며 그 인간관계의 원동력이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위대한 인품이며 그로 하여 하나로 뭉친 힘이 바로 주체위업의 불패성의 원천이라는것을 서사시적으로 확인한 대작이다.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 《압록강》 역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인간애, 혁명적동지애와 덕성에 의하여 조선혁명이 만년을 헤치고 승승장구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는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로 빛난다.

총서작품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그리는데서 거둔 성과는 또한 아버지수령님께서 겪으신 시련의 과정들을 생활적으로 आरो새긴 대작이라는데 있다.

참으로 류레없이 간고하였던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끌어나가신 아버지수령님께서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게 기울이신 어버이사랑의 밑에 깔려있는 한없는 심혈과 아프심, 고생을 형상적으로 깊이 그려내는것은 수령형상작품

으로서의 풍격을 담보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 어떤 력사책으로써도 그것을 감명깊게 담을수도, 전할수도 없다. 그것은 오직 인간학으로서의 문학과 예술만이 생활적으로 담을수 있고 감동적인 화폭으로 길이길이 전할수 있다. 이것은 수령형상작품만이 가지는 특전이며 수령형상작품만이 가지는 풍격의 고유한 특징이기도 하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수령에 대한 력사적체험을 안겨주며 수령관을 세우게 하는데서 더없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리해하기 결코 어렵지 않다.

인간, 근로인민과 혁명, 조국과 겨레, 전사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끝없는 믿음과 사랑과 보살피심은 진정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기울이시는 수령님의 다함없는 헌신성이며 심혈이며 다 헤아릴수 없는 아프심과 고뇌로 이루어진 총체이다.

장편소설 《1932년》에 그려진 소사화집장면과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 그려진 《민생단》 혐의자들과 마안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장면들만 상기하여도 이것을 뜻깊게 확인할수 있다.

위대한 강반석어머님과 리별, 어머님의 서거, 동생들과의 리별은 사람으로서는 넘기 어려운 아프심의 절정이였다. 그 아프심을 혁명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이겨내시고, 남북수천리에 걸친 조선인민혁명군의 원정을 승리로 이끄신 경애하는 사령관동지! 진정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와 위대한 어머님의 사랑, 고귀한 헌신성이 있었기때문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첫 원정이 승리할수 있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양양한 앞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빛나게 확인한 장편소설이 《1932년》이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 《민생단》혐의자들의 이른바 《문서보따리》를 풀어헤치고 그 《문서》를 하나하나 번지시며 무거운 고뇌에 잠기신 경애하는 사령관동지, 그이의 영상이 난로불빛에 반사되어 성에 불린 한밤의 귀틀집벽에 비칠 때 그 이름할수 없는 아프심을 느끼게 하는 묘사, 한줄로 늘어선 《민생단》혐의자들을 한없이 측은한 시선으로 한사람, 한사람 그 신상을 더듬으시며 자애의 눈길로 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아프심과 분노에 대한 묘사, 그것은 위대한 인간이신 우리의 아버지수령님께서만이 겪으신 가슴아픈 눈물의 세계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확인으로 빛난다.

《준엄한 전구》에서의 오중훈의 희생, 《고난의 행군》에서의 한태혁의 희생, 《두만강지구》에서 한태혁의 누이동생과의 상봉을 두고 겪으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심장의 아프심과 마음속의 눈물에 대한 묘사 역시 인간학에서만 담아 길이 전할수 있는 위대한 인간세계의 일단을 보여준 빛나는 성과로 된다.

《혁명의 려명》, 《낮은 울랐다》, 《압록강》,

《잊지 못할 겨울》과 같은 총서작품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체험하실수 있는 그 높은 세계를 인상깊게 전하고있는 대작들이다.

이처럼 총서작품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겪으신 위대한 인간세계를 당대현실 그대로 아로새긴 서사시적화폭들로 빛나고있다.

총서작품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빛나게 그린 성과는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품모와 영광찬란한 업적을 력사적사실그대로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린 서사시적화폭으로 된데 있다.

총서작품들의 진실성은 우에서 이미 본바와 같이 모두가 다 력사적사실을 그대로 그리고있는데 있으며 그 사실을 력사적인 사건과 실재한 인간들과 그 인간관계에 엄격히 기초하여 현실그대로 그린 실재성과 사실성의 표현이다. 물론 작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 인품과 덕성, 불멸의 사적과 업적에 감동되고 매혹된 작가의 흥분과 열정, 불타는 사색과 환상이 노는 역할이 크다. 그러나 작가는 어디까지나 그 매혹된 사색과 열정, 환상으로 력사적사적에서 종자를 발견하여야 하며 발견된 종자를 꽃피울수 있도록 력사적사건과 사실, 현실그대로의 생활을 재현하며 사실자체의 밑에 깔려있는 심원한 인간세계를 탐구하며 력사적사적의 뜻과 의의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생활적으로 세부화하여야 한다.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철두철미 의거한 진실성, 이것은 수령형상작품의 풍격을 규정하는 또하나의 요인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력사가 그이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위대한 품모의 구현의 력사로서 그 어느 사적을 막론하고 사소한 세부적인것까지도 귀중한 재보로 되며 현대적의의를 가지기때문이다, 그것을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력사적사적에 철저히 의거하면 할수록 그밑에 아로새겨져있는 위대한 인간세계를 발견할수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적에 깃들어있는 력사발전의 본질, 합법칙성, 사적에 담겨져있는 위대한 인간세계, 력사적사적이 간직하고있는 불멸할 현대적의의로 하여 실재한 력사적사적에 철저히 기초하여 종자를 발견하고 종자를 실현할수 있도록 사적과 실생활을 재구성하고 세부화하기만한다면 만인을 흥분시키는 진리와 진실이 더없는 감명과 흥미, 여운을 가진 형상으로 구현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심원한 사상적메아리를 불러일으키면서 력사적체험을 안겨준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대한 력사적 체험을 폭넓고 깊이 안겨주는 총서작품들의 비상한 예술적감명과 흥미는 실재한 력사적사실그대로의 생활적인 화폭에서 오는 투철한 진실성의 비상한 설득력이며 견인력이다.

총서작품들이 사람들의 수령관형성과 확립에서 것처럼 커다란 견인력을 발휘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실재한 력사적사적에 철두철미 의거한 뜻깊고 다방면적인 생활화폭인것으로 하여 심원한 력사적체험을 사람들에게 안겨주기때문이다. 말하자면 그 력사적체험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발전과 혁명발전에서 차지한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과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심장으로 터득하게 하고 따라배우게 하기때문이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 《준엄한 전구》, 《1932년》, 《근거지의 봄》,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를 비롯한 총서작품들이 사람들에게 력사적체험을 안겨주는 진실한 공산주의인간학의 정화로 빛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와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를 사실그대로의 생활로 인간학적으로 재현한 진실성에 그 요인이 있다.

《대통령감》에 대한 이야기, 《민생단보따리》를 불태우신 이야기, 마안산의 혈벗은 아이들에게 사연깊은 돈 20원을 내놓으시여 옷을 해입히시던 이야기, 최의원에 대한 이야기, 소사하집에서 어머님과 리별하시던 이야기, 토끼다리를 구우시던 이야기, 국제당파전원에 대한 이야기를 재현한 사실그대로의 생활적인 형상만 상기하여도 그 일단을 알수 있다.

이밖에도 《맞은 올랐다》에서의 장례식이야기, 《혁명의 려명》에서의 인력거군에 대한 이야기, 《상해림시정부》 재정부장에 대한 이야기, 《대지는 푸르다》에서의 오가자의 변태리명감에 대한 이야기, 《압록강》에서의 천도교도정에 대한 이야기,

《잊지 못할 겨울》에서의 김주현에 대한 이야기 등 총서작품들에 그려진 모든 사건들과 사실들, 인물들과 생활상황들에 대한 형상은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엄격히 기초한 형상들로서 하나같이 력사적 체험을 불러일으키는 진실한 형상들로 빛나는 예술적재보들이다.

이처럼 총서작품들이 수령형상에서 이룩한 빛나는 문학적재보로 되는것은 그것이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철저히 기초하여 창조된 아주 진실한 예술적형상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력사적체험을 안겨주는 서사시적화폭들의 일대화랑이라는데 있다.

이처럼 총서작품들이 수령형상작품의 풍격을 전면적으로 꽃피운 빛나는 대작으로 된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품모와 혁명력사를 정중하게 최상의 높이에서 감동적으로 형상할데 대한 지도적지침,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깊이 있고 격조높게 그리며 여기에서 인민들속에 계시는 수령님을 잘 형상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을데 대한 지도적지침을 빛나게 구현하였기때문이다. 그 성과는 또한 인간관계를 격식화하지 말고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깊이 그릴데 대한 지도적지침과 실재한 역사적사실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실 그대로의 진실성을 보장할데 대한 지도적지침, 년대기식으로 쓰지 말고 종자를 생활적으로 꽃피우는 인간학으로 되게 할데 대한 지도적지침, 대작에 관한 지도적지침 등 제반원칙적요구와 방도들을 실천적으로 빛나게 구현하였기때문에 얻어진 결실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가 수령형상에서 달성한 귀중한 문학적재보로 되는것은 셋째로 총서작품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목숨으로 옹호보위한 불굴의 혁명투사들의 충성의 력사를 펼쳐보인 서사시적화폭으로 빛나고있기때문이다.

혁명적수령관이 튼튼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자, 항일혁명선렬들을 빛나게 형상하는것은 수령형상작품의 또하나의 풍격으로 된다.

왜냐 하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의 혁명적수령관을 심오하게 그리는것이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력사적흐름의 본질, 합법직성을 뚜렷이 부각하는 작용을 하기때문이다. 말하자면 그것이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력사적체험을 안겨줄뿐 아니라 사람들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본보기로 교양하여야 할 수령형상작품의 임무로부터 흘러나오는 본질적요구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다.

총서작품들이 항일혁명투사들의 본보기를 그리는데서 거둔 성과는 우리 나라에서 수령관의 력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면면히 이어져 줄기찬 흐름으로 도도히 굽이쳤는가를 서사시적으로 밝혀낸데서 찾아볼수 있다.

《고난의 행군》과 《준엄한 전구》에 모셔진 김정숙동지의 형상과 오중흠을 원형으로 한 오중훈의 형상, 《대지는 푸르다》에서 김혁을 원형으로 한 현옥의 형상, 차광수의 형상만 상기하여도 그것을 확인할수 있다. 그리고 《압록강》에서의 권영벽, 최현 등의 형상도 그것을 말하고있다.

총서작품들에 일관성있게 그려진 불굴의 항일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형상, 그리고 김혁, 차광수, 오중흠의 형상은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해빛으로 솟아오른 이름높은 주체형의 혁명가로 형상화되었을뿐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사람들과 인민들이 받아안을수 있게 한 해발로, 핵심적인 골간으로 찬연하게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그 빛나는 형상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루어진 혁명적수령관의 전통을 이어받게 하는 본보기작용을 하는 문학적재보로 되고있다.

충성의 귀감을 그리는데서 거둔 성과는 또한 항일투사들과 각계각층 사람들의 형상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생활적으로 확인하고 부각하는 작용을 하도록 진실하고 깊이 그린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된바 있는 《백두산기슭》의 《대통령감》의 형상, 《준엄한 전구》의 최인관의 형상, 그리고 《압록강》의 박인진의 형상, 《대지는 푸르다》의 변태익의 형상, 《혁명의 려명》의 리갑무로인의 형상 등만 상기하여도 뚜렷이 확인할수 있다. 이들의 형상은 력사적으로 실재한 인물에 기초하여 창조된 형상으로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 즉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 숭고한 인품과 덕성의 위대한 견인력, 불멸의 업적의 위대성을 구체적인 인간관계와 생활을 통하여 심장으로부터득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은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민족의 태양으로, 세계혁명의 영재로 우러러 열렬히 흠모하며 자기운명을 의탁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진실하고 생동하게 감명깊이 보여주고있다.

여기에 한 로인의 민족적궁지에 넘쳐 심금으로부터 토설하는 말이 있다.

《이 세상에 한 나라 한 민족을 거느리는 인물은 하나밖에 없으며 그런 인물이 없을 때 나라도 백성도 만물이 해를 잃고 쪼뼛이가 어미를 잃은것이나 다름없이 된다는것을 모른다말일세. 이것을 아는데는 학교문을 많이 드나들고 책장을 많이 번져서가 아니라 땅국노의 설음을 시궁창에 코를 들이박고 그 썩은 물을 들이키듯이 몇십년을 돌이켜보아 눈을 뜨게 되는걸세.》

이것은 독립운동도, 초기 공산주의운동도 관계하여보고 세계로동운동사도 섭렵해보았으며 체노라고 하는 《영웅호걸》들도 만나보고는 탐탁한 길과 광명한 앞날을 내다볼수 없이 모든것에 실망하고 작은 오가자마을에서나마 《리상촌》을 건설해보리라는 마지막 지향으로 조종하나 뜻있게 살아가던 변태익로인이 경애하는 수령님께 매혹되어 자기 격난과 인생의 총결산으로 토로한 심장의 목소리이다. 엄혹한 현실과 고금동서에 대한 식견과 충격적인 생활체험으로 하여 수령에 대한 생활철학을 터득하게 된 변태익로인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날일자와 이룰성자로 모시여 부를것을, 말하자면 그이를 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수령으로 받들어나갈것을 피뻐한것이다.

이처럼 이들의 형상이 진실하고 의의깊을뿐만 아니라 작품전반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깊이를 확고히 보장한 하나의 힘있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총서작품들이 거둔 이와 같은 성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수령형상작품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 투사들의 수령관을 깊이 파고들며 혁명적수령관에 대한 문제를 잘 그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수령형상작품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실천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얻어진 문학적재보이다.

우리의 문학은 우에서 본바와 같이 자기 보물고

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품모와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체제성있게 담은 빛나는 첫 문학적재보로 되는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에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며 수령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공산주의문학의 중추가 튼튼히 이루어지고 첫 본보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우리 문학은 세계 혁명문학의 전위적인 기치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되었다.

우리 주체문학이 더없이 높은 영예를 떨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인류가 낳은 주체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였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로 모시고있기 때문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사상리론을 창시하고 그 구현을 하나하나 손잡아 이끌어주셨기 때문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들이 거둔 자랑스런 성과와 의의는 비할바 없이 크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시기 숭고한 품모와 혁명활동의 위대성을 사람들의 심장에 새기게 하는 큰 생활의 교과서를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앞에 내놓은데 있으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진리성, 거대한 생활력을 내외에 과시한 첫 문학적성가로 된다는데 있다.

그것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창조에서 견지해야 할 제반 원칙적 요구와 방도들을 실천적으로 구현한 첫 성과와 본보기가 마련된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수령형상문학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단계가 본격적으로 열리였으며 그 발전을 위한 확고한 실천적경험이 이룩되었다는데 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의 혁명적풍격이 더욱 높아지고 세계 혁명적문학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데 있다.

그것은 또한 로동계급의 수령형상문학예술건설을 갖은 방법으로 저애하는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에 치명적인 철추를 내리고 로동계급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의 당성의 기치를 확고히 고수하고 빛내일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다.

우리는 첫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가르치심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그이의 령도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 숫눈길에 남긴 자옥

차영도

깨끗한 흰눈우에  
처녀들의 발자욱  
파원에 처녀들이 달려온 날은  
흰눈이 내리던 그날이었네

돌격대기발은  
흰눈우에 더욱 붉고  
시절 좋은 가슴에 뛰는 심장은  
노래노래 부르며 높이 뛰었네

가없는 백리파원  
넓기도 했지만  
대렬 지어 척척 남긴 자옥은  
숫눈우에 발자욱 오직 한줄기

그 자옥 열도 아니  
수백도 아니  
수천의 딸들이 걸어온 그 길엔  
언젠가 수령님 남기신 자옥-

아, 못잊어  
그 자옥 못잊어  
꽃같은 처녀들이 찾아온 길은  
깨끗한 흰눈우에 오직 한줄기

녹지 않으리  
겨울가고 봄가고 세월이 가도  
처녀들의 그 자옥  
백리파원 흰눈우에 녹지 않으리

(과일군에서)

## 위대한 추억

허수산

설레던 물결도 숨죽이고  
개통의 순간을 기다리고  
기슭의 진달래도 활짝피어  
한껏 향기를 뿜어올리는 아침

봄날같이 환한 미소 띄우시고  
봉화갑문 개통식에 나오신 수령님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진 호수  
개통의 꽃보라인듯 물새들 날아오르는  
거창한 갑문언제우로 거닐고거니하시여라

이제는 대동강이 펴 아름다와졌다고  
전쟁의 날 학자들을 불러  
동서해를 잇는 운하를 건설하자던  
그날도 새롭게 안겨온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던 수령님

이윽고 멀리 봄물 오르는  
봉화산쪽 바라보시더니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여라  
-여기는 내가 여섯살때에  
아버지따라 뚝배 타고 온곳이요

아 순간  
갑실을 뛰어내리던 천만물결도  
숨죽여 조용히 흐르는듯  
일군들의 가슴속에선  
한없이 뜨거운것 폭포치고

이런시절  
강변의 이영작은 초가집

우리 인민의 수난에 찬 모습 보시며  
기어이 이 땅에 락원을 안아오리라  
굳은 마음 다지고다지시던 수령님

아 우리 어찌 다 알았으랴  
장장 수만리 가치덤불 헤치시는  
수령님의 혁명의 길이  
어린시절의 추억을  
인민의 기쁨으로 바꾸어오시는 길임을

이제는 가시는곳마다  
이 평의 거창한 전변을 보실 때마다  
자꾸 지난날을 추억하시는  
아버이수령님의 깊은 심중

우리 인민 세월을 재촉하며  
수령님께 기쁨을 드려야 하리  
지난 세월의 잊지 못하실 일들을  
아름다운 추억의 노래로 간직하시도록

아직도 사연 깊은 이 나루가기슭에  
못다 주신것 있으신듯  
못가에 해밝은 휴양각도 세우고  
언덕엔 과일나무도 심자시며  
또하나의 락원을 펼치시는 수령님

아 이 땅에 인민의 행복 안아오는  
아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추억이여  
그 감회깊은 추억의 나래아래  
인민의 기쁨 샘처럼 솟아나고  
강산은 금수강산으로 빛나라

## 줄기 뻗은 그늘을 내 몰라라 외 2 편

동기춘

낮이면 산악에 해가 낮추 떠가고  
밤이면 룡선에 별이 미끄러지는  
흰눈의 메부리  
하늘뫼를 머리에 띄이고  
동서에 장강의 폭포를 내려쫓는  
아, 백두산

구름발을 어깨에 휘감고  
도도히 굽이쳐내린 산줄기  
장엄하여라 줄기찬 그 기상  
내달아 펼쳐지며 강토3천리인가  
다시금 바다우에 솟구쳐 제주도인가

광복의 횡불에 물기어린 절벽을 번쩍이며

김일성장군님을 맞이한 그 영광에  
오늘도 환희로이 물결 설레는 천지  
그이께서 새기신 거룩한 그 자욱  
바위바위 이끼속에 승엄한 백두

붉은 기폭이 휘날려 스쳐간  
저 울창한 숲의 바다 하늘끝엔  
그날에 빗발친 진리를 새겨안고  
밀림은 글밭인양 력사의 언덕에 줄줄이 푸르다

불멸의 송가를 자랑높이 싣고  
천지에서 쏟아지는 폭포의 장엄한 음향  
흘러가는 백두의 물결소리를 내 듣노라  
성스런 밀림의 검푸른 날개를 펴고

뻗은 산발은 하늘끝 어디인가

티끌같은 존재도  
우러르면 그 가슴속에  
우주같이 들어앉은 백두산아  
달려오는 마음들을 품으며  
창창 뻗어간 그끝은 또 어디

주체의 붉은 노을이  
불길같이 번져가는 여기에  
자랑스리운 마음으로 궁지 높이 올라  
설레며 일어서는 자주의 누리를 보나니  
너의 땅줄기 뻗은 끝을 내 물라라

## 뜨거운 눈

오뉴월의 백두산에 오르니  
눈이 허영구나  
밋밋한 룡선의 어깨에  
녹을줄 모르는 흰눈이

푸릿한 연무의 아득한 저아래는  
휘늘어진 봄 꽃의 계절  
저 봄을 지키려 이 백두산  
하늘가에 솟아내리는 눈을 한몸으로 막아서  
오뉴월에도 여기엔 깊은 눈이 발목을 치는가

백두산아 어찌면 그대 모습이  
한평생 눈서리를 어깨로 막으시며  
우리에게 봄만을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  
그 모습 불현듯 생각나게 해서

아 내 손으로 그 눈 한줌이라도 덜고싶어  
저도 모르게 눈을 움키니  
내 손엔 이 눈이  
이 찬눈이 오히려 뜨거워

## 백두산우에 눈보라 칠 때

눈보라...  
해는 저만치 하얗다  
해는 저만치 뿌연 동그리미  
해는 저만치 있었던가  
금시 머리우엔 시꺼먼 우주뿐  
사방 얼음조각들의 아우성소리  
귀뿌리를 스치며 흘날리는 조약돌

광막한 공간에  
한몸 모래알처럼 뿌려질듯-  
쓰러지는 순간에 바위를 끌어안았다  
그러자 든든해졌다 몸도 마음도  
사라지리라 지독한 광란이여

너는 하루살이 떼구름같은것

눈보라...  
해는 저만치 뿌연 동그라미  
해는 저만치 하얗다  
꿈결인양 씻은듯 파란 하늘  
견뎠구나 기쁨에 넘쳐 돌아보니  
백두산이 나를 안고있었더라

오 그 순간에 심장을 치는 생각  
이렇듯 백두의 품이  
그 언제나  
우리 운명을 안고 오지 않았던가



## 사람들이여 무심히 보지 마시라!

홍현양

집은 생의 보금자리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아울러 해빛이 흘러드는 창문을 통해 사람들은 인생의 첫 세계를 한조각 푸른 하늘처럼 비쳐보게 되는것이 아닌가!

해빛과 수억만의 창문들, 이것은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것이며 또 평범하게 스쳐지날수 있는 ऐसा로운것이다.

그러나 시인 김시권에게 있어선 그것이 조국의 모습을 비쳐보는 생의 거울과도 같은것이였다.

### 창을 열어다오

대동강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결에 봄향기가 실려오고있었다.

우수경칩을 맞은 계절은 어김없이 대동강의 얼음장들을 말끔히 녹여버렸다. 푸른 물이 오르는 강가의 버들가지에 까치들이 앉아 즐겁게 울어대는가 하면 물오리떼들이 어디선가 한무리 내려와 앉았다.

이런 때면 사람들의 생각도 깊어지는게 아닌가!

우리들은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며 무지개처럼 대동강물결위에 비껴있는 육류교우에 들어였다.

상쾌한 기분, 한껏으로 모여들고있는 우리들의 눈길은 해빛에 번쩍이는 수백수천개의 창문들가운데서 단 하나의 창문을 찾고있었다.

《저기 육류양복점이 있는 다충주택 2층 끝의 창문이 바로 시인 김시권동무가 있는 집입니다.》

그 누군가가 자기만이 알고있는것처럼 이렇게 말을 떼는것이였다.

이미 친숙해질대로 친숙해지고 한두번만 와본것이 아니지만 어찌하여 우리의 눈길은 금시 처음보는것처럼 그 창문을 깊은 생각속에 바라보게 되는지 알수 없다.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평양의 어느 거리 어느 골목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다충주택의 창문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수수한 문이다.

그러나 그결에는 시인 김시권이 수십년 세월 누워있다. 피흘려 지킨 사랑하는 조국땅을 단 한걸음도 밟지 못하는 어제날의 병사, 오늘의 시인이 전진하는 대오속에 서있는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그 창문만은 우리의 눈길에서 벗어날수 없었던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가 집에 들어서니 시인 김시권은 상반신을 일으키며 반가이 맞아주었다.

《아, 어서 들어오시오, 어서.》

오랜 세월 헤어졌다 만나는 친형제처럼 기쁨에 넘쳐 웃고있는 시인의 얼굴... 방금전에 우리가 올려다보던 그 창문으로 비껴드는 조국의 푸른 하늘처럼 그의 얼굴에는 그늘한점 어려있지 않다.

《요새 어떤 글들을 새롭게 쓰고있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배려로 우산장창작실 작가료양소에 가서 치료받은 기간에 당의 은덕에 대해서 쓴 시초를 추고하는중입니다.》

《어디 좀 봅시다!》

우리는 시인이 넘겨주는 원고들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였다.

《우산장에서 내 첫뼉을 쥐며》, 《풍월루》, 《련못가에서》, 《무지개다리》 등 여러편의 다양한 서정시들로 묶여진 시초는 다정다감한 시인의 심장을 그대로 담고있었다.

당에서는 병상에 누워서도 창작의 붓을 달리고 있는 시인의 건강이 넘쳐되어 경치 좋고 공기 맑은 우산장에 그를 보내어 료양을 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의 자취가 어려워있는 우산장을 찾은 시인의 심정은 말그대로 분출하는 화산의 용암마냥 불덩어리로 가득차올랐다.

새소리, 바람소리, 한줄기 시내물의 속살거림도 그에게는 시상을 불러주는 노래로, 한시바삐 보지 않고는 못견딜 어머니의 얼굴처럼 그리웠다.

《동무들, 창을 좀 열어주오! 친애하는 그이의 자취가 어려워있는 우산장을 어서 보고싶소!》

우산장에 닿지마자 다시 침대우에 누워야만 하는 자신이 몹시도 한스러웠던 시인은 이렇게 절절하게 웨쳤던것이다. 창을 열어다오- 이것은 시인 김시권이 피이린 격전장에서 부상당한 몸으로 돌아와 영예전상자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붓을 쥐고 고심어린 나날을 보내던 끝에 세상에 발표한 첫 서정시의 제목이였다.

이미 오늘에 와서는 세상이 다 알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은 서정시이지만 그때에는 사랑하는 조국에 보내는 첫 속삭임과도 같은것이였다.

누구나 마음대로 여닫을수 있는 창문이였지만 땅을 딛고 일어설수 없는 시인은 이렇게 피끓는 념원을 담아 간절히 부탁할수밖에 없었다.

밟고싶은 땅, 구수한 흙냄새가 풍기는 들, 폐허를 헤치고 일어서는 거리들과 학창시절의 정다운 벗

들이 땀흘리고있을 발머리에 함께 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처음에는 속삭이므로 나중에는 노래로 터져나왔다.

창을 열어다오  
오랜 날을 병상에 누운 나에게  
친우들!  
나는 풍요한 대지가 보고싶노라

벼이삭이 춤을 추는 누런 벌이며  
멀리 단풍우거진 야산풍경이  
그리고 내 어린시절 물장구치며 뛰어놀던  
저 은빛 물의 흐름을 보고싶노라  
...

그저 보고싶은 산천과 벼들이 아니었다. 희망도 청춘도 조국에 바친 병사에게 있어서 격전장에서 받은 상처는 너무나 컸었다. 한치의 조국땅을 위해 중기의 압철을 누르며 미제원수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던 그가 흉탄에 맞아 그만 반신불수의 몸이 되어 이제는 몇발자국앞에 있는 창문도 열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보고싶은 산천도 어딘가 자기의 붉은 피가 스며있는 그 부드러운 흙 한줌도 쓰다듬어볼수 없게 되지 않았는가.

파연 그 창문은 어떻게 열리어졌는가!

## 붓을 들고 또다시 대오에

그는 어제날의 병사였다. 그러나 그는 혁명의 필봉을 틀어쥐고 또다시 대오에 들어선 당의 시인이자.

그가 시인으로 자라온 과정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으며 또 그 어느 사회에서나 이루어질수 있는 꿈이 아니었다.

전쟁전 해주교원대학 생물화학부에서 공부하던 그가 시인으로 된다는것은 꿈에도 생각해보본적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조국을 지켜싸운 병사의 량심은 또다시 전투대오에 들어설것을 요구하고있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해 남은 마지막 피향방울까지 다 바쳐 꽃을 계속 피울것을 바라고있었다.

생물화학을 전공한 그도 잘 알고있는 사실이지만 한번 이 땅에 피어났던 꽃은 다시 망울을 터칠수 없는것이 어길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명도 그러한 자연의 법칙에 순종해야만 한단말인가!

그의 병력서에 쓰여져있는 《로동능력완전상실》, 《일생 타인의 방조요함》이라는 의학계의 처방대로만 산다면 그것이 무슨 삶이며 청춘이라고 말하랴!

병사의 삶엔오직 전진이 있을뿐이며 후퇴와 담보를 모르는 자육자육이 그대로 당을 위해 피우는 충성의 꽃으로 수놓아져야 하는것이다.

여기에 육체는 비록 불구로 되었지만 삶은 죽지 않은 웃음을 안고 망울을 터치는 비결이 있으며 진리가 있는것이다.

이렇게 평범한 병사였던 김시권은 마지막 중기의 압철을 누르던 두손에 붓을 들고 영원히 제대를 모르는 전투대오에 들어서게 되었다.

의사들은 그에게 안정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일체 다른 일을 하는것을 엄금하였다. 마지막에는 읽던 책마저 다 걷어가지고 갔다.

이런 조건에서 빈손으로 누워있어야만 한단말인가? 명령받은 병사가 어떻게 대오에 가만히 그쳐서 있을수만 있단말인가?

그의 곁에는 약봉지들이 무득히 쌓여있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글을 쓸 종이란 그것밖에 없었다.

(여기에라도 쓰자! 심장의 뱀침을 여기에 적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다듬은 김시권은 손바닥만한 약봉지우에다 한자두자 자기의 노래를 적어나갔다.

전등불 낮추 드러놓고  
내 글을 쓰노라  
입술이 타도록 담배를 피워물며  
내 생각에 잠기도라

몇밤이 지났는가?  
내 이처럼 잠못 이룩은  
담배연기는 천정에 감돌고  
새벽닭 울음소리 벌써 들려오는데-

아, 괴롭구나, 글귀를 찾아내기란,  
허나 삶을 틀어잡은곳에  
어찌 고심이 없으랴  
더우기 한일없는 나에게  
할일 많은 나에게

성공도 실패도 문제가 아니여라  
내 만약 이 붓을 놓는다면  
내 만약 이 불을 끄고 잠든다면  
얼마나 무서운 끝장이 나에게 닥쳐올것인가?  
...

다만 운명의 끝장이 아닌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심에 마지막이 없기를 애타게 바라는 이 절절한 호소가 티끌만한 가식도 없이 약봉지우에 쓰여졌다. 약은 병을 고친다고 했지만 굴할줄 모르는 이 병사에게는 노래를 가져다주었다.

그는 결코 잠들수 없었다. 시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것이 곧 병사로서 전투서열에 한치의 드림도

없이 서있는것 이기때문이었다.

이렇게 고심어린 탐구속에 모태기던 어느날 새벽 그는 아침보도를 듣다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먼 창성에서 열린 지방당 및 경제일군련석회의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홍분과 감격을 안고 창성련석회의에 관한 소식을 새겨듣는 그이 가슴은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에 남들처럼 같이 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또다시 모지름속에 머리들고 일어났다.

《어머니 ! 어머니 !》

때아닌 이른새벽에 아들이 찾는 소리에 달려온 어머니는 어디 또 병이 더 악화되어 그러는가고 물었다.

《아니예요, 어머니, 저는 오늘 아침부터 출근을 해야겠어요 !》

《아니, 너 정신있냐? 그 몸으로 출근을 한다는 게 무슨말이냐? !》

김시권은 정말 이날 아침부터 출근을 시작하였다. 첫출근을 하는 아침에 그의 일가장에는 이런 글이 씌여졌다.

《나는 이렇게 종이우에 붓끝을 대고 붓대를 천 채로 죽는대도 한이 없다.

싸우다 남은 피방울까지 모두 바시는데야...

진정 죽음 그자체도 혁명을 위하여 바쳤을 때 그 누가 전사를 나무람하겠는가 !》

남들이 자기 집문을 나서 출근길에 오를 때 그는 세수를 하고 보도를 들었으며 로동자들이 지대앞에서 작업분공을 받을 때 그는 침대우에 원고지들을 퍼놓고 글을 써나갔다.

매 일 매 시각 출근길에 오르는것으로 그는 자기의 하루일과를 시작하였다.

세계에는 창작생활을 하다가 병으로 불구가 되어 병상에서 생애의 마지막을 장식한 작가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출근길이 없었다.

병마가 가져다주는 고통속에 운명을 맡긴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버리고말았던것이다.

그렇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이며 당의 아들인 김시권에게만은 보람찬 출근길이 있었다.

출근길- 이것은 투쟁이며 창조이며 빛나는 삶이 었기때문이다.

이러한 그에게 당에서는 또다시 문학창작을 전문으로 공부할수 있는 대학에 보내주었으며 유능한 작가들이 찾아와 강의를 하여주었다. 대학이 한 이름없는 영예군인을 찾아왔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덕속에서 영예군인 김시권은 이렇게 혁명의 가수, 당의 시인으로 자라날수가 있었으며 서정시 《수령》을 비롯하여 《나의 노래》, 《다시 격전의 길로》 등 수많은 작품들을 지상에 발표하였고 후에는 시집 《또다시 대오에서》를 세상에 내놓을수가 있었다.

그렇다. 그는 또다시 대오에서 혁명의 필봉을 멸적의 무기로 억세게 들어쥐었다.

## 시와 사랑에 대한 전설

어느날 시인 김시권의 집에 한 처녀가 찾아왔다. 억실억실한 검은 눈에 동그스름한 얼굴, 썩 복스럼게 생긴 처녀였다.

하루에도 시인의 집으로 소년단원들과 로동청년들, 인민군 군관들과 전사들이 수많은 찾아왔으나 처녀가 홀로 방문한 때는 없었다.

시인의 집에 찾아온 그 낯모를 처녀는 당시 내각 사무국에서 일하던 권순희동무였다.

그는 한 영예군인 청년이 침상에서 오래동안 백절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시를 창작하고있다는 기적같은 소식을 듣고 남몰래 가슴속에 품어온 소원을 말하려고 왔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지들의 사랑은 사상을 공고히 하고 서로 고무하고 격려하며 호상 투쟁하여 혁명적단결을 이룩하도록 함으로써 혁명투쟁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고귀한 사랑인것입니다.》**

그 누가 시켜서기 아니라 자기의 심장이 가리키는대로 인생의 봄을 찾아온 처녀 !

한 영예군인 청년에게 시집가려는 권순희동무의 아름다운 소행은 끝내 이루어지고야말았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 영예군인 동무의 결혼식을 조금도 섭섭하지 않게 차려주라고 하시면서 신혼부부의 고급옷감과 함께 옷을 지을 재단사까지 보내주시였으며 비단이부자리와 결혼식 큰상까지 차려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어제는 사랑의 한품에 안아 싸우는 전사로,시인으로 키워주시였고 오늘은 청춘시절의 사랑의 꽃방석까지 펼쳐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이의 손길앞에서 사람들을 뜨거운 눈굴을 건잡을수 없이 흘리였다.

그때의 감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눈시울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기 없었다.

예로부터 백년가약을 맺은 한쌍의 부부를 원앙새에 비쳐 말들을 하여왔다.

시인의 안해로 된 권순희동무는 남편의 병치료를 위해서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하반신 두다리에 생기군하는 욕창을 막기 위하여 그가 만들어 낸 각종 포단들은 그 얼마이며 몸에 받쳐준 크고 작은 고이개들은 또 얼마인가!

어찌 그뿐이라.

푸른 하늘이 비껴든 창문을 통해서만 바깥세상을 내다보며 살고있는 시인에게 계절을 변화를 알려

주기 위하여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여러가지 남새와 햇나물을 사가지고 오는가 하면 새로 피어난 꽃들도 구해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창작의 길동무가 되어주곤하였다.

권순희동무의 이 일과는 료양소에 가는 경우에도 하루도 변함없이 그대로 집행되곤하였다.

그러니 시인 김시권의 서정시들에 형상된 한송이의 꽃, 봄날의 향기로움, 아름다운 조국의 산과 들이 권순희동무의 애뜻한 지성에 고여 피어난것이라고 어찌 말하지 않을수 있으랴!

그런데 어느날 직장에서 돌아온 권순희동무는 남편의 두눈에 눈물이 맺혀있는것을 보게 되었다.

《아니, 어찌된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난 당신을 볼 때마다 자기의 아까운 청춘시절을 그렇게 바치는것이 가슴아파서 그러는거요!》

잠시동안 생각에 잠겼던 권순희동무는 혼자 마음을 괴롭히고있었을 남편에 대해 리해할수가 있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사랑에 대한 철학은 잘 몰라요. 그러나 사랑은 받으려는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다는것을 저는 잘 알고있어요!

당신에게는 혁명에 바치는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시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것을 사랑해요!》

안해의 진정이 넘치는 절절한 말을 들은 순간 시인 김시권의 가슴은 더 못견딜 지경으로 터져올랐다.

시와 사랑은 이렇게 뻔해야 뻔수 없는 하나의 심장속에 자리잡고있는것이 아닌가!

심장이 하나일진대 어떻게 떨어져 사는 운명의 두 갈래 길이 있을수 있단말인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두고 로동당시대에 태어난 시와 사랑에 대한 전설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가 없었다.

시가 노래라면 사랑은 그것을 낳는 어머니이기에...

## 영원히 열려진 창문

...

나는 시처럼 살리라

시는 불이며 폭풍이며 장검

그처럼 기세차고 용맹하고저

나는 시처럼 살리라

시는 랑만이며 나래이며 기적

그처럼 위훈을 창조하고저

...

이 시는 시인 김시권이 최근에 쓴 《나는 시처럼

살리라》의 한 대목이다.

시처럼 살려는것, 이것은 시인의 삶의 목표이며 행복의 전부이다.

왜냐하면 농민이 땅을 버리고 살수 없듯이 시인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한시도 살수 없는 운명을 지녔기때문이다.

이러한 운명의 소유자, 시와 함께 한생을 혁명에 바쳐온 시인의 속깊은 마음까지 헤아려주신분은 바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였다.

어머니도 안해도 미처 알수 없던 마음속 깊은곳에 간직된 소원이 시인이 써가는 시줄에만 숨배여있는것이 아니라 그가 한자두자 맹세를 담아 적어놓은 입당청원서에 더 깊이 어리어있었던것이다.

불타는 전호가에서 당에 아뢰고싶던 소원, 적란에 척추가 부서져 다시 일어설수 없는 순간에도, 고향의 소꿉시절 동무들이 동구밖에서 반갑게 맞아주던 때에도, 맥박을 짚어보는 간호원의 맑은 눈빛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조차 식지 않은 붉은 피와 함께 살아숨쉬던 시인의 념원이 있었다.

그는 바로 자기의 그 념원을 적은 입당청원서를 매일 창작하는 충성의 권고들속에 고이 간직한채 살아왔다.

(나라에 부담만 끼친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청원을 말할수 있단말인가! 후날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었다는것을 알아만 주어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시인 김시권은 이렇게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이였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일생의 소원이 풀리는 영광의 시각도 레사로운 날처럼 조용히 찾아왔다.

꿈에도 잊으랴... 푹푹 문두드리는 소리...

한 창작실에 있는 시인들과 작가동맹의 일군들이 찾아온것이였다.

《시권동무, 기뻐하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집 《또다시 대오에서》를 쓴 시인을 입당시켜야겠다고 하시면서 동무는 당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하시였소!》

《아, 오늘이 몇일입니까!》

너무도 크나큰 감격, 너무도 크나큰 흥분속에 그저 받아안을수 없는 사랑의 소식에 접한 시인은 모르지도 않는 날자를 곱씹어묻고있는것이였다.

《오늘은 2월 18일입니다!》

《정말 그렇군요! 뜻깊은 2월의 명절이 지난지 또 며칠되지 않았는데... 그날에 저는 그이께 축원의 인사도 변변히 올리지 못한 사람인데 이런 영광을 안겨주시다니!》

이런날 어머니를 찾던 그 목소리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목매여부르는 시인의 두볼로는 뜨거운것이 말없이 맺혀흘러내렸다.

시인의 입당을 심의하는 당세포총회가 그의 침상

결에서 엄숙히 열리었다.

총포탄이 울부짖는 결사전이 언덕우에서 쓰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간직하고 살던 소원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용한 서재, 그가 오랜날 누워있는 침상우에서 풀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시인이 모진 병마와 싸우며 붓을 놓지 않고 전투를 진행하고있는 침상이 바로 그가 중기를 메고 달려가던 격전의 그 언덕과 무엇이 다르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 안겨 시인이 받아안은 영광은 이뿐이 아니었다.

명절이면 명절마다 이 땅의 산해진미가 다 담긴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었는가 하면 신문에 나갈 그에 대한 기사의제목까지 해당 일군들에게 지어주시면서 그 원고까지 친히 보아주시는 특혜를 베풀어주시었다.

그런가 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시면서 건강한 몸으로 창작을 잘하고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누구보다 기뻐하신분도 친애하

는 지도자동지이시였다.

시인 김시권의 두번째 시집 《전사의 영원한 길》도 그 사랑의 손길아래서 햇빛을 보게 되었으며 남포갑문건설장과 안주탄광을 비롯한 이 땅 모든사회주의건설장들에 이어진 그의 보람찬 출근길도 은혜로운 그 품이 있기에 조국의 새 전설처럼 력사에 새겨질수가 있었다.

시인 김시권은 오늘 거창한 창조물로 일떠서는 남포갑문건설장의 영예로운 명예돌격대원이다.

시인의 출근길은 지금 그곳 건설장에 뻗어있다.

전후 재더미를 털고 일어서는 조국땅을 밟고싶어서 열어달라고 하던 창문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손길이 활짝 열어주셨다.

운명의 문, 창조의 문, 투쟁의 문은 이렇게 영원히 열려졌다.

사람들이여!

비오는 날에도 꽃피는 봄날에도 길을 가다 그의 집 창문을 무심히 보지 마시라!

거기엔 우리 당이 한 평범한 시인에게 안겨준 사랑의 우주가 비껴있다!

## 어머니들의 그 미소속에

윤명숙

그 손길 한번 애기옷에 닿으면

나비가 팔랑 고운 춤추고

그 손길 한번 뜨개옷에 닿으면

금강의 목란꽃 방실 피어나요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키워가듯

만발한 꽃속에

춤추는 나비속에

기쁨도 자랑도 커가는 가내반

꽃수를 놓으며

재봉기를 돌리며

자랑도 많고많은

가내반 녀인들의 그 마음이

아이들의 웃음으로 핀다오

산에 들에 피는 꽃이

이처럼야 고을가

무지개 비단필 꽃무늬처럼

망울터치는 화려한 꽃들

아이들의 웃음을 안았다오

어머니들의 축복을 안았디오

쓸모없이 버리던

갓가지 쪼박무이천들이

날마다 아이들의 기쁨으로 피어나

보람도 긍지도 큰 일터

아 당의 뜻 받들어

나라살림 우리 살림 꽃피가는

가내반 녀인들의 그 미소속엔

꽃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

아이들의 미래가 비껴있다오

## 80년대사람

조재홍

어떻게 하면 80년대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문제성있는 기사를 쓸까 하고 모대기던 나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동굴유색금속광산 혁신갱에서 자체로 광석발을 마련하여 광산전망을 크게 열어놓으면서 동시에 말은 상반년광물생산계획을 벌써 끝냈다는것이였다. 나의 눈앞에는 가슴이 짝 버그러진 갱장 오명섭의 칼칼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사람이 또 한방 해냈군!)

나는 저으기 흥분되였다. 그는 나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처음으로 가자생활을 시작할 때 광산적으로 선참 월계획을 끝낸 그에 대한 긍정 기사를 썼는데 그것으로 해서 전도유망한 기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던것이다. 그후 나는 초소장, 소대장, 갱장인 그에 대한 기사를 여러건 썼다. 그새 그와 나는 허물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한데 그에게는 가자의 《친구》가 되기 힘든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나와는 별말을 다 하다가도 《취재》소리만 나오면 바람같이 새버리고 마는것이였다. 그래서 기사를 쓸적마다 애를 먹었다.

(이번엔 안될걸.)

나는 단단히 잡도리를 하고 떠났다. 하지만 이번엔 판판이였다.

《허허, 기자들이란 냄새도 잘 맡는군, 기다렸소. 하지만 어쩐다? 난 〈부정인물〉 인걸 …》

명섭은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은채 천연스럽게 나를 맞아들였다.

《그새 발전을 했수다. 쇠돌처럼 딱딱하던 사람이 룡담을 다 하는걸 보니…》

나도 긴장이 풀이져서 혼연히 웃었다.

《암 여부가 있소, 가만…》

명섭은 움쭉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출입문을 열고 소리쳤다.

《통계원! 이 문을 밖으로 잠그우, 두시간후에 열라구.》

복도에서 쿵쿵 뛰여오는 소리가 나더니 자물쇠를 잘라 잠그었다. 제자리로 돌아온 명섭은 책상안에서 광산영예게시판에 붙은것과 같은 사진 석장을 꺼내놓으며 말했다.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대한 얘기를 좀 하자는거요.》

나는 사진을 받아보았다.

안전모를 벗어질듯 제껴쓴 머리를 잔뜩 젖히고 커다란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활짝웃는 우동통한 얼굴… 그는 제대군인소대장 박광혁이였다. 다른

사진에 찍힌 청년은 길쭉한 얼굴에 박힌 그리 크지 않은 빛나는 눈으로 나를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안전모도 규정대로 눈섭우에까지 꼭 박아쥔다. 소대장 리용석이였다.

셋째사진은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동그스름한 얼굴에서 쌍꺼풀진 눈이 머루알처럼 반짝거리는 처녀… 그는 명섭의 외동딸 영옥이였는데 얼굴이 고운 대신 성미가 깔끔해서 광산총각들은 《해당화》라고 불렀다.

《이들이 〈긍정인물〉 인가요?》

나는 넋지시 물었다.

명섭은 대답대신 빙그레 웃더니 생산이 아니라 뜻밖에도 사위감 고르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것 역시 새로운 《발전》이였다. 긍정 기사를 쓰는 자들이 노리는 노란자위는 바로 이런 생활속에 있는것이다. 이런 때 취재수첩을 꺼내든다든가 서둘러 유도하려 해서는 안된다. 이야기가 막히거나 빗나갈수 있다. 나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며 그에게 담배를 권하고 나도 붙여물었다.

… 참 내가 그눈이 울퉁한 새침데기 전차운전공 처녀를 홀려내느라고 간을 말리던게 어제같은데 벌써 사위감 고르던 얘기를 하게 됐수다. 딸 가진 아버지들이 다 그렇겠지만 내 경우엔 영옥일 건주어 보는데가 많았소. 하지만 좀처럼 맘드는데가 없더군.

난 원래 그 애가 고등광업학교를 졸업하고 자진해서 전차운전공이 됐을적부터 광부, 그것도 이 아버지처럼 광석을 톤으로 광광 안아내는 채광공을 사위로 삼으리라 마음먹었지요. 그외녀석들이야 어디 눈에 차보여야지. 한데 그 비슷한 말만 꺼내도 십리밖으로 달아나군해서 영옥이의 속을 통 알재간이 없더란말이요. 마취 그 속비밀을 알 때가 왔소. 어느날 일이 있어 좀 일찍 점심먹으러 집으로 들어왔는데 방안에서 마디마디 총알같은 말소리가 튀어나오는게 아니겠소:

《애, 말 말아, 난 좀 환한데 가서 살란다!》

그건 영옥이의 송아지동무 은심이라는 처녀였소. 한학교를 졸업하고 둘다 전차운전공이 되었는데 얼마전부터 그는 광산문화회관에 나외다닌다 하더니 저 모양이 되었소. 엉덩이에 뿔이 난 버럭같은녀! 나는 영옥이의 입에서도 그런말이 나오지 않겠는지 가슴이 떨렸소.

《너 돌지 않았니? 전등불 총총한 막장이 좀 환해서. 난 채광공이 제일이야, 일생 광석을 캐며 살

겠어, 알겠니?»

자 이제 우리 영옥이의 목소리였소. 아무리 부녀간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딱맞을데라구 어데 있겠소.

그런줄도 모르고 도시의 총각녀석들이 부나비처럼 접어들었다간 《가시》에 찔리우군했소. 그래서 개게 《해당화》라는 별명이 붙게 된게라오. 뭐 악이난 어떤녀석들은 날 보군 《구두쇠》라고 한다던지. 딸 가진 아버지들이 욕을 등에 지고다닌다는 말이 옳더군, 하지만 어찌겠소. 그런 욕도 한때니 즐겁게 받아들일수밖에... 그러는새 그제 글썽 스푼다섯살을 먹었수다. 안이 달기 시작했소. 처녀들이 바짝 값을 올리다가 싸구려판이 되는 경운 얼마나 많소. 게다가 생산과제가 곱으로 경충 뛰어들렀소. 이래저래 끝이 아픈 때 마침 광산에 끝끝한 제대군인들이 왔소. 나는 너무 기뻐서 로동과로 달려갔소.

우리 소대에 배치된 동무들은 벌써 갔다는 것이었소. 합숙에도 없었소. 한참 찾아다니던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얼마전에 다녀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판앞에서 그들을 만날수 있었소. 몸이 갱끗한 제대군인이 단정한 자세로 서서 수첩에 적고 그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몸이 한아름이나 되는 친구가 불러주더군, 이들이 바로 용석이와 광혁이었소.

광혁은 군대때 땅크병이었는데 그 본새대로 그저 《알았습니다!》 《돌겨앞으로!》이었소. 일을 내민다 하면 꼭 《땅크》였다니, 하지만 용석인 좀 달랐소. 입대한 첫날부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돌아보신 216호비행기를 나루던 전사였다는네 그때처럼 무슨 일이나 꼼꼼히 생각하고 해내군했소. 실수가 없었소. 말하자면 머리를 쓸줄 알았지, 그의 품속에는 늘 책이 들어있었소. 그래서 모두들 《대학생광부》라고 했지. 난 그걸 장하게 보았소. 지금이야 어디 독심으로만 일을 할때요? 나는 서슴없이 용석일 첫자리에 놓고 광혁인 그뒤에 세웠소. 날이 갈수록 그가 마음에 들었소. 때문에 그를 나의 후임으로 당위위원회에 제기하였던거요. 나는 내가 소대장이 되던 첫날부터 《초과완수》라는 수자들로 번듯하게 수놓은 《채광일지》를 그에게 넘겨주며 말했소.

《명심하라구, 이 채광일지에 동무의 명예를 적어 간다는걸.》

《알았습니다! 이 채광일지에 저의 량심을 적어 가겠습니다.》

용석은 채광일지를 두손으로 받아들고 맹세했소. 정말 그는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며 광산소대들의 앞장에 당당히 나섰소. 얼마후 소대장이 된 광혁이가 욕했었지만 한번도 그를 앞서지 못했소. 생각해보시우! 내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는가. 말 그대로 용석인 나의 오른팔이고 광혁은 왼팔이었소. 말하자면 내가 량손에 든 갱의 꽃이었소. 걱정거리 는 이 욕심사나운 《다먹어리》들에게 광석발을 제

대로 내주는 것이었소. 웬간한 광석발은 말기 바쁘게 우물쩍 먹이치우고는 가슴을 쿵쿵 두드려대는게 아니겠소.

《갱장동지, 당에서는 유색금속 150만톤을 요구하는데 〈중대〉나 〈대대〉가 성에 찼니까. 제발 〈사단〉이나 〈군단〉 좀 맡겨주십시오. 좀 〈일당백〉이 돼봅시다.》

때마침 《군단》이 아니라 《집단군》이 생겼소.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전원회의결정을 받들고 건설갱에서 1호광채개발을 끝냈던거요. 용석이와 광혁이네가 높이 세운 전투계획으로 계산해도 1년나마캐낼 엄청난게 큰 광채였소. 나도 흐뭇했소. 갱의 영엔 여기서 빛날판이었거던. 하긴 한 1년 녀석들의 성화를 안받게 됐다는 생각에 안도의 숨도 나갔지요. 나는 용석이와 광혁이가 1호광채를 맞받아먹어들어가게 붙였소. 영옥이네 전차는 그들 두개 소대가 캐내는 광석을 전문적으로 실어내게 하고... 그리고는 엄포를 놓았소.

《자, 소원을 풀어줬으니 갱의 명예를 펼쳐보는게!》

광혁의 대답은 역시 차렷이고 《알았습니다!》였소. 한데 용석은 한참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하지만 광산적으로 크게 풀릴 문제는 아닌것 같은데요.》 하고 생뚱같은 소리를 하는게 아니겠소. 물론 크게 보면 옳지. 그러나 우린 자기가 맡은 일부터 생각해야 하는거요. 지배인이나 광업위원회 위원장은 아니거던. 비위가 상했소, 그래서 똑똑히 말해줬소.

《동무는 동무가 맡은 일을, 나는 가 맡은 일을 잘하는게 바로 충실성이란말이요. 알겠소?》

《...》

용석은 리해 안된다는듯 대답없이 머리를 기웃했소. 거기 모를게 뭐가 있단말이요? 나는 화가 났소. 단단히 오금을 박아놓고싶었소. 그런데 영옥이가 어이없다는듯 그를 뵈히 쳐다보는게 아니겠소. 당장 무슨 말인가 할듯하다가 나와 눈길이 마주치자 책 돌아서 가버리더군. 들으나마나 이런 말을 했을게요.

《아버지말을 똑똑히 들으라요. 주체님은 소릴 말고...》

나는 영옥이가 대견스러웠소. 그렇다고 용석이에 대한 믿음에 흠이 생긴건 결코 아니었소. 귀한 자식은 찌그렁눈도 곱다는 식으로 그저 그럴수 있다고 좋게 래해하였소...

《아니, 어떻게 됐다구요?》

나는 이제 보통이야기가 아니라라는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래서 박아물었다. 명섭은 그 물음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손바닥으로 책상을 철썩 치더니 내가 미처 어쩔새도 없이 자기 말을 다그쳐댔다.

아이고 이거 얘기가 빛나갔군. 영옥이 얘길 하더

했는데...

이래저래 난 용석일 사위감으로 딱 점찍었소. 기차동무, 어디 말 좀 해보슈, 나무랄데 있소?

암 없구말구, 난 년간계획이나 끝내놓구 약혼삼아 결혼식삼아 상을 차리잘고 작정했소. 그런데 뜻대로 안되는게 사람의 일입데다. 후유- 글썽 이런변이 어데 있겠소. 총각녀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영옥이가 생똥같이 광혁이와 눈치가 다르다는게 아니겠소. 처음에 난 쓸개빠진녀석들의 잡소리겠거니 했소. 그래도 미타한게 눈을 밝히게 되더군, 아닌게아니라 눈치가 이상했소. 우선 영옥이가 필요없이 자주 광혁이네 막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소. 그러면 광혁인 몸돌바를 몰라하면서도 입이 헤벌쭉해지곤했소. 그러다 영옥이가 오지 않으면 광석더미에 주저앉아 줄담배를 피우며 한숨을 풀풀 내쉬고 찍하면 짜증을 냈소. 상사병이 난게 틀림없었소. 저도 모르게 신경이 갔소.

어느날 광혁이네 채광장으로 가던 나는 걸음을 뚝 멈추었소. 난데없는 확성기에서 간드러진 녀자의 노래소리가 울리는게 아니겠소. 가만히 들어보니 영옥의 목소리였소. 나는 호기심이 나서 간데라 불을 죽이고 슬금슬금 다가갔소. 영옥이가전차에 기대서서 성냥곽만한 마이크를 입에 대고 노래를 부르고있었는데...

(애두 참... 언제 저런 궁릴 다해냈을가.)

나는 그 소행이 기특해서 달려가 머리라도 쓰다듬어주고싶었소. 그러나 주책없이 나서서 판을 깨칠수는 없었소. 나는 광차뒤에 숨어선채 담배를 붙여물었지. 영옥의 노래가 끝나자 박수에 환성이 터져올라 채광장이 들썩했소. 그런데 영옥이의 쉿쉿한 소리가 울려왔소.

《동무들, 방금전 저쪽소대(그는 용석이네쪽을 가리켰소.)에 가봤는데 거기선 벌써 하루계획을 거의 끝냈더군요...》

그러자 시종 빙글거려던 광부들의 표정이 일시에 굳어졌소. 광혁이가 그앞에 썩 나서서 썩썩거리더니 물었소.

《뭘, 그게 정말이요?》

《그럼요, 그러단 소대장동문 또 납죽하게 돼요. 이거야 어디 안타까와서 살겠어요?》

영옥이가 그의 승벽을 굽어놓았소.

《그럴수 없소, 동무들 앞으로!》

광혁은 그 큰 키를 구부정하고 광석적재기운전대를 꼭 잡았소. 와-하고 전두가 붙었소.

(음, 녀석들의 가슴 녹일줄 아는군.)

나는 줄안에 감싸진 담배를 빨았소. 담배맛이 별로 달더군. 그런데 한녀석이 영옥의 옆으로 슬쩍 다가오더니 능청스레 물었소.

《영옥동무, 우리 소대가 놀리는데 동무가 왜 더 안이 달아 그러요?》

《소대장동무를 생각해서 그래요!》

영옥은 조금도 주저없이 대답했소.

《오 그렇구만!》

그녀석이 친구들을 돌아다보며 눈을 끔찍했소. 와하 웃음이 터졌소.

(저 애가 정말?)

나는 놀랐소, 그럼 소문이 정말이었던말인가. 그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는듯 영옥이가 일에 열이 난 녀석들의 꿈무늬에 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총각동무

그 광석이 어델 가는지 아시나요

치너는 채광공 그 총각이

정말 제일 좋대요...

그건 전에 영옥이가 은심이와 같이 부르곤하던 노래였소. 그런데 은심이 그넌은 허파에 바람이 찼단말이요. 그 생각을 하니 분해서 결딜수 없었소. 착암기소리, 광석적재기소리, 광차에 광석 쏟아지는 소리, 웃음소리, 노래소리... 너렁청한 채광장이 흔들흔들했소. 나도 하마터면 그관에 뛰어들뻔했소. 난 지금도 이런 분위기, 그리고 간데라 불빛에 번쩍거리는 광석벽이며 산갈이 무너져내린 광석더미를 보아야 밥을 잘 먹고 잠도 잘자오.

어느새 무뎠던 광석은 10톤짜리대형광차에 다 실리고 채광장이 반반하게 되었소. 영옥이가 광혁이를 끌고 한쪽구석으로 가더니 무엇인가 한참 소근거렸소. 광혁인 머리를 끄덕끄덕하고... 그리고는 광차있는데로 나란히 걸어오며 조용히 말했소.

《이번엔 32분간이나 기다렸어요.》

광혁이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 말을 받았소.

《고맙소!... 그러구 40분후에 오면 되겠소? 알겠소?》

무엇이 고맙다는지는 알수 없으나 그 약속은 광포였소. 아직 남포구명도 풀지 못한 주체에 수백톤의 광석을 40분내에 펴구겠다구? 광석밀천없이 일하는게 자네의 결함이야, 그러니 용석이한테 질수 밖에... 나는 머리를 가로 저었소.

영옥은 광혁에게 머리를 까딱해보이고 전차에 오르다가 나를 발견했소. 그는 도적질하다 들킨사람처럼 눈돌바를 몰라하더니 전차를 몰고 내뺄고말았소. 광혁은 멧적은듯 뒤통수만 굵적굵적하했지...

그런데 그 나긋나긋하고 삼삼하던 영옥의 태도는 용석이네 채광장에선 판판 달랐소. 그날 내가 용석이네채광장에 이르렀을땐 벌써 광차들에 광석이 가득 실려있었소. 영옥이가 들어오자바람으로 광차들을 몰고 떠나려 하자 한녀석이 걸고들었소.

《〈해당화〉 동무 그 확성긴 박광혁소대만 위해서 달고 다니는거요? 가시만 돌구지 말고 한 곡조 넘기구 가구레.》

그러자 영옥이가 제일 큰 〈가시〉로 콧 찧렸소.

《아무데서나 부르는게 노랜줄 아세요?》

그 친구가 독이 나서 접어들려고 하자 용석은 그의 어깨를 툭쳐 뺨 돌려세웠소. 그리고는 글썽 새파



래서 영옥이를 닦아세웠소.

《운전공동무, 좀 빨리 다니는게 좋겠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건 전차의 회전속도요. 알겠소? 어서 가오!》

세상에 죽으라는 소리보다 가라는 소리가 더 싫다는 말이 있질 않소. 영옥은 눈을 살퐁이 내려깔고 입술을 꼭 깨물더니 광차들을 왈각 끌고 달아났소. 지금까지 그는 총각들을 늘 눈아래에 내려봤지요. 총각이라 이름가진녀석들은 누구나 잘 보여보려고 발밑에서 설설때며 돌아갔으니까말이요. 그런데 유독 용석이란은... 내가 다 뻔이 났소. 하지만 먼저 찬바람을 일꾼전 영옥이가 아니요?!

(으흠, 뜬소문이 아니었구나!)

나는 확신했소. 사실 늦어진것도 광혁이때문 아니요. 나는 용석이를 보기가 미안했소. 그래서 파끈한 말이라도 한마디 하려는데 용석이가 먼저 군대식작업보고를 하는것이였소. 들으나마나였소. 채광장엔 아직도 한 전차분은 나마 될 광석이 쌓여있는데 벌써 발과준비를 끝냈더란말이요. 이제 한남포 짱! 하면 채광장에 광석이 가득 찰판이였소. 그의 일본새만 바로 이랬소. 그년 눈이 멀었지. 이런 보배를 쓴외보듯하다니... 난 정말 성이났소. 물론 광혁이도 나무랄데없지. 하지만 아버지의 욕심이란 그럴소?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들어서자바람으르 그 애 방문을 열어젖혔소. 앉은뱅이 책상앞에 마주앉아있던 영옥이가 놀라서 일어섰소. 그바람에 도면같은 종이장이 방바닥에 떨어졌소. 무슨 런속발과법이라는 큰 글자가 얼핏 보이더군. 지금까지 수년간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온 나도 이젠 어찌지 못하는데 네가? 흥 여느때 같으면 헛고생 말라고 타일러 줬겠지만 그럴 경향이 없었소.

《앉아라!》

나는 문턱에 걸터앉으며 턱으로 구들을 가리켰소. 영옥은 공손히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앉았소.

《네가 왜 용석일 소담보듯하니? 어디 말해 봐!》

나는 무작정 따지고들었소.

《...》

영옥은 무슨 말을 하자다 말고 다소곳이 머리를 숙였소. 그의 흰 귀뿌리며 목덜미가 고추처럼 빨갭게 익었더군. 그 모양을 보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소. 아직 철이 없어서 사람을 잘못볼수도 있지. 나는 조용히 말해주었소.

《사람을 보는데선 이상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실수가 없는 법이네라. 광혁이도 좋은 청년이지. 하지만...》

나는 담배불을 불이느라고 잠시 말을 멈추었소. 그새 영옥이가 슬쩍 끼어들었소.

《사실 저도 깊이 생각하고...》

나는 깜짝 놀랐소. 이건 그의 첫 말대답질이었지

요. 그게 하나라고 티점불하나 물을세라 키웠더니 이제 무슨 본때요. 나는 손이 떨렸소. 내가 돈으면 말을 못한다는거야 기차동무도 알지 않소.

《난 용석일 기둥으로 믿는다! 알겠냐?》

난 딱 잘라 말하고 일어섰소. 이쯤하면 그가 잘못했다고 할줄 알았소. 그러나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지을뿐 용서를 빌지 않았소. 나는 그제 더 패썹했소. 이년 어디 두고보자! 나는 그를 보는척도 안했소. 그대신 용석이를 보란듯이 더 끔찍이 굴었소. 하긴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파묻혀있을새도 없었소.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전원회의 결정을심장으로 받아안은 이 억척같은 녀석들이 1호광채를 거의다 먹어치운것이였소. 이 기세로 나간다면 보름작업량도 남으나마나했소. 다른 소대들도 이제 한두달이면 손을 털고나갔게 되었소. 거의다 먹새가 큰 소대들을 덧붙일수는 없었소. 1호광채옆에 갱이 다 달라붙어도 한 2년은 너근히 해먹을 3호광채가 있었는데 광산계획에는 1호광채를 다 먹고 길이 열린 다음 굴진을 하게 되어 있었소. 1호광채와 3호광채사이에 있는 그 암석《벽》은 한달 걸려야 뚫을수 있는것이였소. 용석이네는 그《벽》의 제일 얇은곳까지 광석을 밀고들어간지 이미 오랬소. 난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할때부터 이런 경우를 예견해서 굴진소대를 빨리 붙여래라고 땅딸보건설갱장을 못살게 굴었댔소. 하지만 그는 코방귀만 뀌었소. 하긴 그의 뒤통수에도 불이 달렸지. 1년분 굴진을 선행시켰다는것만 생각하고 건설갱전체가 특호광채개발에 달라붙었던거요. 그것만 되면 광산이 적어도 3년은 배를 두드릴수 있었소. 그걸 끝내자면 아직 두석달은 걸려야 했소. 온 광산이 그를 내몰고 있었소. 그러나 그거야 내가 상관할바요? 불은 내 발등에 떨어졌는데... 나는 할수없이 광산에 성화를 먹이기 시작했소. 광산에서도 시원한 대답을 못했소. 그제 광산적으로 결린 문제였거던 그건 지배인이나 알 일이지.

어느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광산적인 협의회가 열렸소. 욕심을 차릴 절호의 기회였소. 나는 혼자 힘으로 약할것 같아서 사리에 밝은《오른팔》용석이를 데리고갔소, 이럴 땐 직접적생산자이고 소문난 채광소대장인 그의 말이 더 은을 낼수 있었거던.

협의회가 시작되었소. 문제가 심각한것이어서 광산당비서랑 지배인이랑 다 나왔더군. 나는 선참 일어나서 3호광채개발에 당장 굴진소대를 붙여야 광산의《목》이 열린다고 크게 걸고 체기를 했소. 그러자 건설갱장이 그건 눈앞에 있는 제때 때려잡는 것이니 절대 안된다고 버티기 시작했소. 욕신각신이 벌어졌소. 두편 다 력량이 어스비슷했소. 용석이가 바른소릴 한마디만 해주면 결정적우세를 차지할 자신이 있었소. 그런데 그는 머리를 떨구고 앉은 채 일어설 잡도리가 아니었소. 이런 큰 협의회에 참

가하니 기가 죽었던 모양이요. 원 사람두. 체대군인이라는게 쫓쪽... 나는 김을 붙어넣어 주려고 그의 옆구리를 꼭 찔렀소. 바로 그때 광산 당비서가 열이 오른 사람들을 제지시키며 말했소.

《가만, 서로 자기, 자기 소대, 자기 갱 생각만 하지 말고 당적인 립장에서 방도를 생각해봅시다. 숨은 영웅들처럼말입니다.》

용석은 그제야 잠에서 깨어난듯 벌떡 일어섰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소.

《아, 용석동무구만 말해보오, 동무들 의견이 기본이지.》 광산당비서가 웃으며 부추겼소.

(됐구나! 내 타산이 맞았어.)

나는 턱을 푹 쳐들고 매만지며 건설갱장을 코밑으로 내려다보았소. 그런데 용석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알겠소? 허허 참...

《비서동지의 말을 듣고보니 생각되는바가 많습니다. 이제 열이 오른 굴진소대를 떼면 광산적으로 지장을 받게 될게고 또 옮겨간다 해도 작업준비를 하느라 새 조건에 익숙하느라 곁절 많은 시간이 걸릴겁니다. 그새 광석만 손해를 보지요. 그건 절대 안됩니다! 그 임무를 우리 소대에 맡겨주십시오. 15일안에 <벽>을 관통시키고 광산의 <목>을 열겠습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채광소대장 리용석의 대답이었소. 기자동무, 사람을 자기같이 믿었다가 한순간에 배반당해본적이 있소? 세상에 것처럼 허무하고 맹랑한 일이 또 어데 있겠소.

명섭은 입을 찹찹 다시며 담배를 꺼내들고 광석바가지같은 손바닥에 툭툭 그루를 박았다. 나는 긴장되었다. 이제야말로 《공정인물》, 《부정인물》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것이었다. 어서 다음이야기를 듣고싶었다. 나는 그의 담배에 성냥을 그어대주며 슬쩍 부채질을 했다.

《거 참, 일이 분하게는 됐는데...》

불은 이내 달렸다. 그는 담배연기를 삼키려다 말고 다시 입을 열었다.

《여부가 있소. 민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 할가, 그녀석은 하늘로 떠받들려 올라간 대신 나는 빈대처럼 납죽하게 되었소. 이날 아때까지 꽃다발을 안고 살아온운 나였소. 또 그렇게 한생을 바칠 나였소. 그런 내가 이 지경이 되다니... 이것은 전적으로 용석의 《변절행위》때문이었소. 정말 알다가도 모를게 사람이거든.》

회의에서는 용석의 제기대로 결정되었소. 나는 눈앞이 아득했소. 용석이네 소대는 갱생산의 주력이었소. 그런것만큼 그의 영예이자 곧 나의 영예였소. 그 《오른팔》을 단번에 푹 찔렀단말이요.

땅딸보갱장이 나에게 코살을 쫓국해보이고는 달려와 용석이를 와락 끌어안고 하하 웃어댔소. 용석은 마치 영웅이라도 된듯 천연스럽게 그 수작을 받아들였소. 저게 정말 자기의 공명 (나는 그렇게 단

정했소.)을 위해서는 그렇게 밍고 돌봐준 갱장도 헌신짝처럼 차버리는 녀석이었던말인가. 문득 용석이앞에선 늘 《가시》를 돋구던 영옥의 말이 생각났소.

《사실 저도 깊이 생각하고...》

웁았소. 1호광체를 말할 때도 저녀석이 광산적으로 보면 어떻다고 주제넘은 소릴 했었지, 영옥인 그때 벌써 그 검은 속심을 들여다봤어. 그런걸 난 왜 여직껏 그걸 간파하지 못했을까, 정말 내가 큰 실수를 했소. 이제 내가 영옥에게용서를 빌수밖에 없었소.

망할녀석 갈테면 가라! 내 이제 다시야 너를? 흥 나는 그를 그자리에 활 내버리고 나왔소 그런데 용석이가 비위 좋게 혈테벌떡 따라오는게 아니겠소. 난 돌아다보지도 않았소.

《저... 회의장이 돼서 토론할새두 없구... 그렇다고 광산이 걸렸는데 량심이... 용서하십시오!》

용석이가 숨이 차서 혈떡거리며 나의 등에 대고 말했소.

《용선 무슨 용서, 다 잘됐는데...》

나는 쓰겁게 내뱉었소. 용석은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소.

《그럴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환성을 올렸소. 그리고는 사기가 나서 제기했소. 기자동무, 그게 무슨 제긴지 알겠소? 기동대 그 은심이를 갱에 다시 들어오게 해달라는것이였소. 그 허파에 바람찬련을말이요.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걸음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뻔히 쳐다보았소. 그는 어쭙은 미소를 지으며 눈길을 떨구었소. 나는 소이 울컥 치밀어올랐으나 꼭 참고 그의 속을 뽑아보기 위해 물었소.

《그건 왜?》

용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심한듯 자세를 바로 잡고 나를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소.

《이 문젠 갱의 생산을 푸는데 아주 중요한...》

영옥이처럼 착실한 애들이라던 몰라라 글썽 그따위들이 무슨 일을 천단말이요. 나는 더는 참을수 없었소.

《생산이 자네와 무슨 상관인가? 안돼! 내겐 광혁이가 있어!》

나는 딱 잘라버리고 돌아서서 걸음을 다그쳤소. 그러느라니 《생산》이라는 두 글자가 가슴에 딱 마치더군, 용석이네가 쑥 빠져나갔는데 그 큰 몫을 갱이 어떻게 그대로 받아안고 메꾸겠소, 그러느라면 갱이 말밥에 오를건 뻔했소. 그때에야 나는 분김에 그 문제는 생각 못했다는걸 깨달았소. 용석이네가 안았던 생산량만큼 면제해달라면 광산에서도 두말을 못했게고 그러면 갱의 영예는 그대로 빛날게 아니요. 저절로 걸음이 떠졌소.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소. 이제 제거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소.

이튿날 아침 광산정문에는 대문짝같은 속보가 나 붙었소.

《혁신갱에서 3호광채개발에 돌입! 생산은 갱이 그대로 받아안았다!》고 말ियो. 게다가 방송차가 광산골안이 좁다하게 나들며 불어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고… 어디 가나 혁신갱, 혁신갱 했소. 나는 그저 속만 까맣게 태웠소. 한편으로는 반발심도 생겼소. 이렇게 된바엔 광혁이네 소대에 력량을 집중해서 봉창을 하리라고 말ियो. 나는 로력과 자재들을 가능한것 조절해넣었소. 용석이 네야 이젠 《남의 식구》이고 또 채광밖에 모르는 그들이 굴진소대가 한달도 더 걸리리라던걸 모름 안으로 해내겠다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고려해볼게 없었소. 마음껏 뜯어냈소. 로력, 광차, 광석적재기, 착암기, 지어 소공구들까지… 용석은 나한테 지은 《죄》가 있는지라 뼈꼭소리 한마디 못했소. 오히려 필요하면 더 가져가라는것이었소. 그래서 그들 소대엔 《뼈》만 남게 되었소.

준비가 되자 나는 아예 광혁이네 막장에 들어가 박혔소. 그런데 생산은 죽어라고 안되더구만. 아무리 고아대도 소대의 종전속도를 조금밖에 넘어서지 못했소. 그중 걸리는게 발파였소. 생각같아서는 광석을 단번에 몇전차분씩 광광 떨구고싶었지만 고작해서 한두전차분이었소. 광혁인 땀만 뻘뻘 흘릴뿐이었소. 하긴 나도 어찌지 못하는걸 그라고 어떻게 하겠소. 더구나 속이 타는건 광혁이가 일에 성수를 내지 못하는것이었소. 소대장이라는게 수직수직 일만하는가 하면 난강출입이 잦아졌소. 말을 해주면 그저 입가에 어슬픈 웃음을 지을뿐이었소. 나는 그도 생산이 안돼서 그러는제라고 좋게 생각해버렸소.

이대로 앉은방아를 찼다가는 보름은 커녕 한달도 더 걸릴것 같았소. 광부생활 30년에 이처럼 난감해보기는 처음이었소. 무슨 방도를 찾아내야 했소. 나는 생각다못해 난장으로 나오고말았소. 그때는 새벽 세시였소. 온 광산마을이 부드러운 어둠속에 고요히 잠들었더군. 한데 영옥의 방에 불이 켜져있지 않았소. 가운데문이 열려져있어서 들여다보니 앉은뱅이책상앞에 마주앉아 언젠가 본적이 있는 그 도면을 옮겨그리고있더군. 어찌나 거기에 음했는지 내가 들어온줄도 몰랐소. 나는 허거픈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가로저었소. 그러나 방해하고싶지 않았소. 실습삼아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지. 더구나 용석의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그를 대하기가 서먹해진 나였소.

자리에 누웠으나 뒤송송한게 종시 잠이 오지 않았소. 이생각 저생각 굴리고있는데 영옥이가 정지로 나왔소. 작업복차림이더군, 손엔 도면두루마리를 쥐고…

《너 어델 가니?》 나는 누운채로 물었소.

《아이, 아버지 언제 들어오셨어요?》

영옥이가 살췍이 앉으며 반기었소.

《방금전에…》

《생산은 어때요?》

《시원질 않다!》

《너무 근심마세요, 풀리겠지요 뭐.》

영옥이가 상그레 웃으며 말했소. 난 그 말이 별로 고마웠소. 하자 용석에 대한 노여움이 불현듯 맺혀 올랐소. 그래서 말했소.

《영옥아, 네가 사람을 옳게 본것 같다!》

《야, 아버지두 참 저… 용석동문 좋은 사람이에요!》

영옥이가 별로 당황해하며 변명을 했소. 나는 자기 귀를 의심하며 그를 쳐다보았소. 그가 내앞에서 총각을 그처럼 안타깝게 두둔해보긴 처음이었소. 혹시 속으로 용석이를 생각하고있는게 아닐가? 하지만 그 의문을 풀수 없었소. 영옥이가 갱으로 간다면서 나가버린것이었소. 나는 그가 나간 문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소. 원래 그는 밤 12시까지 일하는 교대였소. 그러니 밤을 꼬박 새우는판이었소. 하긴 요즘에 와선 전차에 붙어살다싶이하는 그였소.

(너도 속을 썩이는구나!)

결국 그거야 이 아버지의 난치한 립장을 생각해서 그러는게 아니겠소. 가슴이 뜨거워진 나는 더 자리에 누워있을수 없었소. 나는 영옥이가 던지고 간 그 의문도 풀겸 사무실로 나갔소. 그러나 생산생각에 다른건 다 잊어버리고말았소. 밀린 일감을 내놓아도 머리만 아플뿐 손에 잡히지 않았소. 이젠 체면이나 자존심을 생각할수 없게 되었소. 낮이 짝이더라도 생산을 조절해달라고 제기할수 밖에 없었소.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일어서는데 따르릉 전화종이 울렸소. 나는 얼른 시계를 보았소. 10시 생산일보를 종합하는 시간이었소. 나의 눈앞에는 우리 갱장들에게 로흥덕이란 좋은 이름을 통채로 빼앗기고 전자계산기라 불리우는 생산과장의 눈시를 뺏은 팽팽한 눈이 떠올랐소. 저절로 얼굴이 쨍그려졌소. 그냥 나가버리려는데 전화기가 그냥 몸부림쳤소. 할수없이 수화기를 들고 귀에 밀찌감치 가져다댔소.

《여보시오. 갱 갱장동집니까?》

성급한 목소리, 그것은 뜻밖에도 광혁이었소. 또 뭐가 걸린다는 소리겠지.

《나요. 왜 그러나?》 나는 짜증을 냈소. 하지만 광혁은 그것을 가려듣지 못했소.

《빠, 빨리 들어오십시오. 크, 큰일났습시다!》

나는 가슴이 철렁해서 수화기를 꼭 거머쥐었소. 덤뻤다치는 꼴을 보면 무슨 사고가 난게 틀림없었소, 광산에선 이럴 때 지휘관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지 않았다간 더 큰일을 치게 되오.

《여, 천천히 말하라구 무슨 일이야?》

나는 활랑거리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고 일부러 뜨직이 물었소.

《광석이 막 쏟아지는데 광차가 딸린단말입니

다.》 광혁이가 게사니처럼 소리쳤소.

《뭐이 ?》 이번엔 내가 더 놀랐소.

《빨리 들어와보고 풀어주십시오 !》

내가 어리뻑해있는데 광혁이가 다시 독촉해댔소, 정말 광차가 걸린다면야 이 오명섭이 하늘에 날아가는거라는 잡아다주지 않으리, 그러나 몇시간 어간에 그런 전변이 일어났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이지질 않았소. 하지만 무슨 일이 있는것만은 사실이었소. 나는 막장으로 달려들어갔소. 채광장어귀에 들어선 나는 그만 그자리에 굳어지고말았소.

채광장엔 광석이 산더미처럼 내려앉아있었소. 열전차분도 더 될것 같았소.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요?》

나는 등그래진 눈을 그대로 광혁에게 돌리며 물었소.

《하하, 갱장동진 이 박광혁이가 〈땅크〉라는걸 잊었었지요? 땅크병의 통은 바로 이렇습니다!》

덩지 큰 녀석이 의시대는게 꼭 범잡은 포수기상이었소. 일이 사랑이리구 나는 그것이 더 장하게 보여서 그의 손을 짹 들어잡았소.

《잘했소 장-해 !》

나는 더 칭찬을 할수 없는게 안타까웠소.

《너무 이리저 마십시오, 축하는 영옥동무가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된 요술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 광혁이가 어색한듯 손을 뻗더니 종이두루마리를 내놓았소. 나는 영옥이가 새벽에 쥐고 나오던것이라는것을 대번에 알아보았소. 내가 것처럼 허술히 보던 도면말이요. 얼굴이 뜨거웠지만 펼쳐보았소.

《다계단식발파법 !》 그의 생김새처럼 또글또글 한 영옥의 글씨였소. 얼핏 타산해보아도 이대로 하면 채광속도를 곱은 더 높일수 있었소. 증강된 용석이네 소대 하나를 허양 버는셈이었소. 이런 대단한 혁신이 또 어데 있겠소.

기자동무 ! 그때 만일 영옥이가 곁에 있었으면 애기때처럼 목마를 태우고 채광장이 좁다하게 뛰어다녔을거요. 자식이 아무리 곱다 해도 이때보다 더 귀한줄은 아마 모를게요,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광혁이를 와락 끌어안았소. 그러나 말은 영옥에게 하였소.

《네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영옥아!》

어느때갈았으면 익살쟁이들이 가만 있지 않았을거요, 그러나 이때는 모두 박수를 쳐주더군. 때마침 영옥이가 전차를 몰고 들어왔소. 작업복을 단정하게 입고 버드나무안전모를 약간 빼돌서하게 쓴 그 모습은 비둘기처럼 고왔소. 나는 광부들앞이라 갱장의 체면을 생각해서 부풀대로 부풀 감정을 누를 수밖에 없었소. 그저 크게 머리를 끄덕여주었소. 그는 이슬 머금은 할미꽃처럼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방그래 웃더니 광혁이앞으로 다가가 살뜰하게 물었소.

《광석심는 시간을, 줄일수 없을까요 ?》

《넘려 마오. 그건 우리가 풀겠소 !》

광혁이가 병긋 웃으며 장담했소. 나는 광석이 가득찬 채광장을 배경으로 마주선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소. 꽃밭속에 있는들 이보다 더 아름답겠소, 저들이 이렇게 서로 도우면 얼마나 큰일을 하겠소. 기자동무는 암만 말해도 그때 나의 심정을 백분의 하나도 모를거요. 나이찬 딸을 가진 아버지들만이 알수 있는 기쁨이지 암 흐흐...

내가 이런 감상에 잠겨있는데 명옥이가 끌고온 평차를 광부들에게 가리켜보였소. 그 광차벽엔 활식으로 이렇게 씌여있더군.

《성과를 축하함 !》

그리고 그보다 작은 글씨로 《교대할 때 우리 마구리에 들리게 용석》라고 썼더군. 그가 보내준 광차는 녀대나 되었소. 그러지 않아도 깎아낼대로 깎아내서 이렇게 되면 그들은 곱절 힘들게 일하게 되오. 그러면서도 광차를 지원해준것이었소. 나는 가슴이 몽클해졌소. 광혁이가 눈을 슴벅스름하더니 평차벽에 《다들 고맙네 !》라고 썼소. 모여섰던 친구들이 와그르 박수를 쳐댔소. 그리고는 와 달라 붙어 광석을 싣기 시작했소. 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처음으로 가책을 느끼게 했소. 비록 《변절》은 해서 《남의 일》은 할망정 적이야 우리 갱에 있지 않소. 그런데 나살이나 건사한 갱장이 한번 돌아다 보지도 않았거던. 한참 물덤병물덤병 할 땐데 잘못이 있으면 교양을 해야지 더구나 어제저녁 영옥이가 좋은 동무라던 생각이 떠올랐소. 차별 말고 도와주라는 충고가 아니겠소.

끝없이 마음이 너그러워진 나는 용석이네 막장으로 찾아갔소. 솔직히 말하면 광혁이네 전망, 즉 내 살구멍이 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들을 생각하게 된것도 사실이었소.

기자동무도 알다싶이 굴진이란 광석을 캐낼 길을 만드느라고 굴을 뚫는 일이요. 한것만큼 막장이라는게 사방 한발울 크게 넘지 못했소. 게다가 시키던 암석이 질벽처럼 버티고 서서 숨이 떡 막혔소. 때문에 너렁청한 채광장과 번쩍거리는 광석에 습관된 채광공들은 자기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은혜도 모르고 굴진공들을 《두더지》니 뭐니 하고 놀려주지요. 나는 원래 굴진막장에 발길을 돌리는 성미가 아니었소.

용석이네는 생각하던것보다 훨씬 깊이 들어갔더군. 그들은 막장에 무뎡히 쌓인 버력을 몇대안되는 광차에 싣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있었소. 남포구멍에 심지를 꽂아놓은걸 보면 그것때문에 발파를 못하는게 분명했소. 사람두, 이렇게 고생하면서 광혁일 돕다니... 나는 광차를 좀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용석일 찾았소. 그는 내가 온줄도 모르고 어스크레한 한쪽구석에 누구와 마주앉아 소근거리고있었소. 간데라불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소. 눈엔 쌍까풀이 지고 입술이 부르츠고 한마디로 혈غم해졌소. 얼마나 애를 썼으면 그렇게 됐겠소. 가슴이 찌르르 저려들었소,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이었소. 마주앉은 사람이 다름아닌 은심이었던거요. 영옥이를 괜히 몰아대던, 일이며 저 은심을 다시 갠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애타게 제기하던 일이 불현듯 생각키웠소.

나는 입이 쓰거워서 머리를 돌렸소 사람이란 비슷한것들끼리 택하기 마련이지. 엉덩이에 뿔난 녀석들끼리말이요. 용석에 대한 좋은 감정은 일시에 사라지고말았소. 나는 그바람으로 갠의 광차예비를 총동원해서 몽땅 광혁에게 안겨주었소. 생산은 마음먹은대로 쪽쪽 풀려나갔소.

난 오래간만에 발편잠을 자려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소. 어쩐지 영옥이가 보고싶어서 그의 방으로 들어갔소. 없더구만. 나는 서운해서 문턱에 걸터앉아 담배를 붙여물었소. 딸이라도 그렇게 아버지마음을 잘 알아주고 위해주는 자식이 어데 있겠소. 앓은뱅이책상이며 책꽂이이며 화장품통이며 무엇이냐 그 이것은 다 귀중하게 느껴졌소.

한쪽구석에 새빨간 천을 메운 수틀과 바느질함이 놓여있었소. 나는 무엇을 수놓는지 그 재간을 보고 싶어서 수틀을 집어들었소.

《충성의 채광일지 !》

이런 글자들이 새겨져있었소. 그 글자들은 금시 눈부신 빛을 뿜는것같았소. 그밑엔 노란 색실을 낀 바늘이 꽂혀져있었소. 어느 소대라는것을 새기지 못한게 분명했소. 나는 빙그레 웃었소. 그거야 뻔하지 않소. 《박광혁소대》라고...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뜨겁소. 하긴 그럴만도 했소. 광혁이네가 이제 두개 소대뭇을 더하니까,

그것도 그들이 맞들고 쟁취한 혁신이 아니요. 나는 그들이 슬그머니 부러워났소. 나도 광혁이처럼 전차운전공을 흘러내긴 했지만 받았다는게 고작 광부용 세수수건으로 특별히 만든 손수건이었었던말이요. 하하하...

그들이 1호광체를 다 때려먹는 날엔 갠의 년간계획도 끝나게 되요. 나는 광혁이와 영옥에게 귀를잡고 절이라도 하고싶었소. 그러니 내가 어찌 가만 있겠소? 지금은 난장에서 정량원으로 어물거리는 옛 전차운전공이었던 로친에게 한상 단단히 차릴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소. 그 상앞에 영옥이를 광혁이와 나란히 앉혀볼 심산이었지. 어쩡소. 기자동무, 내 처사가...

명섭은 빙그레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잔조름히 뜬 그의 눈가엔 마치 떠보는듯한 능청스런 기색이 어려있었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속으로 웃었다. 모든 일을 꼼꼼히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영옥인 분명 용석이와 한짝인데 명섭은 굳이 광혁이라고 우기는것이였다.

《갱장동문 광혁이가 정말 사위감이라고 생각하겠소?》 나는 참지 못하고 넋지시 물었다.

《차, 흥을 깨는군. 다 빠개놓으면 이야기가 되우?》 명섭은 재미있다는듯 빙글빙글 웃더니 말머리를 돌렸다.

《앵, 오래간만에 말을 좀 했더니 목이 다 칼칼하군, 취재를 당한다는게 꼭 <고문> 이라니깐.》

그는 물주전자를 가져다가 주둥이를 입에 대고 한참 꿀꺽꿀꺽 들이켰다. 그리고는 더 값을 올렸다.

《이거 기자동무, 시간이 없겠는데 그만할가? 한번 애길 잘해보자고 했더니 안되겠어. 확실히 채광보다 힘들거던.》

《〈버어리〉가 그민하면 대단하지.》

나는 맛장구를 쳤다.

《허허, 그렇다면 좋고... 자, 간단히 끝냅시다!》 명섭은 시계를 보더니 서둘렀다.

이력저력해서 광혁이가 1호광체를 들쥔내는 날이 왔소. 나는 이른새벽부터 코노래를 흥얼거리며 총화준비를 서둘렀소. 그중에서도 힘을 넣은것은 일을 끝내고 나오는 광혁이네를 본때있게 축하해주는것이였소.

나는 난장에서 일하는 갠종업원들은 물론 가족들과 광산문화회관 나팔수들까지 끌어왔소. 처녀들에게 꽃다발을 준비시킨건 두말할것두 없구... 뭘 아끼겠소. 새 기록을 세우고 갠의 영예를 빛내인 《영웅》들인데 난 일부러 영옥이가 인차를 끌고 가서 그 《개선영웅》들을 실어오게 했소. 그에게도 광혁이의 똑같은 꽃다발을 안겨줄 작정이었소.

갱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었소. 나는 흥이 나서 방금전 통계원이 걸어온 소대들의 채광일지를 보기 시작했소. 나는 광혁이네 채광일지부터 찾았소. 영옥이가 밤을 새우며 한땀한땀 정성껏 수놓은 그 빨간 뚜껑 채광일지말이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채광일지가 두개가 아니겠소. 나는 한 손에 하나씩 들고 번갈아보았소. 곁에는 때가 오르지 않게 얇은 투명비닐을 덧씌웠는데 밑에 있는 글자들은 분명 《리용석소대》와 《박광혁소대》였소.

나는 아안이 빙빙해서 밖을 내다보았소. 기다리기나 했던듯 나팔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소. 광혁이네가 나오는것이였소. 순간 나는 눈이 둥그레졌소. 갠입구에 나타난것은 맨전차뿐이었던거요. 분명 영옥의 전차인데 인차는 없고 그의 곁에는 광혁이 혼자 우뚝 앉아있었소. 놀란것은 나뿐이 아니었소. 모여선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술렁거렸소. 나팔소리도 시들해지다가 푹 멎었소, 꽃다발을 든 처녀들만이 그런대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려는듯 움쭙거렸소. 나는 눈앞이 아뜩해졌소. 소대원들을 다 버리고 단둘이 사람들앞에 버젓이 나타나다니? 이 건 그들의 망신이자 내 망신이었소. 빨리 수습해야 했소. 나는 더 생각할새없이 문을 박차고 달려나갔

소. 그런데 가다보니 전차는 사람들 채 못미처 서는 게 아니겠소. 전차우에 그대로 일어서 광혁이가 운전공에게서 휴대용확성기를 넘겨받더군. 영옥이가 전차에 달고다니며 광혁이네를 몰아대던 그 빨간 색확성기말이요.

기자동무, 그 전차운전공이 누군지 알겠소? 은심이였소! 영옥이와 똑같은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노동화를 신은 은심이말이요. 내가 놀란 가슴을 마쳐 진정하기도전에 광혁이가 사람들에게 말하였소.

《제가 나온것은 꽃다발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꽃다발을 받을것은 용석동무와 영옥동무입니다. 용석동문 제가 자기네 소대맡까지 할수 있게 모든 힘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영옥동무가 우리 소대를 전문적으로 도와주게 했습니다. 다계단발과법도 그가 궁리해내고 영옥동무가 보충정리한것입니다. 이 은심동무도... 그들이 다시 갠으로 돌아오게 해주고... 그때문에 괜히 속을 태우고 우물거리던 저도 정신을 차리고 광산의 멘〈목〉을 열자던 약속을 지키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눈을 꼭 감았소. 그런줄도 모르고 용석이를 오해만했던거요. 그 뜨겁고 아름다운 마음을 보지 못한 내가 무슨 갠장이겠소.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든 관계없이 그는 자기의 걸음을 억세게 걸어왔단말이요.그리고 영옥이, 광혁이와 은심은 나를 아니라 그를 따라가고있었소. 나는 문득 그에게서 아득히 떨어진 자신을 발견하였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아픈 가슴을 비수처럼 찌른것은 광혁의 다음 말이었소.

《...용석동문 새벽에 〈벽〉을 판통했는데 지금 우리 소대들이 붙어서 일할수 있게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동무는 우리 소대와 함께 그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쁨은 아니 목적은 꽃다발이 아니라 단 한가지 당이 요구하는 광석입니다!》

기자동무, 이 순간 나의 심장을 좀 생각해보시우, 광혁인 분명 그들의 목적과 기쁨은 당이 요구하는 광석이라고 했소. 그런데 나는 내가 받는 꽃다발에 습관되어있었소.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광석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치는 그 웅심깊은 마음을 알수 있었겠소. 나는 정신이 버쩍 들었소. 광혁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은심이와 나란히 앉아 다시 갠으로 들어가고있었소. 둘의 얼굴엔 똑같이 밝은 웃음이 꽃처럼 피어있었소. 나는 당장 따라가고싶었지만 우선 모여선 사람들을 일러로 돌려보내야 했소.

얼마후 일을 끝낸 용석이와 광혁이네는 영옥이가 모는 인차를 타고나와 조용히 내렸소. 용석이 곁에 나란히 선 영옥이도 《가시》가 다 빠져버린듯 별로 참해보였소. 그들은 광석우에 핀 나무랄데 없는

한쌍의 아름다운 꽃이었소.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용석이를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판이 있는 둔덕으로 올라갔소. 그들은 현지교시판앞에 경건한 자세로 묵묵히 서있었소. 거기에 새겨진 글을 가슴에 새기는 모양이었소. 이윽고 모두 돌아서서 맞은편산을 바라보았소. 그 산허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광부들의 돌가루물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하신 교시가 집채같은 글씨로 가로새겨져있었소.

《동이 필요할 때마다 동무들을 생각합니다!》

얼마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로 그자리에 오시여 저 교시가 광부들에 대한 당의 믿음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소.

나는 우리 시대 80년대사람들은 자기의 영예가 아니라 오직 당의 영예를 위하여 당의 의도를 받들고 한몸바쳐 일해야 하며 그런 사람들만이 80년대의 기수가 될수 있다는것을 절실히 깨달았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당을 옹호하고 보위하는 성새이고 방패가 아니겠소. 나는 이 진리를 듣기도 하고 말도 하였소.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였소. 용석이처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였단말이요. 나는 이제라도 용석이와 어깨를 결고싶었소. 그러지 않다간 그들에게서 영영 떨어져버리고말것 같았소.

《이보게 용석이!》

나는 소리치며 용석이네가 서있는 그 언덕위로 달려올라갔소. 정말 그때...

명섭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말하는데 복도를 쿵쿵 구르는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달그락 출입문 자물쇠를 열었다.

《어, 벌써 시간이 됐군. 할수 없지.》

명섭은 팔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아쉬운 표정을 짓더니 말을 끊었다.

《에이, 내 얘긴 다요, 이젠 〈궁정인물〉들이나 만나보구려!》

복도에서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야기를 음미해보며 머리를 끄덕이던 나는 당황해났다. 기본 이야기는 들었지만 기자들이 가장 노리는 보충취재를 하나도 못했던것이다. 물어볼 구석이 얼마나 많은가... 다음기회로 미룰수밖에 없었다.

《그래 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웃으며 물었다.

《차렸지요. 용석이와 영옥이, 광혁이와 은심이, 그들 두쌍이 나란히 앉은 큰상을말이요, 노렐 하라니까, 그녀석들이 4중창을 하지 않겠소. 허허...》

명섭은 이젠 정말 다라는듯 손을 책 내젓고는 딸이 번지르한 목덜미를 훔쳤다. 광부들이 들어왔다.

나는 담배를 붙여물고 명섭의 이야기를 되새겨보았다. 기자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기사가 성공하리라라는건 틀림없었다.

# 묘향산에서

박호범

물도 물소리로 끝나  
산도 바위도 끝나  
이제는 향산을 다 보았나 했더니  
국제천선전람관이 나를 부르네

들어서면 하얀 목란꽃  
떨기떨기 붉게 타는 **김일성** 화  
이 세상 하늘아래  
산과 꽃이 다 있네

옥이라 금이라 이름도 천만가지  
세상에 아름다움 여기 다 있고  
따르는 마음 받드는 마음  
축원의 하늘이 되고 바다가 되었네

어버이수령님 은덕이 높고높아서  
세상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이고  
세상이 명산들이 여기 다 모였으니  
아, 향산중의 향산이 너로구나!

## 축 복

신운호

축복하노라  
좋은 날 좋은 때  
꽃과 같이 곱게 피어  
열매같이 무르익어  
쌍을 맺은 그대들

축복하노라  
세상 부러움없이  
새 가정을 맺고  
머나먼 길을 시작하는 그대들을

그대들이 가는 앞길엔  
버들숲 은은한 달빛아래서  
첫사랑 속삭이던 그 밤처럼  
행복의 노래만 넘쳐나기를

그대들의 미소어린 창문가엔  
아름다운 노을만이 비끼기를  
한철에 피고 지는 꽃이 아니라  
한생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 되기를

하지만 사랑의 그 길에는  
실바람 훈훈한 봄날만이 아닌

종달새 우짖는 하늘만이 아닌  
긋은날 긋은비도 있으려니

한 심장보다  
두 심장으로 나누는 피로움은  
가벼워지고  
기쁨은 행복으로 더 커지려니

바라노나 그대들의 사랑  
백년을 언약한 그대들의 마음  
한생 변함없이 샘처럼 맑고  
한생 변함없이 불같이 타기를

때가 오면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되어  
못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그대들처럼 맺은 사랑  
후대들 또 소중히 아낄 줄 알게 되리

축복하노라 그대들의 먼 앞길을  
백발이 없힐 때까지  
오늘의 이 사랑 안겨준  
어머니당을 위해  
한쌍의 붉은 꽃으로 영원하기를 바라노라

# 어 머 니

김석주

손끝하나 다칠세라  
나를 안아 키우고 업어 키울적에  
젖어있던 그 등허리  
  
참대처럼 곳곳이  
꺾이어도 굽힐줄 모르는 아들로 키우려  
젊음을 고스란히 바친 흰 귀밑머리  
  
그 흰것마저 바쳐가며  
다 자란 자식의 걸음걸음

어릴 때처럼 마음조이며 지켜사는 어머니  
  
한생에 두번다시 모실수 없는 어머니여  
이 어머니 사랑에  
내 한오리의 흰머리마저 바친적 있었던가  
  
아 잠못이루어라  
내 나이 들수록  
어머니 그 사랑 귀중함을 알아...

# 아직은 말 못해

김기호

어머니는 오늘도  
나를 불러 선보려 가라지만  
내 가슴에 간직한 사연 어이 알랴  
도시의 그 총각보다  
탄캐는 동무를 마음에 둔줄  
  
어이 알랴  
일터에서 서로 도우며  
나도 몰래 움튼 정  
그 총각과 마주서면  
이 가슴에 물결 출렁임을  
  
아무도 몰라  
석탄산 저너머  
달이 솟던 그 저녁

남모르게 남모르게  
채탄공동무와 속삭인 사연  
  
그 동무가 캐는 석탄이라면  
나 혼자 다 실어내고싶고  
혁신자 그 동무 가슴에  
내가 만든 꽃다발만 안겨주고싶은  
가슴에 타는 이 마음  
  
하지만 말못해  
아직은 말못해  
이해의 석탄 다 캐기전엔  
우리 사연 가슴속에 묻어두자던  
아, 그 약속이 소중한  
아, 그 꿈이 소중한



## 탄 생

(한 외국인야금학자의 수기)

김영철

조선에서는 맑고 아름다운 가을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쾌속으로 달리는 승용차의 차창밖으로는 수많은 도시와 농촌, 황금이삭 설레는 풍요한 들판이 끝없이 흘러가고있었다.

멀리 중근동에서 온 야금학자 모함메드 마쎈니르는 자기가 쓴 《어란상갈철광의 비극》이란 소론문이 들어있는 악어가죽가방을 품에 안은채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어란상갈철광과 함께 보내온 허무한 반생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던것이다.

그의 조국 지중해연안에는 고생대 뼈름기에 바다 화산이 분출되면서 형성된 수억톤의 어란상갈철광이 매장되어있었다. 그것을 가지고 강철을 생산해 보겠다는 남다른 꿈을 안고 야금학자가 된 마쎈니르였지만 강철생산은 고사하고 샛뜨개질로 자기를 공부시켜주신 홀어머니에게 아직 뜨개바늘 한조도 만들어드리지 못했다. 그 자책이 얼마나 골수에 사무쳤는지 어제밤에는 꿈까지 꾸었다. 이란상갈철광에서 뽑은 강철로 뜨개바늘을 만들어 야자수그늘밑에 앉아계시는 어머님께 드리는 행복한 꿈이었다. 너무 기뻐서 어머니도 울고 마쎈니르도 울었다. 문득 잠에서 깨어난 마쎈니르는 꿈에서 본것이 현실에서는 꺼꾸로 나타난다는 못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라 더는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흑진주같이 검은 눈을 지그시 감고 의자등받이에 무겁게 몸을 기대면 마쎈니르의 두툼한 입술새로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파란과 꼭 절랐던 지난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야금학자 모함메드 마쎈니르는 대추가 주렁지는 지중해연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단야공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 모함메드 하심은 멀리 외국에까지 소문난 《셈시르》라는 강철장검을 버려내던 명단야공이었다. 《서우》라는 별명까지 지니고있던 힘세고 결쾌였던 할아버지는 수백년간 오토만제국의 통치하에서 신음하는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무장봉기의 앞장에 섰다가 희생되었다. 그의 아버지 모함메드 에가르도는 본국에서 끌어들이는 강철대신 중근동의 풍부한 자원을 무자비하게 약탈해가는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총파업에 나섰다가 원쑤들의 총탄에 무참히 살해되었다. 아버지는 동지들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었다.

《아, 내 나라 철광석에서 강철을 뽑는것을 보지 못하고 죽자니 눈감을수가 없네... 내 아들은 나처럼

처럼 쇠를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쇠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꼭...꼭 전해주게!》

마쎈니르는 아버지의 비보를 받자 마당가에 서있는 야자수를 불안고 몸부림치며 결심했다. 자기는 꼭 아버지의 유언대로 강철을 만드는 야금학자가 되리라고... 하여 마쎈니르는 어머니가 샛뜨개질로 보내주는 학비로 중학을 졸업했고 s종합대학으로 류학을 떠났었다. 우유배달을 하고 샛집을 지고 뼈속까지 얼어드는 하숙집 다락방에서 하루에 빵 한개와 홍당무 몇개로 끼니를 에워야 했던 시련의 나날, 그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은 식민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슬픔이었다. 유럽의 항구와 철도역들에 산처럼 들이쑤이는 중근동의 《원금》으로 불리우는 질 좋은 목화며 양털, 레몬과 대추를 볼 때마다 식민주의자들의 채찍밑에 신음하는 민족의 고통과 슬픔을 절감했고 그때마다 입술을 깨

물며 학구에 전심했었다. 하여 마침내 류학을 마친 마쎈니르는 오랜 투쟁끝에 독립을 쟁취한 조국에 푸른 꿈을 안고 귀국했었다. 젊은 야금학자에 대한 정부와 인민들의 기대는 컸었다. 그는 곧 강철연구소를 꾸리고 어란상갈철광을 가지고 본격적인 시험생산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어란상갈철광은 철립자가 물고기알처럼 작고 점토와 류황성분이 많기때문에 선광과 제강에서 좀처럼 원가를 맞출수 없었다. 연구소는 점차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되었다.

마쎈니르는 광업과 제강공업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도 찾아다녔으나 어란상갈철광의 특성에 맞는 선광법과 제강법을 찾을수 없었다.

이무렵 정부의 건의에 의하여 유엔경제개발기구에서 파견된 세계의 이름있는 전문가들도 어란상갈철광에서 강철을 뽑을바엔 외국에서 사다쓰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떠나버렸다. 그들중에는 류학시절 마쎈니르의 학위논문집필을 담당지도한 s종합대학의 로교수 라인하르트박사도 들우있었다.

라인하르트는 비행장에 배웅나온 마쎈니르의 축간 얼굴을 도수높은 안경너머로 바라보며 말했다.

《마쎈니르, 너무 상심말게! 제손으로 강철을 생산 못하는 나라가 여기뿐이 아닐세. 물론 제것보다는 좀 비싸지만 외국에서 사다 쓰면 될게 아닌가? 나도 우리 정부에 권고하겠지만 자네네 정부에서 요구한다면 우리 나라에서도 강철을 팔아줄걸세.》

마쎈니르는 값비싼 희생이 없이는 외국에서 단

한톤의 강철도 얻을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묵묵히 서있는 마쎄니르에게 라인하르트교수는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내 충심으로 충고하네만 어란상갈철광에서는 강철을 뽑을수 없다는 내용으로 논문을 꼭 쓰게 ! 후대들에게 자기가 걸어온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설득력있는 논문을 남기는것도 선행학자들의 숭고한 의무라는걸 명심하게.》

마쎄니르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눈앞이 아찔하여 몸가늠을 할수 없었다.

(아,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의 유언과 인민들의 념원을 되새기며 그처럼 피타게 헤치고 넘어온 시련의 고비들이 이처럼 한갓 물거품으로 되고만단말인가?)

마쎄니르는 무서운 변민으로 밤마다 잠들수 없었다. 자기도 조상들처럼 멀지않아 태어날 자식에게 강철이 없는 조국을 넘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것만 같았다.

그는 새벽마다 교외에 있는 농촌들에서 소금에 절인 양고기며 올리브와 채소를 싣고 장마당으로 들어오는 하슬소매의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자기가 또 한밤을 지새였다는것을 의식하군했다. 점점 수척해지는 남편을 위하여 첫 해산이 멀지않은 안해 부안나가 아침마다 락타거리시징에서 사다주는 흰데돌마스(칠면조)로리도 그의 입맛을 돋구지 못했다.

이무렵 그의 강철연구에 큰 기대를 걸고 자금을 대부했던 은행들에선 계약기일에 채무청산을 하지 않으면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통고문까지 보내왔고 많은 학자들과 못사람들이 마쎄니르의 무능력을 조소했다.

하여 마쎄니르는 그들을 리해시키기 위하여 《어란상갈철광의 비극》이라는 소론문을 완성했으나 차마 발표할순 없었다.

원썬들에게 무참히 희생된 할아버지와 아버지, 일생동안 손끝에 피멍이 지도록 샅뜨개질을 하면서 자기를 공부시켜준 어머니앞에서 무서운 죄를 짓는것만 같았다. 그리고 미국놈들을 등에 업고 무고한 아랍인들을 내쫓고 무참히 학살하면서 령토팽창에 미쳐날뛰고있는 이스라엘 유대복고주의자들과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자기 조국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강철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마쎄니르였던것이다.

그가 이처럼 변민하고있을 때 류학시절의 동창생 줄리어스 카말로부터 한장의 편지를 받았다.

《...마쎄니르! 농업과학을 연구하면서 실패만을 거둬들었던 나는 조선전문가들과 함께 아프리카 기후풍토에 맞는 새 농법을 창조하여 력사에서 처음 보는 대풍작을 거두고있네. 대대로 식량이 부족하던 우리 나라는 앞으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나라,

수출하는 나라로 될걸세. 우리는 오랜 세월 남을 위하여 재배하던 코코아나 파인애플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벼와 강냉이를 심고있네.

마쎄니르! 나는 무슨 일에서나 정확한 방법론에 의거할 때만 성공할수 있다는것을 이번처럼 절실히 느낀적이 없었네. 내 자네한테 심중하게 전할 소식이 하나 있네. 지금 조선에서는 풍부한 대용연료를 가지고도 질 좋은 강철을 생산한다는 말이 있네. 마쎄니르, 나는 자네에게 조선방문을 진심으로 권고하네》

그때 마쎄니르가 받은 충격은 컸다.

(대용연료를 가지고 강철을 뽑다니?!)

마쎄니르는 출판물과 방송들에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로 널리 소개되고있는 조선으로 끌리는 호기심을 억제할수 없었다. 하지만 강철공업의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해결 못한 문제를 그 력사가 청소한 조선에서 해결했다는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실험생산에 필요한 막대한 철광석을 싣고 갔다가 조선에서마저 실패한다면 자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것인가. 강철연구는 고사하고 사랑하는 안해와 갓 태어난 자식과 함께 헤여날길 없는 궁지에 영원히 빠지고말것이 아닌가. 안해 부안나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심사숙고할것을 간청했다.

마쎄니르가 이처럼 동요하고있을 때 조선을 방문했던 정부경제대표단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회담과정에 수억톤의 철광석은 있지만 아직 강철생산을 못하여 지장을 받는다는것을 알게 된 조선정부에서는 철광석시료와 함께 전문가를 보내면 실험생산을 적극 도와줄것을 약속했다는 것이었다. 하여 며칠후에는 많은 량의 어란상갈철광시료가 지중해의 항구를 거쳐 조선의 고향으로 발송되고 마쎄니르도 조선방문의 길에 올랐던것이 다...

넓고 푸른 강기슭을 따라 한동안 달리던 승용차는 푸른 송림속에 빨간 단풍이 점점이 박힌 높고 낮은 산밭을 누비며 은빛 고압선이 아득히 뻗어간 깊은 골짜기에 접어들었다. 옆좌석에 틀지게 앉아 있던 조선의 대외경제사업분야에서 일하는 박혁진이 마쎄니르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마쎄니르선생!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합니까?》

그제서야 마쎄니르는 얼굴을 붉히며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아닙니다. 저는 조선의 가을경치에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혁진에게 차마 꿈이야기를 할수 없었던것이다.

박혁진은 등심한 얼굴에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다.

《마쎄니르선생!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선생의 우리 나라 방문이 꼭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쎄니르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저오기 흥분된 눈길로 차창밖을 쳐다보았다.

조선정부에서 실험대상지로 정해진 큰 광산과 제철소가 있다는 《天》 지구가 멀지않아 나타날 것이라는 예감이 마쎄니르를 긴장시켰다. 농촌마을들이 지나가고 산업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수많은 굴뚝들에서 연기가 솟구쳐오르고 회전로 불빛이 이글거리는 제철소구내가 바라보였다.

《여기가 최종시험생산을 하게 될 제철소입니다.》

박혁진이 달리는 차창밖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마쎄니르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자기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할수 있는 제철소구내를 주의깊이 살펴보았다. 결보기엔 류별난것이 없었다.

제철소를 지난 승용차는 멀지않은 《天》 광산을 향하여 좀더 달리였다. 어란상갈철광에서 강철을 뽑자면 우선 광산에서 선풍작업을 거쳐야 했기때문이었다.

X X

미리 전화편락을 받은 광산지배인이 손님들을 기다리고있었다. 후리후리한 키에 눈빛이 서글서글한 지배인은 마쎄니르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었다.

《먼길에 수고했습니다. 귀한 손님을 만나서 참으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서로 좋은 경험들을 교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마쎄니르에게는 처음 대하는 지배인의 허심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이윽고 지배인은 마쎄니르를 자기 방으로 안내했다. 광산구내에 꼭 들어찬 크고 웅장한 건물들에 비하여 단층집에 자리잡은 지배인의 방은 너무나 평범하고 검소했다. 다만 큰 책상에 주련이 놓인 여러대의 전화기며 T자형으로 배치된 긴 응접탁과 고급안락의자들만이 방임자의 크고 중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해주는듯싶었다. 지배인이 손님들에게 의자를 권하자 몸매가 호리호리한 통계원 처녀가 차와 과일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한개씩 맛보십시오! 우리 광산과수원에서 딴 것들입니다.》

지배인은 손님들앞으로 과일그릇을 밀어놓았다.

《아니, 쇠돌개는 강산에서 과수원도 가지고있습니까?!》

마쎄니르가 놀라움을 표시하자 지배인은 빙긋이 웃었다.

《물론 주변 농장에도 큰 과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부들과 아이들에게 아무때나 값죽게 과일을 먹이자면 제것이 있는것만 못합니다. 조선속담에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만량이 제 주머니에 있는 한냥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답니다.》

《아, 옳은 말씀입니다. 정말 신룡한 속담입니다.》

마쎄니르는 조선에서는 자력갱생의 구호가 국가정책뿐아니라 한개 기업소의 후방생활조직에까지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있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잠시후 박혁진이 사업상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지배인동무! 요사이에도 생산이 잘 됩니까?》

《예, 지금 우리는 10월 10일전으로 년간계획을 완수하자고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습니다.》

그 말에 마쎄니르는 저오기 긴장되였다. 10월 10일이라면 앞으로 보름밖에 남지 않았던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공교롭게도 제일 바쁜 짬에 찾아온게 아닌가?!)

마쎄니르는 꼭 이번 일을 망칠것만 같아 마음이 불안했다.

마쎄니르에게는 문득 몇해전 북유럽의 한 철광산을 찾았던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다른 나라에서 우주를 정복할 때 자기들은 지하를 점령하겠다고 장담하는 그 나라 철광산을 찾아갔을 때는 북극의 백야가 계속되는 계절이였다. 그곳 광산 화물역이며 선풍장구내의 곳곳에 흩어져 못사람들의 구두발에 짓밟히고 비물에 흘러내리던 철광석시료며 《그 나라에 돈이 얼마나 많은진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에선 벽돌원료로도 쓰지 않을 이런 진흙에서 강철을 뽑아보겠다는 그 꿈이 부럽습니다.》 라고 로골적으로 비웃던 그곳 선풍주임의 하마같은 얼굴이며 계약기일을 3년이나 지연시키기도 선풍실험비로 엄청난 외화를 요구하던 일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했다.

잠시 착잡한 생각에 잠겼던 마쎄니르는 용기를 내어 지배인에게 물었다.

《우리가 바쁜 때 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시험선풍은 언제쯤 예견하십니까?》

《언제쯤이라니요?! 우리 동무들은 벌써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니, 정말입니까?》

마쎄니르는 년간계획을 앞당기는 것처럼 바쁜 가위에도 다른 나라의 시험선풍까지 착수했다는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마쎄니르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 지배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먼길에 피곤하실텐데 오늘은 꼭 쉬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우선 광산을 구경하고싶습니다.》

마세니르는 보고들은 모든것이 감동을 자아내는 이곳 조선에서 차려진 1분1초를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았다. 광산에 온 기회에 선광장뿐만 아니라 갱막장과 광산의 모든 공정을 빠짐없이 돌아보고 싶었다.

잠시후 마세니르는 지배인을 따라 갱안으로 들어갔다. 전차와 승강기를 갈아타며 수직갱을 거쳐 막장에 도착한 마세니르는 상상도 못했던 지하막장을 보고 놀랐다. 아치형으로 피복된 넓고 시원한 운반갱도, 밝고 부드럽게 빛을 뿌리는 무수한 태양등과 조명등, 대형자동차에 쇠돌을 실어주는 굴차기들, 푸짐한 음식상이 마련된 갱내 영양제식당... 마세니르는 못내 감탄하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짊어가는 의문을 풀길이 없었다. 이처럼 요란한 지하막장을 차려놓고 깊은 땅속에서 쇠돌을 캐자면 원가타산이 도저히 맞을것 같지 않았던것이다.

마세니르는 굴차기의 동음이 요란한 채굴막장을 떠나 운반갱도에 나서자 지배인에게 물었다.

《지, 지배인선생 ! 얼핏 타산해도 로천채굴보다 원가가 더 들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웁습니다. 처음엔 채굴원가가 몇곱절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광산을 폐강시킬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세니르는 호기심을 가지고 지배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배인은 잠시 명상에 잠겼다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광산을 폐광시키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광산을 찾아주시실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광산에 오신 수령님께서서는 막장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비록 이곳 갱막장에서 캐는 철광석이 로천채굴보다 원가가 더 먹는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 가서 사오는것보다는 값이 낫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철광석을 사오자고 해도 부대조건이 없인 주겠다는 나라가 없는데 제 나라에 무진장한 철광석을 놓고도 원가가 좀 더 먹는다고 췌버려서야 되겠는가,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버럭돌 한개도 아낄 줄 알아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을 들수 없습니다.》

지배인은 자책어린 표정으로 잠시 말허리를 끊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날 수령님께서서는 지금까지 원가타산이라 하면 그저 수지나 맞추는것으로 생각하고있던 우리 일군들에게 인민이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에선 원가타산도 리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적방법이 아니라 인민의 리익을 중심에 놓고 우리 식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비록 여기서 캐는 쇠돌 값이 좀 비싸다고 해도 그것으로 더 많은 강재와 기계를 만들어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농사를 잘

하면 그런 손실쯤은 얼마든지 보상되고도 남는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기술혁명을 하면 원가를 얼마든지 낮출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도까지 밝혀주시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책에서도 본적없고 들은적이 없는 새로운 식의 원가타산, 리윤추구가 아니라 인민의 리익을 중심에 놓고 원가문제를 고찰해야 한다는 그 위대한 사상에 마세니르는 경탄을 금치 못했다.

조선에서는 이처럼 채굴조건이 불리한 깊은 막장에서도 쇠돌을 캐고있는데 자기들은 광활한 대지에 깔려있는 무진장한 철광석을 놓고도 강철때문에 고충을 겪고있다는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이때 운반갱도 한끝에서 호각소리가 울리더니 쇠돌을 가득 실은 전차 한대가 푸른 불꽃을 날리며 달려왔다. 운전칸안에선 머리에 파란 머리수건을 쓴 처녀가 그들에게 눈인사를 보내며 지나갔다.

X X

이깎나무술에 자리잡은 크고 웅장한 선광장에선 이곳 로동자들이 권양기에 실어올리는 어란상갈철광 포대를 벨트콘베아옆에 차곡차곡 받아쌓고있었다.

흰 실험복을 입고 종이봉투에 시료를 채취하던 키가 늘씬한 처녀기사가 마세니르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오십시오 ! 선광기사 김순옥입니다.》

희맑은 살결에 눈빛이 그윽한 녀기사는 마세니르와 인사를 나누었다.

《감사합니다. 모함메드 마세니르입니다. 우리때문에 수고하십니다.》

《괜찮아요. 벼들을 위한 일은 힘든줄 모른답니다.》

녀기사는 얼굴을 감뿔고 물들이며 밝게 웃었다.

지배인이 마세니르에게 순옥기사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순옥동문 대학을 갓 졸업했지만 벌써 저품위광석의 다량선광법을 연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해서 이번 시험선광을 순옥기사동무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마세니르는 애어린 순옥기사의 얼굴을 기대어린 눈길로 쳐다보았다.

《아이참, 전 아직 촛내기랍니다. 제가 오히려 많은것을 배우자고 합니다.》

순옥기사는 얼굴을 더욱 붉히며 몸둘바를 몰라했다. 이윽고 마세니르는 순옥기사의 안내를 받으며 선광장을 돌아보았다. 최신설비들로 꾸러진 선광장은 훌륭했다. 또한 마세니르는 애끓다고만 생각했던 순옥기사가 선광기술의 세계적추세에 밝고 자기의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있는데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마세니르는 이곳 선광장에 토 해기

가 없다는것을 알자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 나라 철광석과 같이 진흙성분이 많은 광석을 처리하자면 우선 광석에서 흙을 씻어내는 토해설비가 있어야 할것이 아닌가. 토해기도 없이 어란상갈철광에서 품위높은 정광을 잡아보겠다는 너기사의 순진한 열정이 폭풍이 휘몰아치는 아득한 광야에서 한점의 모닥불을 피워보려는것처럼 무모한 일로 느껴졌다. 마쎈니르의 얼굴에 그들이 비끼는것을 본 순옥기사는 말했다.

《우리 광산에선 갱내채굴만 하기때문에 토해기를 쓰지 않습니다. 제일 큰 애로는 우리가 아직도 어란상갈철광의 특성을 잘 모르는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에선 아무래도 선생님의 방조를 받아야겠어요.》

마쎈니르는 이 순간 순진하고 열정적인 순옥기사에 자기의 논문 《어란상갈철광의 비극》을 보여주고싶은 생각이 피곳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보인적 없는 논문을 처음 만난 외국의 너기사에게 선뜻 내놓게 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순간 마쎈니르는 자기를 돕기 위해 그토록 애쓰는 너기사에게 그것을 숨기는것은 량심을 속이는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후이면 헤어지게 될 너기사에게 논문을 보였다고 크게 체면짜일 것도 없을것이다.

순옥기사는 그 논문을 읽으면 어란상갈철광의 특성을 알게 될것이며 자기가 무엇때문에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며 이처럼 먼길을 걷고있다는것도 리해할것이다. 논문을 읽고 자신이 없으면 시험선광에서 손을 뗄것이다. 공연히 안될 일을 가지고 남을 고생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 마쎈니르는 드디어 순옥기사에게 논문을 보여야겠다고 결심했다. 참으로 운명은 기구한것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보인적 없는 그 논문을 처음 만난 조선의 너기사앞에 내놓게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잠시 주저하던 마쎈니르는 순옥기사에게 말했다.

《순옥선생! 나에게에는 어란상갈철광에 대하여 영문으로 쓴 발표하지 않은 소논문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험생산에 앞서 한번 읽고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 선생님에게 그런 논문이 있는줄은 몰랐었어요.》

순옥기사는 기뻐하면서 마쎈니르의 손에서 것처럼 사연많은 논문초고를 받아 그 무슨 소중한 보물처럼 귀중히 간직했다.

그날 저녁 광산지배인은 마쎈니르와 박혁진참사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 오래동안 헤어졌던 친지를 만난듯 반갑게 대해주는 지배인네 집에서 인상깊은 환대를 받고 숙소로 돌아왔지만 마쎈니르는 밤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배인과 순옥기사를 비롯한 이곳 광부들의 성의는 고마웠으나 어떤

지 실험작업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 혹시 이곳 광산에서 정광생산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제철소에서의 제강실험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무겁고 답답했다.

밤하늘에선 못별들이 반짝이고 정원수 설레는 창밖에선 귀뚜라미가 울고있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맨발 밟고 뛰어다니던 고향집 토벌밑에서도 울었고 시련 많던 류학시절 하숙집 널마두밑에서도 울었다. 귀뚜라미울음소리는 마쎈니르에게 자기가 어란상갈철광과 함께 참으로 멀고도 먼길을 걷고있다는 서글픈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그와 함께 걸어야 할 길은 또 얼마일가.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류학시절에 읽은 외국작가의 글이 떠올랐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비애를 극복할 인간의 생에 대한 욕망 만세!》

마쎈니르는 이 글을 몇번이나 혼자 되뇌이였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에 생긴 로파심때문에 내가 현실을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대하는것이 아닌가. 마쎈니르는 스스로 자신을 위안하며 은하수 흐르는 남쪽하늘가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했다. 광산마을 어데선가 은은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듣는 선율이었으나 마치 온 우주를 한품에 껴안은듯 폭넓고 부드러운면서도 역센 결의와 신념을 가다듬게 하는 승엄한 음악이었다. 마쎈니르는 후에야 그것이 조선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향가》의 선율이였다는것을 알았다.

## X

지심을 울리는 새벽 발파소리, 선광장에서 울리는 요란한 기계소리, 렬차의 기적소리로 광산마을의 새 아침은 들끓었다. 오늘부터 마쎈니르는 순옥기사를 비롯한 이곳 연구집단과 함께 어란상갈철광의 본격적인 실험선광에 착수하게 된다. 선광실험이 빨리 끝나야 제철전소에서 제강실험을 앞당길수 있었다. 마쎈니르는 우선 순옥기사를 만나 자기의 논문에 대한 의견부터 듣고싶었다.

평양과의 전화련락때문에 박혁진참사는 지배인실에 남고 마쎈니르는 순옥기사가 일하는 선광실험실을 찾았다. 선광장 가까이에 있는 실험실 화단에는 사르비아꽃들이 가을아침 찬이슬을 맞아 더욱 생기를 띠우고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실험실안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손뼉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쎈니르가 손기척을 하고 방안에 들어서니 손에 든 광석덩어리를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순옥기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방금 찾아가려던 참인데 이렇게 오시게 했군요. 어서 앉으세요.》

순옥은 마쎈니르에게 의자를 권했다. 마쎈니르는 호기심에 찬 눈길로 순옥기사가 손에 든것을 쳐다

보며 물었다.

《무슨 보물을 가지고 그렇게들 기뻐합니까?》

《이건 황철광이랍니다. 이 애들이 이걸 들고와서 여기에선 강철을 못뽑는가고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너희들이 자라서 기사가 되고 박사가 되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강철을 뽑을수 있다고 말해줬더니 너무들 좋아서 웃고 손뼉까지 치지 않겠어요.》

순옥기사는 옆에 서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애정이 함뻍 어린 눈길로 쳐다보며 말했다.

《정말 좋은 이야기를 했었군요.》

《저는 아이들의 기특한 마음때문인지 이 황철광도 귀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마세니르는 쓸수 없는 광석을 놓고도 저토록 흥분하는 순옥기사를 새삼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순옥기사가 낯선 외국사람과 자유롭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신기하게 듣고있던 아이들이 꾸벅꾸벅 인사들을 하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이윽고 순옥기사가 책상서랍에서 마세니르의 논문을 꺼내놓았다.

《얼마나 흥미있게 쓰셨는지 밤이 새는줄도 몰랐어요.》

《아니, 이것때문에 밤을 새웠단말입니까?》

마세니르는 그제서야 순옥기사의 눈에 가는 피발이 어려있는것을 보았다. 허나 그의 온몸에선 젊음과 생기가 약동하고있었다.

《저는 이 논문에서 어란상갈철광의 특성만이 아니라 여기에 깃든 그 나라 인민들의 피땀한 념원과 선생님의 뜨거운 사랑을 읽었어요. 전 정말 여기에 이렇게까지 깊은 사연이 있는줄은 몰랐어요.》

순옥기사의 눈빛에는 뜨거운 정이 어려있었다.

《...》

마세니르는 자기의 심정을 그토록 리해해주는 순옥기사에게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순옥기사도 피로운 눈길로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한숨을 짓더니 떨리는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 저는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중학 시절에 쉼스퍼의 〈오셀로〉를 읽던 생각이 나서 온밤 잠을 이룰수 없었어요.》

《허, 그렇습니까? 하긴 이것도 하나의 큰 비극이지요.》

마세니르는 순옥기사앞에서 대범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으나 가슴에 차오르는 걱정을 누를길이 없었다. 이 논문을 쓸 때의 피롭던 나날이 너무도 생생히 떠올랐던것이다.

《선생님은 논문에서 외국학자들의 견해들도 레증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선생님처럼 어란상갈철광을 사랑할수 있겠나요. 선생님의 피눈물에 젖은 이 광석도 그들에게 한개의 버럭처럼 보였을거예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만약 이 논문을 발표했다면 후대들은 두고두고 선생님을 원망하고 비난했을거예요.》

순옥기사의 눈에는 이슬이 고이고 입술은 가늘게 떨리었다. 마세니르는 자기의 논문을 읽고 순옥기사가 이토록 흥분할줄은 차마 몰랐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이아고의 피임에 넘어가 데스데모나를 제손으로 죽인 오셀로처럼 외국학자들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어란상갈철광을 배반했단말인가!)

하긴 누가 무슨 비난을 한데도 대답할 말이 없었다.

마세니르는 무슨 환각에 사로잡힌것처럼 눈앞이 얼른거리고 이마에선 식은땀이 흘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옥기사가 《제가 공연한 말씀을 드려서 선생님을 괴롭혔나보군요.》하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닙니다. 저에겐 순옥선생의 솔직한 그 말씀이 따뜻한 위안보다 몇갑절 고맙습니다.》

마세니르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얼굴에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렇다면 저도 기쁩니다.》하고 순옥기사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이야기했다.

《선생님은 논문에서 이렇게 썼지요. 〈...물론 어란상갈철광에서도 강철을 뽑을수 있다. 아니, 어란상갈철광만이 아니라 현무암에서도, 그리고 철성분을 가지고있는 물질이라면 그 어디서나 강철을 뽑을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면 한그람의 강철을 위하여 수많은 황금을 바쳐야 한다.

바로 여기에 어란상갈철광의 비극이 있다!〉라고말이에요.》

마세니르는 벌써 자기의 논문을 뜯금으로 외우는 순옥기사의 열정에 타는 눈동자를 파시 놀라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지금까지 많은 외국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상대해왔지만 순옥기사처럼 자기 나라 철광석을 귀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보지 못했었다.

《저는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것처럼 많은 황금이 없이도 어란상갈철광에서 우선 품위높은 정광을 잡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순옥기사는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아직도 제도잉크냄새가 풍기는 도면을 꺼내놓았다.

《한번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마세니르는 자기의 논문을 읽고 도면까지 그리노라고 밤을 지새운 순옥기사의 얼굴에서 점도록 눈길을 땔수 없었다.

이윽고 도면을 받아들고 주의깊게 들여다보던 마세니르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도면에는 어란상갈철광의 특성에 맞게 갈철선광법과 자철선광법의 두가지 원리를 배합한 대담하고 기발한 선광법

이 반영되어있었던것이다. 이것은 난생처음보는 선팡방법이었다. 지금까지 마쎄니르가 다녀 본 수많은 선팡장들에선 갈철선팡이 아니면 자철선팡법 하나씩만을 기본으로 하고있었던것이다. 그리고 어란상갈철팡에 맞는 새로운 선팡방법을 찾아주기 위해서 애쓴적도 없었다. 하나 다음순간 마쎄니르는 실망하고말았다. 마쎄니르는 도면을 가리키며 순옥기사에게 말했다.

《순옥선생의 심의는 고맙지만 생산이 지금처럼 바쁜 때 이런 토해기와 강자력자선기는 갑자기 어데서 구합니까? 그리고 이처럼 많은 배관공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승인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자 순옥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있게 말했다.

《아닙니다. 꼭 승인될거예요. 우리 기업소의 힘으로 안될것은 박혁진동지가 국가에 제기해서라도 꼭 해결해줄거예요. 인제 두고보세요. 벋들을 돕는 일인데 이보다 더 큰 요구도 해결될거예요.》

너무도 자신만만한 순옥기사의 말에 마쎄니르는 아연해지고말았다. 한개 기업소의 평범한 너기사가 이처럼 대단한 설계를 내놓고도 그 실현을 추호도의심치않는 그 신념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다. 다만 놀랍고 부러울뿐이었다.

그날저녁 지배인실에서는 긴급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는 지배인과 박혁진참사, 과학원에서 파견된 전문가들과 순옥기사를 비롯한 기업소의 기술지들이 참가했다. 협의회에서는 강자력자선기를 과학원에서 비행기로 실어올데 대한 문제와 순옥기사의 제의대로 다계단 선팡을 위한 배관망공사문제는 쉽게 합의되었으나 토해기문제때문에 논의들이 분분했다. 것처럼 큰 설비를 당장 만들기도 어려웠고 서선지구의 갈철팡산들에서 기차로 실어오자고 해도 오랜 시일이 걸릴것이다.

오래동안 맨 앞자리에 앉은채 골똘한 심각에 잠겨있던 순옥기사가 양복치마자락을 내려슬며 조용히 일어섰다.

《저는 생산에 다소 영향이 있어도 현재 있는 대형마팡기 한대를 토해기로 돌려쓸것을 제기합니다.》

박혁진참사와 자리를 같이하고 회의진행정형을 눈여겨보던 마쎄니르는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생산이 바쁜 때 배관망공사만해도 그런데 대형마팡기까지 떼여낸다면 큰 선팡장에서 웅근 한계통의 생산이 죽고말것이다. 회의장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지배인과 참사의 얼굴에도 신중한 표정이 질게 어리여있었다. 방안에서는 오래동안 숨가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지배인이 큰 손으로 책상을 소리나게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벋들을 돕는 일이라면 우리 동무들이 꼭 해낼

겁니다. 생산도 해내면서 토해작업도 동시에 보장할수 있을겁니다. 예비는 그들의 심장속에 있으니까요.》

순간 마쎄니르는 눈앞이 확 흐려졌다. 마치 시간마저 흐름을 멈춘것 같았다.

마쎄니르는 순옥기사의 아름다운 눈동자에 금시 맑은 이슬이 쏘이는것을 보았다. 마쎄니르는 그가 어리다고 실망했던 자신의 실책을 뼈저리게 뉘우쳤다.

× ×

며칠후, 그간 몇차례의 곡절은 있었으나 높은 정상품위와 실수률을 보장하는데 성공한 마쎄니르는 정팡을 싣고 이웃 제철소로 자리를 옮겼다.

틀진 체격에 귀밑머리가 희끗한 제철소지배인이 마쎄니르를 현장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조업한지 얼마 안되어 아직 빈 구선이 많습다.》

《아닙니다. 모든것이 깨끗하고 훌륭합니다.》

마쎄니르는 진정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원료직장에 들어선 지배인은 알빛은 기계에서 흘러가는 콘베아우에 떨어지는 새까맣고 동글동글한 작은 알갱이들을 한줌 집어들었다.

《우린 이것을 원료로 해서 한공정 더 거친 다음에 전기로에 넣어서 강철을 뽑는답니다.》

《?!》

마쎄니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전로에서 나온 쇠물을 직접 전기로에 넣는다는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마쎄니르가 다녀본 유럽의 제강소들에서도 회전로를 쓰고는 있었다. 그러나 덩어리 광석을 주원료로 하는 그런 제강소들에선 생산과정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가루철을 회전로에 넣어 립철을 만든 다음 그것을 다시 용팡로에 넣어 선철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제강로에 넣는 식으로 강철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 가루철제강에서 자연히 원가가 많이 먹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덩어리광석이 흔한 그 나라들에선 이런것쯤 크게 상관하지 않았다.

하나 어란상갈철팡은 가루철만 가지고 강철을 생산하자면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원가를 날출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선 용팡로공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강로에 넣는다니 마쎄니르는 그처럼 찾아헤매던 성공의 열쇠를 방금 찰것만 같은 예감에 가슴을 들먹였다. 그러나 다음순간또하나 큰 의문이 검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회전로에서 나온 아직 류황성분이 많은 쇠물을 어떻게 직접 제강로에 넣는단말인가?)

필경 이곳에서 생산된 강철은 질이 그닥 좋을것 같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의문은 회전로에서 나온 쇠물이 곧 장 탈류로에 들어가 류황성분을 제거한 다음 식지 않은채로 전기로에 들어가 질좋은 강철이 되어나오

는것을 보고야 완전히 풀렸다.

(아, 바로 이것이다 ! 내가 반생을 찾아헤맨것이 바로 이런 제강법이 아닌가?!)

마세니르는 지배인의 손목을 잡고 덩석 끌어잡으며 흥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배인 선생님 ! 훌륭합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하고 마세니르는 흑진주같이 검은 눈을 슴뻑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공업력사가 청소한 조선에서 어떻게 이런 제강법을 연구할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지배인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랜 기간 일제의 통치말에 신음하던 우리 조선에서도 무엇보다 제일 필요한것이 강철이었습시다.》

지배인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강철문제를 해결하자면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와 연료를 가지고 우리 손으로 강철을 뽑아쓰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국물이 든 사대주의자들은 우리 힘만으로는 안된다고 우는 소리를 했습시다.》

《...?》

마세니르는 바짝 긴장된 눈길로 지배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국가가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사대주의자들을 엄하게 타매하시면서 우리는 남이 하는 방법만을 본따지 말고 우리 나라의 원료와 연료조건에 맞게 우리 식 강철을 생산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었습시다.》

순간 마세니르의 눈앞에서는 번개같은 섬광이 번쩍했다. 자기가 무엇때문에 그처럼 크나큰 실패와 환멸 속에 모대졌는가를 깨달았던것이다.

뉴톤은 땅우에 떨어지는 사과를 보는 순간 만유인력법칙의 실머리를 잡아쥐고 온 세상을 향하여 환성을 질렀다고 한다.

그러나 마세니르는 인생전환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이 순간 합성이 아니라 신음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떨구고말았다.

(나는 순옥기사가 말한것처럼 이야기의 궤도에 속hook된 오셀로와 같이 자기의 넋이 없이 살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란상갈철광에서 강철을 뽑을수 없다고 한 그들속에는 신생독립국가의 발전을 방해한 식민주의어용학자들도 있었을것이 아닌가. 자기 나라 실정에도 맞지 않는 유럽식제강법에만 매달려 허무한 반생을 낭비한것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마세니르의 흑진주처럼 크고 검은 눈동자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머리속에는 갱막장에서 들려주던 광산지배

인의 인상깊은 이야기며 순옥기사가 내놓은 대담한 선광법, 전혀 해결될것 같지 않던 토해기대신 마광기를 돌려쓰던 일들이 영화의 화면처럼 떠올랐다. 마세니르는 아무리 자기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비상한 재능을 지닌 학자도 제 힘을 믿고 자기 식으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지 못할 땐 조국과 시대 앞에 참담게 복무할수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조국에 들어가면 석유의 어란상갈철광이 많은 자기 나라 특성에 맞는 새 제강법을 연구하고 그 물질속에 자기의 논문 《어란상갈철광의 비극》도 깡그리 불태우리라 마음다졌다. 지금까지 마세니르는 실패한 고통을 안고 해저무는 황혼길을 방황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희망과 신념을 안고 바야흐로 동터오는 새벽길을 걸어가는 심정이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드디어 어란상갈철광에서 잡은 정광으로 첫 쇠물을 뽑는 날이 왔다.

이날 광산지배인도 순옥기사도 시간을 내여 출강시험에 참가했다.

이윽고 조종실 텔레비죤화면에 최종 분석수치가 나타나자 제철소지배인이 마세니르에게 출강종을 안겨주었다.

《마세니르선생 ! 그처럼 고대하던 첫 출강인데 출강종소리를 힘껏 울리시오.》

출강종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친 마세니르는 솟구치는 격정을 참을수 없었다.

《마세니르선생 ! 어서 출강종을 울리십시오!》

박혁진참사도 광산지배인도 순옥기사도 흥분된 목소리로 마세니르에게 권고했다.

《땡땡땡》 드디어 마세니르가 울린 출강종소리는 첫아들의 탄생을 알리는 합성처럼 드넓은 용해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오래오래 울려퍼졌다. 뒤이어 용해장 여기저기서 《출강이다!》 《출강!》 하는 요란한 웨침소리가 울리고 용해공들이 전기로의 출강구를 활짝 열어젖혔다. 순간 거대한 섬광이 번쩍하더니 하얗게 익은 쇠물이 출강담비에 불보라를 일으키며 폭포처럼 쏟아져내렸다. 용해장 안에서는 《성공이다!》 하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순간 크나큰 감격에 휩싸인 마세니르는 자기 도 모르는사이에 《김일성주석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고 또 불렀다.

(아, 얼마나 바라고바다던 순간인가 ! 이것은 나의 조국에 첫 강철이 탄생하는 력사적순간이다! )

마세니르의 가슴속에서는 끝내 격정의 파도가 터지고야말았다. 마세니르는 《으흑-》하고 몸을 떨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는 언젠 사나이의 쇠물보다 뜨겁고 피보다 진한 값비싼 눈물이였다. 그것은 갱생하는 조국의 대지를 불안고 몸부림치는 한 민족의 환희의 눈물이였다. 두 지배인과 박혁진참사, 순옥기사는 물



론 용해장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마쎄니르를 축하해주었다.

뒤이어 어란상갈철광에서 뽑은 질 좋은 강철로 여러가지 규격의 철판과 산형강과 배판과 레루건본품을 만들어 그의 조국으로 발송해주었다.

×

마쎄니르가 조선을 떠나는 날 아침이었다. 비행장에 배웅나온 박혁진은 정성껏 포장한 크지 않은 물건을 마쎄니르의 악어가죽가방에 넣어주었다. 풀어보니 그안에 아침해빛에 은백색으로 반짝이는 뜨개바늘 한조가 들어있었다. 순간 마쎄니르의 눈앞에는 조선에 온 첫날밤 꿈에 보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크나큰 격정에 휩싸인 마쎄니르는 펄리는 손으로 뜨개바늘을 만지고 또 만지었다.

(어머니 ! 뜨개바늘입니다. 수백년간 버림받던 우리 나라 철광석에서 뽑은 강철로 만든 뜨개바늘입니다 !)

마쎄니르는 박혁진참사의 손을 잡고 오래동안 놓지 못했다.

《박혁진선생 ! 우리 나라에 꼭 한번 오십시오 !

그때에는 새로 생긴 제철소와 홀라즈(강철)라는 이름을 가진 나의 아들을 보게 될것입니다.》

《홀라즈!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마쎄니르는 오래전부터 아들이 태어나면 꼭 《홀라즈》라고 부르고싶었다. 그러나 희망과 기원으로만 부르기에는 조상대대로 너무나 많은 피눈물이 스배인 값비싼 이름이었던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그 이름을 떳떳하게 부르게 되었으니 그의 가슴은 마냥 부풀어올랐다. 마쎄니르는 감격어린 눈길로 남쪽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홀라즈! 멀지않아 태어날 나의 아들아 ! 이날을 영원히 기억하자! 오늘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품속에서 우리 조국에 첫 강철이 태어나 너의 이름이 강철로 빛나고 이 아버지가 주체의 뗏을 지닌 새 인간으로 태어난 날이라는것을 !》

이윽고 멀리 중근동에서 왔던 야금학자 모함메드 마쎄니르를 태운 비행기는 그의 조국을 향하여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다. 조선의 맑게 개인 가을 하늘에선 그의 앞길을 축복해주는듯 금빛해살이 찬란한 빛을 뿌려주고있었다.

## 전적지를 걸으며

리일복

그립던 옛 고향을 찾은듯

처음 오는 사람들도

다정하고 친근히 바라보는

이 숲 이 꽃 이 맑은 물...

한포기 들쭉나무도

못잇을 사연 뜨겁게 들려주고

한송이 진달래도

목메는 감격의 이야기 전해주는

백두밀림 향일의 전적지

거울앞에 제모습 비쳐보듯

누구나 이 길을 걸으며

자기의 량심을 비쳐보고

누구나 이 길을 걸고나면

새 마음 지닌 새 사람 되거니

마음의 때를 씻는

참된 삶의 불이 꺼짐없이 타오르는곳

찾아올 때마다 가슴가득

새힘과 활력을 안겨주는곳

아 혁명전적지

세월이 흐를수록

여기서 벌어진 일 옛일로 되고

여기는 옛 고장된다 하여도

오는 세월에 새 뜻 새힘만을 안겨주는

여기는 새곳, 새 생각의 고향이여라

## 네바강기슭에 꺼지지 않는 불길

김용원

봉화가 타오른다. 동녘이 희붉해진 새벽녘처럼 초롱초롱 별무리들이 깜박이는 우중충한 밤하늘아래 붉은 봉화가 활활 타오른다.

비바람, 눈보라가 휘몰아쳐와도 언제나 머리위에 별처럼 꺼질줄 모르고 유난히 밝고 세차게 타번지는 봉화를 볼 때마다 나는 봉화와 인간의 삶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인간의 삶과 봉화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봉화는 왜 지펴올리는가. 어째서 인간이 사는 이 땅우에 우주의 등불마냥 밝게 지펴올리고있는가?

흔히 어떤 사람들은 봉화를 지피는거야 어떤 사상과 지향, 시대와 력사에 길이 남길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서가 아니겠는가고 이렇게도 말하고있다.

봉화는 어떤 사상과 지향, 력사에 길이 새겨넣을 사건을 상징하고있다면 영웅의 분묘나 무명전사의 분묘앞에 성화를 지펴올린것은 혁명렬사들이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세운 위훈을 전하거나 그것을 추억하자는데 있겠는가?

봉화나 성화를 지펴올리는것은 결코 어떤 사상과 지향, 위대한 사변과 인간의 위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후세에 전하거나 추억의 계시물로 되게 하는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위대한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는 삶에 대하여 보라 깊은 뜻을 상징하려함일것이다.

봉화를 두고 생각할 때면 네바강기슭에 유정하게 안겨오던 꺼지지 않는 성화가 감회깊이 회상되곤 한다.

나는 지난해 당의 배려에 의하여 조선작가대표단 단장으로 소련을 방문한바있다.

그때에 감회깊은 인상가운데서도 늘 내 가슴에 뜨겁게 안겨오는것은 혁명의 성지 레닌그라드의 네바강기슭에 있는 무명전사의 분묘앞에서 타오르는 성화의 불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소련인민은 레닌주의기치밑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국내반동세력의 반항을 물리치고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사회주의건설의 초행길을 선창으로 개척하였으며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자기 조국을 오늘과 같은 발전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우리가 모스크바에서 레닌묘를 찾는데 이어 레닌

그라드를 방문하여 참관의 길에 오른 어느날이었다.

그날 우리는 레닌그라드에서 10월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린 레닌의 소박한 집무실과 침실 등 사적물들을 감회깊이 돌아보고 소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의 력사의 증견자로 느껴지던 무명전사들의 묘를 찾았다.

무명전사묘는 네바강기슭의 울창한 수림속에 오붓이 자리잡았는데 드넓은 분묘들의 사이사이에는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있었다.

묘의 앞에는 열풍을 내뿜으며 성화가 타번지고 있었다.

이곳에는 소련인민들뿐만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네바강의 검푸른 수면을 거슬러 바람이 불어오자 성화대의 불길이 분화마냥 활활 치솟았다.

고요한 정적이 깃든 사위를 둘러보자 어느 시인이 부른 시 한구절이 추억의 문을 두드리는것이였다.

...

그대가 누구이건 여기서는

잠간 걸음을 멈추어라

그대가 평범한 병사이건

그대가 위훈을 세운 영웅이건

장령이건 학사이건

여기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어라

여기에 위대한 조국을 수호하는

성전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 싸운

조국의 참된 아들딸들이

고이 잠들어있거니 ...

소베트조국의 참된 아들딸들이 잠들고있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감정은 전에없이 숭엄해졌다.

말과 피부색이 서로 다른 각국의 사람들이 성화를 둘러싸고 타오르는 성화의 불길을 바라보고있었다. 마치 그 성화의 불길속에 희생된 무명전사들의 모습을 찾거나 절절한 목소리라도 들으려는듯...

한 관광객녀성이 성화에서 좀 떨어진곳에 손자의 수목을 잡고있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할머니, 이 불을 계속 이렇게 피우는것은 희생된 사람들을 잊지 못해 하는것이 아닌가요?》

할머니는 주름살이 깊이 패인 이마살을 모으며 한동안 그 녀성을 바라보다가 말하였다.

《흔히 그렇게 생각들 할수 있지요. 허나 저 불길 이 그런 추억만을 되살려주겠는가 하는것은 우리 쏘련사람들이 이 레닌그라드를 지켜 어떻게 싸웠는 가를 알면 명백해질겁니다.》

파란 눈을 울퉁하게 치뜨고 고개를 까딱이던 그 녀성은 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주위에 서있던 여러 사람들도 할머니를 둘러쌌다.

할머니는 어린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을 시작하였다.

《그것은 우리 레닌그라드가 어떻게 독일침략자들의 포위속에서 영웅적으로 싸웠는가를 알면 충분 할것입니다. 그때 독일파쇼들은 우리 레닌그라드를 일격에 강점한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한달동안에 수십만의 보병과 수천대의 탱크와 비행기, 대포들을 밀어넣고 쏘련군대의 방어진지를 공격하였지요. 정말 엄혹한 싸움이였습니다.

그러나 쏘련인민을 위협할수 없었지요. 우리 레닌그라드의 시민들은 조금도 굴함없이 레닌이 추켜 올린 혁명의 기치를 들고 하늘과 땅에서 공격과 포격으로 불바다를 이룬 초원을 뚫고 도시의 남쪽에서 밤에 낮을 이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안겨주었지요.

날을 따라 싸움이 어려워질수록 《한치의 땅도 원쑤들에게 내주지 말라!》는 불굴의 투지를 안고 억세게 싸웠지요.

도시는 놈들의 폭격과 포격으로 파괴되고 모든것이 불타버렸습니다. 날과 달이 바뀔수록 도시에는 빵도 증기도, 물도, 전기도 떨어져갔고 사람들은 기아선상에서 쓰러져갔지요.

그 굶주림과 엄혹한 추위속에서도 그들은 우등불을 피워놓고 희생된 전우들과 가족, 친척들의 복수를 맹세하며 시련을 헤쳐나갔지요.

우리의 로동계급은 끼니를 건느며 영양실조에 걸려 다리가 터질듯이 부어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였지만 한손엔 총을 다른 한손엔 마치를 억세게 틀어쥐고 기대에서 물러서지 않았다고.

그들은 쓰러져가다가도 우등불의 세찬 불길을 보면 힘을 얻고 일어서서 싸웠지요.

왜냐 하면 그 불길에는 레닌이 지펴올린 혁명의 불씨가 타고르고있었기때문이었지요.

우리 인민은 그 봉화를 들고 쏘베트조국을 건설하였고 그 불길의 붉은 노을아래에서 행복하게 살아왔기에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저 불길을 바라보며 새힘을 가다듬곤했지요.

그래서 눈물겨운 처참한 환경에 부닥쳐도 비판할 줄 몰랐지요.

나의 귀여운 두 딸도 그때 기아와 추위속에 쓰러진채 영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독일파쇼놈들은 포위한 이 도시의 굶주림과 영양

실조에 걸린 어린이들과 녀인들의 연약한 마음을 흔들어보려고 《당신들은 파멸의 운명에서 벗어나 안착된 생활을 보장받으려거든 항복하라.》고 뼈라를 뿌리며 발광하였지요.

그놈들은 우리 사람들이 우등불을 피워놓고 하나의 무죄기동처럼 멍쳐 싸운다는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요.

허나 모진 굶주림과 추위속에서도 우박처럼 쏟아지는 불비속에서도 우리들은 심장에 타오르는 불길을 한데 합쳐 굴함없이 승리의 래일을 내다보며 싸웠습니다.》

할머니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는 물기어린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푸른 창공을 넋지시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그 모습에는 시련을 뚫고온 사람들에게서 보게 되는 그런 궁지에 찬 미소가 어려있었다.

《정말 것처럼 엄혹한 적의 포위속에서 900일간을 곳곳이 살아서 침략자들과 용감히 싸워 우리는 이겼지요.》

할머니는 흰서리가 내린 하얀 귀밑머리를 쓸어 넘기며 힘주어 말하였다.

주위에 모여섰던 사람들의 근엄한 눈길은 입을 꼭 다문 할머니의 얼굴에서 떨어이질줄 몰랐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긴 여운을 띠고 드넓은 네바강기슭으로 은은히 울려가는데싶었다.

성화를 둘러싸고 서있던 수많은 관광객들은 성화의 불길이 무엇이며 그 불길이 인간의 삶에 어떤 진리와 밝은 빛을 비쳐주는가를 비로소 깨달은듯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렇다. 저 기세차게 타오르는 성화는 쏘베트조국을 사랑하는 쏘련인민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강철같은 의지를 다져주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확신을 호소하고있는것이다.

진정 저 불길은 사람들의 심장에 참된 삶에 대한 불꽃을 지펴주고있는것이 아닌가.

이 불길은 오늘도 전쟁의 그 어려운 시련을 헤쳐온 저 할머니의 심장에서 꺼지지 않는 삶의 불꽃으로 타번지고있는것이였다.

아니 그 성화의 불길이 어찌 할머니의 심장에만 타번지겠는가. 무변광대한 쏘베트대지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도 세차게 타오르기에 쏘련은 이처럼 날로 부강발전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결코 저 성화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대한 추억을 불러주는 장명등이나 희생된 렬사들의 위훈의 전달자가 아니라 참된 인간들의 삶에 대한 진리를 밝혀주는 혁명의 불길이었다.

시대와 지구상의 대륙을 바라보면 네바강기슭의 성화의 불길과 같은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 모든 인류의 참된 삶을 지향하는 혁명의 봉화가 얼마나 많이 타고르고있는가를 보게 된다.

혁명의 봉화는 오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

리카, 유럽대륙의 곳곳에서 타고르고있는것이다.  
 어떠한 힘도 어떠한 총탄으로도 봉화의 불길은  
 끌수 없다.  
 이 영원한 불꽃은 평화와 진보를 사향하는 참된  
 인생의 삶과 함께 타오를것이다.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성스러운 투쟁속에 맺어진  
 조선인민과의 친선과 단결은 날과 더불어 더욱 굳  
 견해질것이라고...  
 찌질줄 모르는 저 불길처럼.

## 나는 보통공민

구희철

수천만중에서도  
 나는 보통공민  
 내가 받드는 주권이 날 옹호하고  
 내가 따르는 당이 날 이끈다  
  
 가는 길은 그래서 곧고 정확하고  
 누리는 삶은 언제나 행복하고  
 신념은 억세고

법은 날 위해 만들어졌다  
  
 오, 나에겐 못잊을 추억도 있다  
 첫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흙집을 겨나르던 때  
 수령님께서 크게 쓰신 첫삽 흙이  
 평범한 공민인 내 어깨우에  
 그날부터 귀중한 조국으로 얹혀져있다

## 우리의 대답

리영복

갑문건설의  
 치열한 돌격전을 지휘하던 그는  
 땀배인 장갑을 벗어들며  
 조용히 말했다  
 외국기자의 질문에  
  
 산악처럼 솟아오르는 갑문언제  
 씩씩한 병사들의 작업모습 바라보며  
 어떻게 군인들이 이 공사를 맡고있는가  
 의문속에 반복하는 그 물음에

-우리는 최고사령부로부터  
 갑문을 건설하라는 명령을 받았소 !  
  
 기자는 또다시 물었다  
 지금 남쪽땅에선  
 《팀 스피리트》 군사훈련이 한창인데  
 이 거창한 기념비의 건설주가 된  
 군인들의 립장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고

땀배인 장갑을 다시금 당겨끼며  
 평화의 성새 행복의 언제를  
 한손 들어 쭉 가리키며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요  
 전쟁의 포성에  
 창조와 건설의 포성으로 대답하는  
 우리의 대답이 !

철썩-  
 바다도 진정 할수 없는듯  
 언제를 들이치는데  
 기자는 수첩장에 쓰고있었다  
 분명 이렇게  
 -어디서 진정 평화의 메아리가  
 울리고있는가?

## 운률에 대한 편지

-친우인 최동무에게-

장정춘

최동무!

먼곳에서 심심한 인사를 보냅니다. 편지를 받고 보니 탐구와 사색의 밤을 밝히고있을 최동무의 모습이 선히 떠오릅니다. 아무튼 건강에 류의하기 바랍니다.

편지에서 나는 시의 운률문제에 대한 최동무의 남다른 관심에 우선 감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우 큰 고무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나는 이 편지에서 일부 측면에서나마 우리 시의 운률문제에 대한 나의 소감을 피력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운률문제를 학습하는 과정에 내가 생각한바를 오늘 처음 최동무에게 이야기하려하는 만큼 혹시 따분한 점이 있더라도 끝까지 읽어주기 바랍니다.

최동무가 쓰다싶이 시의 운률문제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 나는 여기서 말하려 하는것이 그 모든 운률문제가운데서 극히 한측면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우선 먼저 첨부하고싶습시다.

최동무.

시에서 운률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에서 운률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그 원리에 대한 문제이며 운률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방도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률문제는 무엇보다 시에서 정서와 운률의 호상관계에 대한 옳은 인식에 기초할 때에만 정당하게 해명될수 있습니다.

주체적시창작리론은 이러한 운률문제해결의 근본고리를 명철하게 밝혀줌으로써 현대자유시에서 운률문제를 가장 옳바르게 해결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도 없게 된다.》**

이 명제에서는 시에서 정서와 운률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깊이있는 해명을 주고있습니다.

운률은 시적정서의 표현형식으로써 시적정서를 구현하는데 직접 참가합니다.

시에서 운률은 정서의 존재여부를 규정합니다.

한편 시적정서는 운률적형식을 통해서만 존재할수 있고 구현될수 있으며 자기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에서 정서와 운률은 내용과 형식의 관

계로서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통일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운률의 외피를 쓰지 않은 순수한 정서란 존재하지 않으며 정서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운률도 또한 참된 의미에서 운률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정서와 운률은 하나로 밀착되어있는 통일체이며 하나로 통일되어서만 시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전일체입니다.

운률이 있다는것은 곧 정서가 있다는것을 의미하듯이 시에서는 정서가 있음으로 하여 운률이 있게 되며 정서가 운동변화함으로 하여 운률이 운동변화하는것입니다. 정서와 떨어져서 운률이 독자적으로 형성될수 있다거나 또한 운동변화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 또한 모순과 부조화를 조성시킴으로써 유기체로서의 시작품의 사상에술적 균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물론 정서와 운률의 통일은 그것들의 독자적인 자체법칙의 작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정서와 운률은 상대적으로 분리하여 따로따로 고찰할수 있으며 매개 개념에 고유한 규칙들과 규범들을 일반화할수 있습니다.

정서와 운률의 통일에 대한 사상은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사상입니다. 그것은 운률조성의 근본목적에도 가장 부합되는 사상입니다.

모든 시가 운률의 궁극적목적은 그 어떤 시종류임을 막론하고 다 동일합니다. 그것은 운률이 시의 사상정서적내용을 더 진실하게 아름답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오직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며 그때문에 존재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밖에 다른 목적이 따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시의 정서적내용표현에 이바지하는 운률이 만약 그 정서와 일치하지 않고 그와 통일되어있지 않으며 그와 밀착되지 않는다면 운률이 이러한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시적인것이 격렬한 감정을 토로하는데 운률은 조용한 톨조를 이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적인것이 담담한 정서를 표현하는데 운률은 세찬 파도의 흐름을 이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시적인것이 변화무쌍한데 운률은 의연히 한가지 톨조만 되풀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률은 시의 정서적내용을 돈구는데 이바지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시의 정서를 파괴하고 손상시키는데로 떨어지

게 될것입니다.

운율이 자기의 근본목적에 부합되게 시의 정서적 내용표현에 더 잘 이바지하자면 그것은 마땅히 시의 정서와 일치하고 밀착되고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운율이 시의 정서와 통일되고 밀착되면 될수록 그것은 시의 정서적내용을 표현하는데 더 잘 이바지할수 있을것입니다.

정서와 운율의 통일에 관한 사상은 두 개념의 통일적관계를 각이한 조건에서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고찰할수 있는 가능성을 줍니다.

시에서 정서는 고정불변하지 않으며 운동과정에서 그 감정의 상태를 달리합니다. 시에서 운율도 그것이 정서와 통일되어있는것만큼 역시 고정불변하지 않으며 운동과정에 그 톨조의 흐름을 달리합니다. 감정이 깊은 사색의 세계에서 조용히 흐르기 시작할 때 운율도 그렇게 조용히 시작하며 감정이 상승 양양될 때 운율도 상승양양됩니다.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 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라

이것은 시 《나의 조국》(김상오)의 첫 시작입니다.

오, 조국이여 조국이여  
너는 손이 닳도록  
쓰다듬고싶은 우리의 땅  
바라보아도 바라보아도 더 바라보고싶은  
우리의 푸른 하늘

이것은 같은 시의 마감부분을 인용한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 다르게 변화된 운율을 보는 것입니까.

감정이 고조점에 이르게 될 때 운율도 고조점에 이르게 되며 축적된 감정이 폭발할 때 운율도 그 폭발에 적응한 음조를 띠게 된다는것을 주의 실례는 말해주고있지 않습니까? 운율은 정서의 매개 변화 매개 기복과 파동, 양상과 질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정서가 고조점에 이르렀는데 운율이 반대로 처진다거나 하는 현상은 있을수 없습니다. 그것은 벌써 통일의 파괴를 의미하는데 정서와 통일되지 않은 운율을 인정한다는것은 운율 없이도 존재하는 정서를 인정하는것으로 되기때문입니다.

시적정서는 오직 운율과 통일될 때에만 자기의 존재가치를 기지며 운율은 시의 정서적기복의 외적 운동형식으로 될 때에만 또한 참다운 의미에서의

운율로 될수 있습니다.

최동무.

이제부터 나는 시적운율의 특징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할가 합니다.

우리 시에서 운율문제는 운율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형태를 밝혀내는 문제로 됩니다. 말하자면 보충적인 형태들, 운율조성의 각종 보조적인 수법들을 예상하지 않았을 때 최소한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 운율이 조성될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우리가 밝혀야 할 기본문제로 되는것입니다.

운율은 소설이나 희곡에는 없는 오직 시에만 고유한 형식입니다. 따라서 소설은 랑독한다고 하고 시는 랑송한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소설에는 운율적현상이 전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련의 연구자료들은 소설문장이나 희곡의 대사에도 속도와 박자가 있고 따라서 톨조(이렇게 말할수 있다면)가 흐른다는것을 밝히고있습니다. 시문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설문장이나 희곡의 대사들에도 성음학적 및 음향학적 체측면들이 매 음절들과 음절군들에 작용하고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설과 시의 톨조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톨조의 차이를 밝히는 문제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소설과 시의 근본적인 형태상 차이를 밝히는 문제로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여기서 기본문제와 탈선하여 소설과 시의 형태상 특성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할수는 없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두 형태의 톨조의 차이, 시의 운율의 특성을 밝히는데 필요한만큼 그 매개 측면들을 상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소설의 형상창조에서 기본은 작가의 주관적의도가 전면으로 로출되지 않는 객관적현실에 대한 서사적묘사입니다. 여기서는 감정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며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 대한 묘사가 기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인의 주관적감정의(물론 객관화된것입니다.)직접적으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그 두 형태의 정서적내용 또는 감정의 흐름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불가피하게 가져오지 않을수 없습니다.

시의 정서는 가장 양양되고 집약된 사상감정의 정수의 정수입니다. 팽배한 감정, 다치면 텅길듯한, 따라서 자연히 운율을 스스로 산생시키지 않을수 없는 그렇게 충만된 정서, 이것이 다른 어떤 산문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시적정서의 특징이며 또 이 특징이 운율을 낳을수 있게 하는 근본바탕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시적정서라고 하면 반드시 운율을 동반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시에 운율이 없을 때 거기에는 아직 운율을 산생시킬만큼 그렇게 정화된 시적정서가 없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소설에서

는 급격하게 높고 급격하게 낮으며 순간적인 강조와 여운이 내면적굴곡을 조성하는 그런 상태가 그 정서의 기본흐름을 이루지 않습니다. 시의 정서는 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팽배하며 서정적인가 하면 탄력이 있고 급격한가 하면 잔잔하며 또한 즐기찬가 하면 이따금 그 흐름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이 정서에서의 차이, 바로 이것이 두 형태의 물조의 차이를 가져온 첫째조건입니다.

소설문장을 시에서처럼 행으로 나누어놓아도 거기에서 운율이 흐르지 않게 되는것은 이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소설에 없는 운율을 시가 가질수 있게 되는것은 음률적반복의 주기적인 성격에 있습니다.

소설의 경우에도 마디마디에 일정한 시간적간격에 의한 되풀이가 있고 고저장단이 있으며 강약관계와 억양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규칙적이고 비주기적이며 반복성이 희미하고 무절제합니다.

운율은 우선 반복입니다. 같은 음량가를 가진 성음현상들의 주기적인 반복을 떠나서 운율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운율상에서 반복은 먼저 일정한 소리단위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소리단위는 운율의 재료입니다. 이 재료가 한번 두번 세번... 이렇게 반복될 때 운율이 형성됩니다. 최소한 한번이상 빈복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소리단위가 없이는 반복이 있을수 없으며 반복이 없이는 운율이 형성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위들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를 운율조성의 기본단위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이 기본단위를 무엇으로 보는가? 음절군으로 보는가? 아니면 음절군들의 결합 또는 시행으로 보는가? 하는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운율조성의 기본단위를 무엇으로 보는가 말하자면 그것을 어디까지 정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운율이 어디서 발생되는가. 운율조성의 기본형태가 무엇인가를 확정할수 있게 되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운율조성의 기본단위를 옳게 설정하는 문제는 곧 우리 시의 운율조성의 기본형태를 옳게 밝히는 문제로 됩니다. 그만큼 운율조성의 기본단위를 설정하는것이 가지는 의의는 크고 중요합니다. 이 운율조성의 기본단위가 설정되어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분기점이 또한 산문과 운문의 물조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둘째조건입니다.

시에서 운율의 단위를 어떻게 보겠는가. 더 구체적으로는 운율조성의 기본단위를 어떻게 정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어떤 현상을 일정한 몇개의 단위로 구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을 그렇게 나눌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을 때 왕왕 아무런 근거와 바탕도 없이 주관적편견에 사로잡혀 단위를 정하게 되며 그러한 불합리한 설정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에 대한 편견을 가져오게 하는것입니다. 기준

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가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옳은 과학적명제는 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실천에 의하여 검증되고 철학적리론에 의하여 안받침된 사물현상에 대한 깊이있는 일반화된 리론은 다른 사물현상들의 질적 및 량적척도를 규정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으로 됩니다.

운율적단위설정에서 기준은 시의 정서와 운율의 통일적관계에 대한 명제사상에 기초함으로써만 옳게 확정할수 있습니다. 정서와 운율이 일치하는것만큼 운율의 단위는 정서적내용의 단위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형률을 가진 시와 자유률을 가진 시의 차이에서 오는것입니다. 최동무는 정형률을 가진 시와 자유률을 가진 시에서 운율조성의 기본단위를 동일하게 보고있는데 나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운율조성의 기본단위는 정형률과 자유률에서 서로 다르게 제기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유률이 그의 정서적내용의 요구에 의하여 그 형태가 규정되고 조성되는 반면에 정형률은 내용의 정서적변화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한가지 물조에 의해서만 형성되기때문입니다. 도대체 운율조성의 기본단위를 같이 볼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을수가 없고 같을 조건도 근거도 제기되지 않으며 또 같아서도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정형률을 가진 시에서는 동일한 음절수들의 반복에 의하여 운율이 형성되는만큼 동일한 음절수를 가진 그 개별적인 음절군들이 곧 운율조성의 기본단위로 됩니다.

례를 들면

새야새야 파랑새야  
 록두발에 앉지말아  
 록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이 민요는 4음절의 규칙적반복에 의하여 운율이 조성되는 4, 4조의 시가입니다. 여기서 운율조성의 기본단위는 4개의 음절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개별적인 음절군들이며 이 음절군들이 둘씩 호상쌍을 이루고 호응하면서 울림을 주고받을 때 운율이 형성됩니다.

즉 우의 시에서 《새야새야》는 《파랑새야》와 《록두발에》는 《앉지말아》와 《록두꽃이》는 《떨어지면》과 《청포장사》는 《울고간다》와 서로 쌍을 이루고 또 서로 대응하고있습니다. 말하자면 같은 음절수량에 의한 같은 음량가를 가진 두 음절군들의 대응관계에 의하여 서로 부르고 대답하는 울림관계가 이루어지며 운율이 조성되고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시행안의 한쪽편 음절군 즉 《새야새야》 《록두발에》 또는 《앉지말아》

《울고간다》 등이 다 운물단위인것입니다.

날거든 뛰지마나 섰거든 솟지마나  
부용을 꽃안단듯 백옥을 묶어난듯  
동명을 박차난듯 복극을 피완난듯  
...

봉마다 뗏혀있고 굻마다 서린기운  
맑거든 좋지마나 좋거든 맑지마나  
저기운 흠어내야 인결을 만들고자  
형용도 그지없고 처세도 하도할사  
(《관동별곡》 중에서)

여기서는 두개의 3, 4음절군들의 호상 대응관계에 의하여 운물이 조성되고있습니다.

학도야 학도야 청년학도야  
벽상의 패종을 들어보시오  
한소래 두소래 가고못오니  
인생의 백년가기 주마갈도다  
(창가 《학도가》 중에서)

여기서는 한 시행이 운물단위로 되고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시행과 그다음에 오는 시행간의 대응관계에 의하여 운물이 조성되고있습니다.

장산꽃 마루에 복소리 나드니  
금일도 상봉에 넘만나 보겠네  
바람새 좋다구 돛달지 말구요  
몽금의 포구에 들렀다 가려마

여기서는 3. 3음절군의 대응관계에 의하여 운물이 조성되고있습니다.

이상은 정형률을 가진 시들의 경우에 형성되는 운물조성의 몇가지 기본형태들에 대하여 언급한것입니다.

정형률을 가진 시들은 3. 3조 3. 4조 4. 4조 3. 5조 등 그 시들의 기본음조에 따라 운물조성의 기본단위가 약간씩 변화될수는 있으나 쌍을 이루는 두 음절군들의 대응관계에 의하여 운물이 조성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시를 가진 시의 경우에는 운물조성의 기본단위를 설정하는 문제가 달리 제기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자유시의 경우를 념두에두면서 운물조성의 단위에 대하여 밝혀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시에서 운물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먼저 나는 최동무의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간단히 말하려 합니다.

우리 시에서 운물은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최동무가 자기 편지에서 내놓은 두가지 의견에 대하여 나도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섭섭하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어느 한가지도 긍정할수 없습니다. 그것이 달리 가 아니라 꼭 그렇게밖에 될수 없다는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최동무는 첫번째 의견에서 운물은 서로 성음적으로 대응하고 호응하면서 쌍을 이룬 두 부분 음절군의 호흡률성 균형에 의하여 조성된다고 하였는데 물론 정형률을 가진 시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것처럼 리해가 되며 나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유시의 경우에는 좀 달리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부르고 화답하며 먹이고 받는 식의 조응관계가 자유시에서도 유지되어야 운물이 형성될수 있다고 한다면 자유시가 담는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이 너무 단조로와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유시에서 다양하게 굴절, 운동, 변화하는 그 정서적내용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불피코 굴절, 운동, 변화로 특징되는 운물을 요구하겠는데 부르고 화답하는 식의 그런 물조만으로 그 요구를 다 충족시킬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토의해보았으면 합니다.

최동무의 두번째 의견은 운물의 형성이 동일량의 음절군의 결합형태의 반복에서 온다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음절군의 결합은 자유스럽고 불규칙적이지만 거기에는 불규칙적결합의 반복형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규칙적인 음절군의 결합가운데 반복의 형태가 있다고 보는지 그것을 밝히지는 못하였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그것을 해명하였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방법으로는 옳은 론증이 되지 못합니다. 거기서 나는 최동무자신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동요하는 기미를 간파했습니다. 실제로 최동무가 말하는것처럼 자유시에서 련속, 교차, 련쇄, 점차적확대 및 축소 등의 반복형태를 다 적용할수 있다고하면 그 어떤 문장도 그러한 적용에서 제외로 되는것은 없을것입니다. 꼭 시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반복형태를 두고 론한다면 소설문장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운물조성의 기초원리에 대한 최동무의 두가지 의견이며 그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그럼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학작품일반이 그러하듯이 매개 시는 그가 가지고있는 정서적내용과 감정의 흐름이 같지 않습니다. 시작품마다 보여주는 생활이 다르고 그것을 창작하는 작가들의 창작적개성이 다른만큼 시의 그러한 특징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시의 정서적내용과 감정흐름의 특징은 해당 시의 운물의 특징을 제약합니다. 매개 시의 그러한 특징에 의하여 규정되는 개별적시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운물의 질적특징이 바로 그 시들의 기본음조입니다. 시의 정서적내용과 감정의 질이 다양한것처럼 기본음조도 다양합니다.



흰바위에 앉아서  
나는 개울물과 이야기하노라  
바위에 바위들에 들을 지나  
구름인양 나리는 개울물  
딩굴어 달리며 쫓으며  
무삼이야기 그리도 기쁘뇨?  
(시 《흰바위에 앉아서》 조기천)

오 오 조상의 땅이여!  
오천년 흐르던 그대의 혈통이  
일제의 칼에 맞아 끊어졌을 때  
떨어져나간 그 토막토막  
얼마나 원한의 선혈로 뒹굴었더냐?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올랐을 때  
몇만의 지사 밤길 더듬어  
백두의 밀림 찾았더냐?

(서사시 《백두산》 조기천)

우의 두 실례는 한 시인에 의하여 씌여진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시의 운률의 기본음조는 서로 다릅니다. 전자는 명랑하고 사색적이며 담담한가 하면 후자는 기백있고 즐기차고 전투적인 정서로 일관되어있는것입니다.

한 시인에게서도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운률을 가진 시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 노래하는 대상 즉 생활이 다양하고 그러한 다양한 생활을 대하는 시인의 감정이 그에 따라 또한 변화되기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시인의 경우에 일관한 자기 리듬적인 개성이 없는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 시인에게는 서사시 《백두산》에서 보는것처럼 우의 두 실례중에서 후자의 경우가 맞으며 그것으로써 자기의 특징을 살리며 운률적개성을 지니게 되는것입니다. 바로 개별적시인들의 운률적개성은 시의 기본음조에서 발현됩니다.

시창작에서 창작적개성을 소유한 시인은 본래 운률창조에서도 이미 비반복적인 새로운 시적운률의 영역을 개척한 시인이였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운률적개성으로써 자기의 얼굴을 가지지 못한 시인은 참다운 의미에서 창작적개성을 소유한 시인이라고 말할수 없다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봅시다.

시의 정서적내용을 일정한 범위에서 구획한 단위로써 련이 있습니다. 련은 가장 보편적이며 많이 리용되는 시의 정서적내용의 단위입니다.

련은 시에서 상대적으로 완결된 사상감정의 단락으로써 시의 감정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표시해줍니다. 련은 시적구성의 단위 말하자면 시의 정서적내용을 종자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감에 있어서 그 정서의 개별적구획을 이루고있는 기본단위이며 감정을 축적하고 정서를 양양시켜 그를 시적고조점

으로 도달하게 하는 정서의 디딤돌입니다. 따라서 제인 시에 있어서는 임의의 개별적인 련이 빠지면 벌써 시 전체의 균형은 허물어지게 되고 감정조적은 파괴됩니다.

교대고동이  
저녁녘 구내를 흔드는  
하늘중천에  
새들이 날아퍼진다

즐거움에 겨워 깃을 치며  
감돌아 멀리 사라지며  
작별의 인사를 보내는듯  
흰가슴들을 높이 추켜들며  
새들은 숲으로 간다

얼마만이냐! 원쑤의 포화에  
불에 탄 바다가의 숲에서  
습기찬 용광로의 부서진 철탑에 의지하여  
싸움속에 살아온 새들이!

(시 《새들은 숲으로 간다》 정문향)

이 시의 1~2련에서 보는것처럼 여기서는 시적정황이 제시되고있습니다. 교대고동이 우는 저녁녘 구내가 우리의 눈앞에 떠오릅니다. 그 하늘중천에 새들이 날아퍼집니다.

즐거움에 겨워 깃을 치며 감돌아 멀리 사라지는 새들은 마치 작별의 인사를 보내는듯합니다. 새들은 숲으로 갑니다. 이것은 시의 1~2련에서 제시된 내용의 기본행입니다. 흰가슴들을 추켜들며 숲으로 날아가는 새들, 그것은 다음련에서 감정의 새로운 양양을 가져올수 있게 하는 정서적계기로 바탕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그 날아가는 새들을 향하여 그 무언가 물어보고싶어하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싶어합니다. 얼마만이던가 원쑤의 포화에 불에 탄 바다가의 숲에서 습기찬 용광로이—부서진 철탑에 의지하여 새들이 살아온것은... 이렇게 시는 점차 정서의 양양을 가져오며 심화된 감정세계를 펼치게 됩니다.

우의 실례는 또한 시련이 시의 감정발전의 필수적요소인 함축과 비약의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련과 련의 이행과정에 함축과 비약의 가능성이 마련되며 정서적여운이 조성되고 다음련의 정서적내용에 접하기 위한 휴식이 보장됩니다.

우의 시를 계속 실례들어봅시다.

다시 일어선 열풍로의  
훈훈한 방부제 냄새  
녹썩었던 철판에  
다시 흐르는 증기소리—

아, 모든것을 다시 추켜세운 구내우로 새들이  
난다

그 모진 싸움속에서도 가슴 드눌지 않던  
제철공들의 무쇠의 가슴을 치며 가슴을 흔들  
며

우리 이 자리를 지켜  
오늘을 맞는것처럼  
평화로운 조국의 하늘가에-

어디로 가도 기쁘고 즐거운 바다와 산과 들,  
그리움에 찬 보금자리를 다시 찾아 새들은  
숲으로 간다  
제철공들의 그 무쇠의 가슴을 흔들며...

우에 인용된 처음의 련과 그다음련, 또 그 중간련  
과 마감련과의 사이에 얼마나 큰 비약과 여운이 조  
성되고있는것입니까. 시는 끝났어도 우리들의 눈앞  
에는 로동계급의 억센 모습들이 그리고 다시 일어  
서는 구내와 멀리 하늘가로 날아가는 새들이 보이  
는듯합니다.

이처럼 련이 구획지어짐으로써 시에서는 표면화  
된 시적감정의 한계를 벗어난 보다 자유로운 사색  
의 공간과 여유가 마련됩니다. 따라서 시련은 상대  
적의미에서 자기에게 고유한 사상정서의 지향성을  
가지게 되며 그것으로 하여 시련이 바뀌면 감정발  
전의 단계가 바뀌고 새로운 감정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시련은 정서적내용의  
단위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는것입니다.

시의 정서적특질에 따르는 운률의 기본음조는 매  
련을 단위로 하여 다양한 변소를 보이면서 그 운  
률적특징을 달리 합니다. 그것은 매개 련이 한 시작  
품안에서도 서로 다른 정서적내용의 구획을 담당하  
고있으며 시 전체의 감정구조에 통일되면서 또한  
고유한 자기의 정서적색갈로써 시의 전반적정서를  
돈구는데 이바지하게 되기때문입니다.

개별적인 련의 사상정서적내용에 적용한 운률의  
기본특질은 시 전체의 기본음조의 유기적인 구성부  
분으로써 그것들은 각기 서로 다른 운률적특징으로  
써 기본음조의 형성에 참가합니다. 해당 련의 정서  
적내용은 운률의 단위로서의 그 련의 운률적 특질  
과 내용과 형식에서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매개 련에 고유한 운률적특질을 어떻  
게 살려내는가 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 운률적특질의 이하에 의하여 해당 련의 정서적  
내용의 심화 및 풍부성 그 선명성정도가 좌우됩니  
다. 또 그 련의 감정의 특징을 뚜렷이 할수 있습니  
다. 즉 련의 운률적특징을 어떻게 살려내는가에 따  
라 그 련의 정서적내용의 본질을 예리하게 드러내  
는가 못드려내는가 그 련의 감정의 색깔을 선명하

게 살려내는가 못살려내는가 하는 문제들이 중요하  
게 결정되게 됩니다.

진달래 진달래꽃  
소백수 진달래꽃  
이 땅은 삼천리 필곳도 많은데  
그 뉘를 기다려 합수목에 피었느냐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모진 계절 피고 지고  
하더니 소백수물이 맑던 그날 아침에  
위대한 장군님 모시고 어머니 오셨다네

그리움에 목메도록 부르시네  
《진달래!》  
조국의 이름같이 다시 불러  
《진달래!》

내가 없는 조국이야  
서러워서 어이 보라  
내가 피는 조국이야  
어데 가나 내 고향

(시 《진달래》 정동찬)

보는바와 같이 이 4개의 시련에서 똑같은 틀조로  
운률이 조성되고있는 시련은 하나도 없습니다. 1,  
2, 3련이 다같이 반복의 수법에 의거하고 있기는하  
나 그 반복법도 색깔이 다르고 울림의 질이 서로  
같지 않기때문에 각기 다른 정서적바탕에서 형성된  
다른 운률적특징들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세번반복  
법을 쓰고있는가 하면 (1~2련)시행교차반복의 수  
법을 쓰기도 하였으며 (3련)4. 4조의 정형시적틀조  
를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니다. (4련)

하나의 시에 있는 불과 4개의 련에서 이와 같은  
운률적다양성을 보인것은 매개 련의 정서적내용과  
감정적색갈에 운률이 섬세하게 반응하고있고 정서  
의 표현에 적극적으로 반작용하고있다는것을 의미  
하는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것은 련의 운률적특질들을 형성  
하는데 참가하는 운률조성의 수법들을 단일화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며 매 련의 서로 다른 정서의 특  
징에 맞게 운률조성의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것  
입니다. 그래야 그 운률은 시의 정서와 더욱 밀접한  
통일을 보장할수 있고 정서를 더잘 돈굴수 있습니  
다. 바로 여기에 운률적단위로서의 련의 의의와 가  
치가 있습니다.

시에서 련은 보다 더 작은 정서적내용의 단위로  
나뉘여집니다. 그것이 시행입니다.

시에서 분행은 외형상 시각적인 형태감을 주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련을  
나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분행은 사람의

호흡량과 관련되는 생리적기초에도 그 바탕을 두고 있으나 역시 결정적인것은 정서적의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는 시의 내용적요구로부터 제기되는것입니다.

련의 정서적내용은 그 시련을 구성하고있는 개별적인 시행들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시에서 어느 한개의 련이 빠지면 시전체의 감정조직이 파괴되는 것처럼 시련에서도 어느 개별적시행이 하나라도 빠지면 그 시련의 정서적내용에는 빈 구석이 생기게 됨으로써 련의 내용자체가 형성될수 없고 감정의 흐름이 토막나게 됩니다. 련이 시전체의 감정흐름에서 큰 파도와 같다면 시행은 시련안에서 역시 그러한 감정의 변화와 양양을 두고 말할 때 잔물결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행은 련안에서 정서의 다양한 변화상태를 반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이 가장 작은 한도에서 정서적의미를 체현하고있는 감정흐름의 한토막이라는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시행의 생명력이 있으며 산맥박으로 숨쉬며 고동치는 그의 귀중한 가치와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도 시전체의 감정구조에서 마음대로 떼여낼수 없는 시라는 생명체의 유기적인 구성요소입니다. 시행의 생명은 련의 정서적굴곡을 조성시켜주고 완성시켜줌으로써 시전반의 감정조직에 참가하는데 있습니다. 결국 시행은 시의 정서적내용을 구성하고있는 감정의 가장 작은 매듭으로서 기초적인 단위이며 따라서 감정구조의 기본단위로 됩니다.

시에서는 정서와 떨어져서 그 어떤 운물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는것은 이미 앞에서 다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적감정의 기본단위로서의 시행은 운물조성의 기본단위와 일치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시에서 운물조성의 기본단위는 시행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시에서 운물조성의 기본단위를 확정할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운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조성되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할수 있는 근본고리를 찾아낼수 있게 됩니다.

시행을 기본운물단위로 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시에서 운물은 시행이 한번 이상 반복될 때 조성되게 된다는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시의 운물조성의 기본형태입니다. 이밖의 모든 운물조성의 형태들은 다 이 기본형태를 뚜렷이 하고 보강하는데 참가하는 보충적형태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형시를 제외한 현대자유시에서 그 어떤 시를 막론하고 이 형태에서 예외로 되는 시는 없습니다.

최동무. 이상에서 나는 우리 시의 운물조성의 단위들에 대하여 특히 그 기본단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내가 생각한바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행을 운물조성의 기본단위로 보는 근거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최동무! 시행이 운물조성의 기본단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그것이 시의 정서적기록을 형성하는데 참가하며 시전반의 감정의 흐름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어있는 가장 작은 정서의 한매듭으로 되고 있는데 있습니다.

최동무.

형식은 다만 표면적인것만이 아니라 모든 요소에서 형식화되어있는 내용에 내적으로 침투하며 관통되는것입니다. 내용과 형식은 호상 침투합니다. 즉 내용은 형식화되며 형식은 내용을 담습니다.

정서적내용과 운물적형식의 호상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내용의 단위는 운물적형식의 단위와 일치하며 정서의 고조와 저조, 급격한 파동과 양양은 운물의 고조와 저조, 그 파동과 양양을 동반합니다. 바로 여기에 정서적내용의 단위와 운물적형식의 단위를 일치시켜보는것이 가지는 타당성과 근거가 있습니다.

시행이 운물조성의 기본단위로 된다는것은 시에서 시행이 정서적운동의 기본단위로 된다는것이 확증됨으로써 얻어진 결론입니다. 말하자면 시행이 정서적내용의 기본단위라는것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그것이 곧 운물조성의 기본단위로 된다는것을 밝힐수 있게 된것입니다. 왜냐 하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시의 운물문제에 대한 명제에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시에서는 정서와 운물이 통일되어있기 때문에 정서적운동의 단위와 운물조성의 단위는 분리될수 없으며 또 분리되어서는 안되기때문입니다.

만약 정서의 단위와 운물의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만약 정서의 단위가 운물의 단위보다 크거나 작다면 그 시는 정서와 운물의 불일치를 낳게 될것이며 따라서 그런 정서는 참다운 의미에서 시적정서일수 없고 그런 운물은 고유한 의미에서 시의 운물이라고 말할수 없게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어 시행이 정서적운동의 기본단위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을 해명해야 할것입니다. 이것을 밝혀야 시행이 운물조성의 기본단위로 된다는것을 완전히 해명할수 있습니다.

시행이 정서적운동의 기본단위로 되는것은 그것이 정서적운동의 가장 작은 단위, 기초적단위로 되고있는데 있습니다. 정서적운동의 기본단위는 정서적운동의 가장 작은, 기초적단위로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정서적운동의 기본단위란 정서의 운동이 최소한 어느 정도로 한정된 감정의 굴곡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가를 규정짓는 그런 단위가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행이 정서적운동의 기본단위로 된다는것을 밝히자면 시행보다 더 작은 정서적운동의 단위를 애당초 인정하지 않는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왜 시행이 가장 작은 정서의 단위로 된다고 말할수 있는가? 최동무는 아마 의견을 가지고있

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안에도 시행보다 작은 의미의 매듭이 존재하지 않는가. 옳습니다. 물론 의미의 매듭이 존재합니다. 레르 들어봅시다.

구내의 어느 일터 그 어느 구석에서  
내 설사 작은 나사못 하나를 조인다 해도  
나는 느낀다-조이시오 더 힘껏 조이시오!  
이렇게 어머니처럼 일러주는 당의 목소리를  
 (시 《당의 숨결》 최영화)

론중의 편리를 위해 우선 세번째 시행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별로 긴 시행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여기에도 벌써 3개의 의미의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의미의 매듭 즉 단락이 있다는것은 감정의 단락, 정서의 단위가 있을수 있다는것을 말해주며 그것은 시행내부에도 시행 그자체보다 더 작은 정서의 단위가 둘이상 존재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있을수 있다는것은 있다는것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가능성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현실성으로 전환될수 있습니다. 이미의 단락이 시행안에 둘이상 있을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정서의 단위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우의 실례에서 《나는 느낀다》 《조이시오》 《더 힘껏 조이시오》라는 세개의 의미적매듭은 그 개개가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정서의 단위로 되는것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정서의 단위로 되자면 그자체의 의미적요소뿐 아니라 전후 시행들과 시련들 호상간의 정서적연계, 감정의 흐름속에서 그 의미적단락이 감정발전의 어떤 계기, 위치를 차지하고있어야 하며 거기서 해당한 감정의 몫을 담당하고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감정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어떤 정서적굴곡을 줄수 있는 그런 가치와 자격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을 때 그것은 한갓 일정한 뜻을 가진 어휘로서의 자격밖에 더 가지지 못하게 되는것입니다.

우의 실례에서 보면 《나는 느낀다》라던가 《조인다》 《더 힘껏 조이시오》는 각각 그런 자격을 가지고있지 못합니다. 오직 《나는 느낀다-조이시오. 더 힘껏 조이시오》라는 하나의 시행을 이룸으로써만 우리는 서정적주인공 《나》의 감정세계의 일단을 받아안게 됩니다. 자기의 옆에서 근엄한 눈길로 지켜보며 고무해주는듯한 당의 목소리, 그 느낌, 이것이 다름아닌 이 시행의 감정의 핵입니다. 이것이 있어 이 시행은 다른 시행들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감정의 굴곡을 조성하게 되는것입니다. 《나는 느낀다》 《조이시오》나 《더 힘껏 조이시오》는 다 당의 숨결, 당의 고무를 가슴뿌듯이 안는 서정적주인공의 그 느낌을 구체화하고 상징화하는

데 복종되고있을뿐이며 그것으로써 의의가 있을뿐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각각 어떤 독자적인 감정의 단락, 정서의 단위로 되는것은 없습니다.

시인은 이 세개의 의미의 매듭을 단일한 감정으로 통합하여서만 하나의 감정의 단락을 형성할수 있으며 그렇게 형성한 그 하나의 감정의 단락, 정서적단위를 시행으로 구획지어놓는것입니다. 만약 시인이 자기 시의 감정의 성격을 좀 바꾸어 《나는 느낀다》라는 구절에 감정발전의 어떤 계기를 주려고 했거나 《조이시오 더 힘껏 조이시오》리는 구실에 그런 계기를 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시행안에도 시행보다 더 작은 둘이상의 정서의 단위가 존재할수 있는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때는 그것들을 한시행안에 나란히 놓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벌써 시행이 두개로 나뉘여지게 되는것입니다. 왜냐 하면 한시행안에서도 그작은 정서적의미를 충분히 강조하는데 적당치 못하며 시행을 따로 설정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그러한 곤란을 해결할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행이 가장 작은 정서의 단위로 된다는 우리의 처음의 실정이 여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시행이 정서의 가장 작은 단위로 된다는것, 사행보다 더 작은 정서의 단위는 없다는것을 실례를 통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특별히 선택한 실례는 아닙니다. 다른 시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설명할수 있는 실례들을 가지고있습니다. 우에 인용한 시에서 《구내의 어느 일터 그 어느 구석에서》도 그런 실례로 됩니다.

그밖에

내 떠나가도 다시 와도  
 (시 《내 떠나가도 다시 와도》 홍현양)

...창밖에 눈이 와도 바람이 스쳐도  
좋은날 젖은 행복 고마운 마음  
 (시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김석주)

겨레의 삶이며 무궁한 미래  
 (시 《나의 조국》 김상오)

떠날 사람, 보낼 사람, 맞이할 사람,  
 (시 《벽동계선장》 김순석)

등이 다 그런 실례들로 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것입니다.

매개 시행에는 그 시행안의 개별적인 의미의 매

들을 통일시키는 하나의 정서적초점이 있으며 그것은 시행을 정서적운동의 기본단위로 되게 하는 근본요인이라는것 또 이때 시어 또는 의미매듭들은 이 통일적인 감정(정서적초점)의 한부분들로 되면서 그자체는 어느 정도까지 그 초점에 종속되다 는것입니다. 말하자면 개별적인 시어들과 의미의 매듭들은 정서적초점을 가지고있는 시행에 통합됩니다. 그러나 시행은 개별적인 시어 또는 의미의 매듭들의 산수적합계가 아님[ ]다. 그것은 개별적인 단락들의 의미를 단일한 초점으로 통합시켜 하나의 새로운 다른 의미, 다른 지향, 다른 감정을 창조하는것입니다.

시행은 정서의 운동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일정한 새로운 감정, 정서적초점을 가지고있으나 운물시행식의 견지에서 보면 그것은 시행력점을 가지고있습니다. 시행력점은 음절군이나 음절군의 결합(정서적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시어 또는 의미의 매듭)들을 련결시켜 시행을 하나의 통일적인 음물의 덩이로 묶어 시적리듬을 이루게 하는 기본핵이며 시행을 하나의 독자적인 지위를 가진 운물적단위로 만들어 다른 시행들과 자체를 구획짓게 하는 운물조성의 기본수단입니다.

여기서 최동무는 또 한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은 때로 한개의 음절군으로 이루어진것도 있지 않는가. 한개의 음절군이 아니라 한개의 음절로 이루어진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행이 정서적운동의 기본단위인 동시에 운물조성의 기본단위로 된다는 그 정의에서 레외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시에서 한개의 음절이 시행을 대신하는 경우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감정의 폭과 무게를 옳게 인식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한마디 말이 때로는 한행 한련의 내용뿐아니라 그 음량까지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는것은 나는 우선 말하고 싶습니다.

...

한떨기 진달래꽃향기에

눈감고

너의 모습 그려본 너대원도 있었더라

...

(시 《나의 조국》 김상오)

이 실례에서 우리는 특별히 따로 선정한 세번째 시행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 하필 《눈감고》이 한마디 말에 한시행 전체를 주었는지. 시인이 의도한만큼 그것이 무슨 정서적효과라도 나타내고있는것인지. 물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한마디 말이지만 한시행 전체를 대신하고있는것입니다.

《한떨기 진달래꽃향기》, 그것은 조국의 모습, 고향사람들의 얼굴입니다. 《눈감고》 그려보고싶

은 화폭인들 얼마나 많을것입니까. 이 짧은 시어에는 말로써는 다 담지 못할 너대원의 소원이 깃들어 있으며 그의 꿈, 그의 사랑이 또한 담겨져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행이 담고있는 감정의 깊이는 다른 시행들의 그것과 능히 맞먹는것이며 오히려 더 넓고 자유로운 환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때문에 말은 짧으나 그뒤에 오는 휴식과 여운이 또한 그 시행의 보이지 않는 길이를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값있는 시어를 그 아래나 옷행에 덧붙여놓았다면 얼마나 무의미한것으로 되어버렸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시적정서를 돈구고 운물을 강화함에 있어서 시행조직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이 있는것입니다.

-내

조국을 찾아가게 되면

맨먼저 만경대를 찾으리라고

수령님 탄생하시여

어린시절 보내신

만경대를 찾으리라고

(시 《내 조국을 찾아가게 되면》 허남기)

여기서 보는것처럼 시인은 《내》라는 한마디에 첫시행 전체를 분담하고있습니다.

이국땅에서 꿈속에서도 보고싶고 또 보고싶었던 조국, 그 조국을 찾게 되면 만경대부터 먼저 찾으리라고 생각했던 서정적주인공 《나》였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얼마나 그리던 조국이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조상의 땅이고 태줄을 묻은 땅이고 그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일뿐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넓은 품이었습니다.

서정적주인공자신의 절절한 감정체험을 담으려는 의도밑에 설정된 이 시행은 《나》를 통해 만사람의 심정을 대변한것으로 하여 깊은 공감을 안겨줍니다.

최동무!

나는 시적운물의 기본단위로서의 시행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행의 의의와 중요성 그 기능에 대하여 몇가지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른새벽

하늘가에 피어나는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속에 젖어드는

마음의 기쁨이 있어라

바라보면

푸르른 봄하늘처럼

희망은 끝없이 내려치고  
(시 《언제나 우리 당과 함께》 리맥)

이 시련들의 운물적 흐름은 지배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무엇이 이 시련들로 하여금 산문이 아닌 운문으로 되게 하였는가? 이런 문제를 음미해보고 생각해보는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보조적수법이 적용된것도 음절수의 규칙적인 반복과 같은 그런 방법이 적용된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운물은 조성되고있으며 그로하여 또한 깊은 정서를 안겨줍니다. 무엇때문이겠습니까. 어떤 수법에 의한것이겠습니까. 누군지 말한것처럼 음절군들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룰조에 의한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련의 운물은 지배하는 요인은 시행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서적내용의 요구에 의하여 조직배렬된 시행들의 장단 및 그 반복에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행들의 형태를 변형시켜보면 어떻게 되겠는지 보기를 합시다.

이른새벽 하늘가에 피어나는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속에 젖어드는  
마음의 기쁨이 있어라

바라보면 푸르른 봄하늘처럼  
희망은 끝없이 내려치고

이렇게 살펴보면 운물의 흐름도 달리 될뿐 아니라 그 감정의 질에 있어서도 일부 다른 특징을 띠게 되는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물론 내용상에서 큰 변동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내용의 전달보다 감정의 전달이 중요시되고있는것만큼 이 변화는 결코 무시될수 없는것입니다.

시행의 변형태가 가져온 이와 같은 변화는 시행조직이 운물과 시적정서의 질적특징을 규정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주고있습니다.

만약 시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음절군 또는 음절군의 결합에 의하여 운물이 조성된다고 한다면 시행을 변형시켜놓아도 운물적특징에 있어서는 조금도 달라지는것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행의 변형이 있었더라도 음절군이나 음절군의 결합들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음절군들의 변화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물의 흐름은 그렇듯 달라진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시의 운물이 시행들의 조직배렬에 의하여 주로 좌우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는것입니다.

그와 같은 실례는 많이 들수 있습니다.

동무여 !  
그 아이는  
나였다  
너였다  
혈벗은 조국이였다.

(시 《당》 김순석)

이 시련을 다음과 같이 변형시켜놓을수 있습니다.

동무여 ! 그 아이는 나였다. 너였다  
혈벗은 조국이였다.

역시 운물적흐름이 다릅니다.

본래의 시행조직에서 보면 매개 행은 뚜렷한 시행력점에 의하여 힘있는 강조와 박력으로 특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킨데서는 그러한 긴장이 벌써 풀리고있습니다. 첫행을 놓고보더라도 그 매 음절군들을 각지 한행씩 담당하고있던 본래의 위치에서보다는 그 박력을 벌써 잃고있는것을 찾아볼수 있는것입니다. 반면에 그것들은 시행내의 단일한 력점에 종속되고있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밖에 또 다른 실례도 있습니다.

탄전이여  
내 떠나가도 다시 와도  
너의 티없는 저 아이들처럼  
탄부의 모습을 닮으리라  
막장의 석심한 굴진공의 노래처럼  
내 마음  
당에 바치는  
진정을 남으리라 !

(시 《내 떠나가도 다시 와도》 홍현양)

이것을 다음과 같이 변형시키면

탄전이여  
내 떠나가도  
다시 와도  
너의 티없는  
저 아이들처럼  
탄부의 모습을  
닮으리라  
막장의 석심한  
굴진공의 노래처럼  
내 마음  
당에 바치는  
진정을 남으리라!

이 두 경우는 시행조직이 얼마나 서로 다른 음조의 운물을 낳게 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형시키지 않은데서는 전형적인 자유시의 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정서의 흐름에 운율이 아주 훌륭하게 적응하고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행조직을 달리한데서는 그 짧은 시행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딘가 로마진 운들과 거기서 형성된 본래의것과는 다른 음조를 느끼게 되며 그로하여 달리 느껴지는 감정의 변화(어딘가 좀 가볍다고 생각되는)를 받아안게 됩니다.

이런 실례들은 우리들에게 시행과 운률조성의 여러 문제들간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운률에 대하여 고찰해보면 볼수록 운률조성의 비결을 밝히는 일련의 요인들은 많은 경우에 시행이 그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과제를 남겨주고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시행이 운률조성의 기본단위로 되는것이 그 정서적내용의 요구에 의해서 근거지어지는것임을 밝혔습니다.

시행이 운률조성의 기본단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람들의 한호흡강에 의하여 규정지어지는 생리적요인에도 기초하고있는 단위라는데 있습니다.

한시행의 음절수는 그 시가 어떤 내용을 노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며 시행의 길이의 다양한 변화도 어디까지나 이 한도안에서 조절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인간의 한호흡량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시행을 기본운률단위로 설정한 기저에는 인간의 생리과정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어있습니다.

생활에서 흔히 보는 일이지만 인간은 아무리 높은 소리를 낸다 해도 일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며 아무리 길게 소리를 낸다해도 역시 한순간에 이르러서는 소리를 멈추고 호흡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것입니다. 이 소리의 멈춤, 이것이 인간의 한호흡량의 한도입니다. 그런데 운률조성의 기본단위로서의 시행의 길고 짧음은 이러한 인간의 한호흡량의 한도에 그 생리적기초를 두고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들에서 시행의 길이는 각이하지만 그것은 동일범위속에 포괄되는 그 한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또한 전혀 다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긴 시행도 일정한 한계를 넘지 못하며 아무리 짧은 시행도 역시 시행이라는 그 지위를 결코 상실하는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호흡량을 조절하여 그것을 매우 긴 시간 연장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이것은 아무

리 긴 시행도 한호흡량안에 읽을수 있게 하고 그것을 하나의 감정의 단위로 되게 하는 조건으로 됩니다.

또한 한개의 음절군 지어 한음절이 한시행의 운률적흐름 전체를 대신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일정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것은 음절 또는 음절군의 의미상 무게와 음량의 크기에 의하여, 감정의 양양과 그가 집약된 특징에 의하여 그보다 훨씬 긴 시행의 운률적흐름과 맞먹는수가 있는것입니다.

그 짧은 시행이 한호흡량 전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도 다음 시행에서 새로운 호흡이 시작되거나 새로운 호흡을 실지로는 바꾸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그런 과정을 느낌으로 체현하게 되는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시행을 읊는다고 할 때 그 운률적흐름은 기본상 사람의 한호흡량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것이 일치하는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호흡관계에 의해서 운률적흐름이 전적으로 좌우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호흡 그자체가 곧 운률은 아니기때문입니다.

최동무 !

나는 여기서 편지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시창작리론에 기초하여 우리 시의 운률조성에서 나서는 일련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분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운률조성문제의 전반에 관한것은 물론 아니며 한측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시의 운률조성의 기본형태를 밝히는 문제이기때문입니다. 이 기본형태에 대한 옳은 해명에 기초함으로써만 우리는 다른 이여의 운률문제들도 원만히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내가 여기에 쓴 모든것들을 절대적인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의 운률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도움이 되고 최종목표에 이르는데서 한개 디딤돌로 된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만족할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진지한 의견과 방조가 담긴 회답편지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친우로부터  
1985년 4월 1일

# 령길우에 핀 꽃

석창갑

## 1

철도정복우에 작업복을 걸친 사람이 문지령의 철길을 걸어서 내려오고있었다. 50고개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그의 헤쳐놓은 작업복 목깃으로 까만 줄에 네개의 별이 촘촘히 박힌 철도령장이 들여다보였다. 그는 철도국에서 있는 회의에 참가했다가 돌아오고있는 기관차대 수리중대장 허민호였다.

회의에서는 기관차수리에서 혁신을 일으켜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 힘있게 뒤받침해 주고 있는 수리중대들의 경험이 토로되었다. 회의장에 앉아 남들이 하는 토론을 듣고있던 민호는 자기도 연단에 나가 경험을 이야기할 날이 있을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허구프게 웃었다. 문지령을 끼고 있는 자기 기관차대에서는 그것이 하늘의 별따기로 생각되어서였다.

류다른 문지령이었다. 사철 허리에 구름이 떠도는 문지령의 강파르고 굽이진 철길은 기관차 바퀴를 잡아내며 때이르게 닳게 하였다. 게다가 문지령을 넘어가는 렬차들은 기관차바퀴가 자꾸 헛도는통에 보조기관차 한대씩을 더 달아주어야 하는것이였다. 그래서 민호네는 늘 기관차바퀴를 안고 씨름질을 하고 남들보다 기관차수리에 곱절이나 더 품을 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민호는 이달에 들어와 더 불어난 기관차수리를 감당할 생각을 하니 걱정과 불안이 갈마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회의가 끝나자 그는 전후 기관차를 몰던 시절의 자기 책임기관사였던 철도국 기관차처장을 찾아가서 차바퀴를 추가로 더 받게 해주든가 아니면 차륜선만이라도 한대 더 내라고 우겼다.

처장은 놀랍다는듯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모를 일이구만. 타발을 모르던 기관차대가 갑자기 어찌된 일이요?》

《우리 운행구간에는 문지령이 있지 않습니까.》

《문지령이야 전후에도 있었지. 문지령에서 기관차를 몰던 때의 그 정열은 어데 갔소?》

《어디 그때와 사정이 같습니까. 물동만 해두 그 때보다 곱절이나 늘었지요.》

처장은 그의 청을 한마디로 밀막아버리기 딱했는지 두고보자고 했다.

기관차에 올라 흥심없이 돌아오고있던 민호는 문지령의 철길을 한번 걸어볼 생각이 들어 령마루에 자리잡은 역에서 내렸다. 수리공들이 운행구간을 잘 모르고 일한다고 비판을 받는데 마침 좋은 기회였던것이다...

고개를 터벅터벅 내려오고있던 민호는 다리섬을 할 생각이 났던지 걸음을 멈추고 철길옆에 나와서 꿈 하는 소리를 내며 앉았다. 발아래 내려다보이는 골짜기에서는 푸른 덩이를 늘어놓은것 같은 개울물이 소리치며 흘러내린다.

《빠- 호르르-》

새매 한마리가 벼랑턱위로 눈이 시도록 파랗게 트인 하늘을 빙빙 돌고있다. 골짜기건너 산허리에는 산불이 타는것 같이 진달래가 붉은 띠처럼 휘감겼다. 화창한 봄철이다.

따스한 별을 등허리에 찍며 담배를 덩덩히 태우고있는 민호에게는 한가닥 시름이 더해지는것 같았다. 엇그제까지만 해도 눈꽃이 흩날리는것 같던게 이렇게 서둘러 찾아온 봄이고 보면 사방에서 그관차독촉이 불갈을 장마칠이 결코 멀다고 할수 없었다. 이윽도록 무거운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몸을 움쭉 일으켜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제 더 내려가면 이 고개에서 제일 강파르고 곡선이 심한. 《29》제표가 서있는곳이다. 그의 눈앞에는 전후에 기관차를 몰고 이 고개를 오르내리던 일이 먼 추억처럼 떠올랐다. 그가 29키로메터지점을 앞에 둔 차굴을 거의 빠져나가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차굴아래쪽에서 녀자의 맑고 조용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따뜻한 짓을 찾아 새들은 가도

찬바람 부는 길을 치너는 가네

...

민호는 대낮에도 산짐승들이 내려와 철길을 파헤쳐놓는 이 호젓한 고개에서 녀자의 고운 노래소리를 듣는것이 놀랍고 신기했다. 차굴에서 나온 그는 아래쪽 철길옆의 후미진곳에 자리잡은 초소막앞에 웬 처녀가 무릎을 꿇고앉아 무엇인가 하고 있는것을 발견했다.

민호는 그를 놀래우지 않으려고 가볍게 기침을 했다.

《어마나! ...》

몸을 불쑥 일으키는 처녀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알릴듯말듯 새어나왔다. 처녀는 가까이 다가오는 민호를 유심히 살펴보다니

《아이! 중대장동지가 아니세요!》 하고 환성을 올렸다.

《응? 이게 누구요! 수련동무가 어떻게...》

《호, 철도국에 가셨다더니... 회의는 끝났어요?》

《음, 지금 오는 길이요. 한데 어떻게 이 험한데



를… 혼자 왔소?》

민호는 처녀의 날씬한 몸을 감싼 풀밭 선 보위색 작업복이며 진달래빛 머리수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것 같은 그윽한 눈매 등을 놀랍게 훑어보았다.

그의 놀라움은 무리가 아니었다. 세해전에 철도 대학을 졸업하고 수리중대 기술준비실에 배치되어 일하고있는 수련이는 언제나 무슨 생각에 열중해있는 조용한 처녀였다. 민호는 간혹 기관사들이 거치른 룡담을 할 때면 숫제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를 보고 쇠덩어리로 빚어진 기관차를 다루기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처녀라고 생각한적도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이 외진 고개에 나타난것이다.

《함께 왔어요. 저 철길순회원아바이하구…》

수련이는 방긋 웃음지며 아래쪽 철길을 가리켰다.

벼랑턱을 에돌아간 아래쪽 철길에서 등글모자를 뒤통수에 늘려붙인 늙수그레한 철길순회원이 레루이음목에 허리를 굽히고 나사를 조이고있는것이 눈에 띄었다.

《한데 이 초소막에서 뭘하구있소?》

민호는 수련이가 오금을 꺾고 앉아있던 초소막 프락에 호기심어린 시선을 돌렸다.

자그마한 꽃밭이 눈에 띄었다. 보드랍게 고무어놓은 흙우에 손바닥으로 뽕뽕 다져놓은 자리가 력연한것이 방금 땅을 뿌지고 꽃씨를 묻어놓은게 분명하다.

《여기 철길을 좀 살펴보려고 왔던김에…》

수련이는 고개를 수그리며 손에 든 조약돌을 만지작기렸다.

민호는 이 험한 고개에 와서 꽃밭을 가꾸고있는 그가 어찌보면 철부지같기도 한 생각이 들었다.

그 초소막은 전후에 한 락석감시원부부가 살고있던 감시초소였는데 언젠가 락석이 자주 지는 고개우의 벼랑턱을 깎아낸 후로는 락석감시원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지금은 철길원들이 고개에서 일할 때면 휴식장소로 쓰고있는곳이었다. 세월의 비바람속에 초소막지붕에는 어느덧 이끼가 돌아나고 대돌 밀이며 프락구통이들에는 곰삭아버린 풀잎을 헤치고 잡초들이 돌아났다. 그래서인지 사람의 손길이 정성스레 가닿은 꽃밭은 유포하게 눈길을 끈다. 민호는 불현듯 기관차를 몰고 고개를 오르내리던 시절에 이 초소막앞에서 언제나 붉게 핀 꽃송이들이 몸을 흔들며 반겨주던 일이 생각났다. 이 철길옆에 비스듬히 서서 꾸중기 어린듯한 얼굴을 하고 신호등을 높이 쳐들어주군하던 락석감시원의 모습도 삼삼히 떠오른다.

민호는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때 여기엔 성실한 락석감시원이 살고있었소. 이 철길에 닛을 바쳐온 사람이었지.》

수련이는 어째선지 물기가 펄 도는 눈길로 민호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외로 돌리며 짧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 철길을 한번 보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닛았는지 몰라요.》

수련이는 철길쪽을 돌아서서 걸어갔다. 《29》라는 수자를 쓴 제표가 비스듬히 서있는곳에 다달은 그는 민호에게 철길을 가리켜보이며 걱정스레 말했다.

《이걸 보세요. 여기 레루는 세해전에 바꾼것들이에요. 한데 그새 이렇게 닛았으니 기관차바퀴도 얼마나 많이 닛았겠어요.》

그는 안쪽으로 기울어지며 엇비듬히 닛아진 레루를 가슴아픈듯이 쓸어만졌다.

기관차바퀴는 자동차바퀴처럼 방향을 마음대로 조종할수 있게 조향식으로 된것이 아니여서 곧바로 가려는 기관차를 레루가 큰힘으로 밀어서 곡선방향으로 돌려보낸다. 그때문에 곡선과 물매가 심한데서는 바퀴와 레루사이에 큰 쓸림이 생기면서 몹시 닛는것이다.

《그게 바로 두롱거리요. 기관사들과 철길원들두 그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겠소.》

《그들이 이 고개에 흘린 땀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그런데두 우린 아직… 정말 면목이 없어요.》

수련이는 마치 자신에게 이야기하듯 조용히 속삭였다.

《그러니 별수가 있소?》

민호는 시답지 않게 대꾸했다.

수련이는 철길쪽에 피어난 이름모를 들꽃 한송이를 꺾어가지고 향기를 들이쉬며 잠시 말없이 걸었다. 그러던 그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민호를 쳐다보았다.

《저, 한번 찾아가려구 했었는데 그새 제가 생각해본 연구도면을 좀 봐주시지 않겠어요?》

《무슨 연구도면인데? …》

《저… 방금 말한 기관차바퀴와 관련된거예요.》

민호는 그가 무슨 기술혁신때문에 애쓰고있다는 말을 들은 일이 생각났다.

《그야 어려울게 있소? 한데 그게 기술혁신을 해서 풀릴수 있는 문제라면 무슨 걱정이겠소.》

수련이는 실눈섭이 긴 눈을 깜빡이며 손에 든 꽃송이를 입술에 대고 뱅뱅 돌렸다.

《물론 힘에 부치는 일예요. 하지만 그건 누구든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겠어요?》 하고 혼자소리처럼 속삭인 그는 레루우에 사뿐 올라서더니 발부리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겨 걸어갔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눈빛을 빚내며 민호를 쳐다보았다.

《중대징동지, 이 문지령을 마음대로 길들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요. 그땐 우린 기관차격정두 하지 않게 되구 온 나라의 <문지령> 들에서 <5.18

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의 불길이 더 높이 타오르게 되겠지요?》 하고 다시 돌아선 그는 마치 춤이라도 추듯 두팔을 벌리고 몸의 중심을 잡으며 레루우를 걸어갔다.

민호는 놀라운것을 발견한듯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한 처녀라고만 생각했던 수련에게서 그 형체는 아직 뚜렷하지 않으나 여직껏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것을 어렵풋하게 느끼는것 같았다.

## 2

며칠후 수련이는 도면두루말이를 들고 민호를 찾아갔다. 중대장실을 향하는 그의 가슴은 몹시 울렁거렸다. 그의 창안은 철길곡선부분에서 기관차바퀴와 레루가 닳아서 그 수명이 짧아지는것을 막기 위한것이였다. 자기의 첫 창작품을 공개하는 젊은이들이 그런것처럼 그도 고심어린 탐구와 열정을 기울인 그 창안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가 하고 가슴을 조였다.

그가 손기척을 하고 방안에 들어섰을 때 민호는 방금 전화를 끊고나서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고있었다.

《허참, 바퀴를 더 내라구 했더니 철도국처장이라는 사람은 두고보자는 소리만 하누만. 그래 어떻게 왔소?》 그는 수련이를 쳐다보았다.

《저, 먼저번에 제가 말하던 그 도면을 가지구 왔어요.》

민호는 수련이의 손에 들린 도면에 시들한 시선을 돌렸다.

《어디 좀 보지요.》

수련이는 도면을 책상우에 펼쳤다.

《조향식대차.》

도면 옷머리에 이런 제목이 씌여져있었다. 민호는 복잡한 선들과 점들이 얹힌 도면을 한번 죽 훑어보더니 차츰 얼굴에 신중한 빛을 띄우며 그 세부를 뜯어보기 시작했다.

가슴을 조이며 옆에 서있던 수련이는 민호가 자기의 의도를 리해하지 못할가봐 걱정되였던지 손으로 도면을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바퀴턱과 레루사이의 쓸림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퀴축에 유간을 조성해서 철길곡선을 따라 유동할수 있게 했어요. 그리구 이걸 레루우에서 바퀴가 헛도는것을 막기 위해서 대차앞에 보충적으로 설치한 불꽃청소기예요.》

민호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였다. 그들 문지령에서 수련이가 도면을 봐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국상해야 닳아진 바퀴를 재생하는 시간이나 줄이는 정도의 혁신안일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것은 바퀴와 레루가 아예 닳지 않게 할것을 노린 자못 놀라운것이였다. 게다가 《조향식대차》라고 이름은 달아놓았지만 실상은 《불꽃청소기》

까지 두가지를 시도한것이였다. 그는 도면에 드러나보이는 수련이의 깊은 연구심과 대담성에 내심 놀라며 그의 얼굴을 흘깃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창안을 받아들이자는 말은 뻔수 없었다.

그는 수련이를 너무도 모르고있었다. 그에게는 수련이가 아직 경험도 어린 풋내기기술자로 보였고 젊은 시절의 허황한 꿈도 끝수 있는 처녀로 생각되였다. 그런 처녀를 그는 흘쩍 믿을수가 없었다. 그를 주저하게 한것은 그것만이 아니였다. 수련이의 창안을 받아들이자면 기관차와 로력을 거기에 떼돌려야 하겠는데 아직 성공도 담보되어있지 않은 일을 벌려놓았다가 기관차수리에 지장을 주고 창안도 실패하는 날이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그래 어떻게? 수련동무는 이게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하오?》

수련이는 민호의 얼굴을 보고 그가 자기를 못마땅하게 보았다는것을 알았다.

《단번에 꼭 된다고 어떻게... 한데 저는 긴장한 기관차수리문제를 풀자구 해두 그렇구 우리 철길원들과 기관사들의 소원을 풀어주자구 해두 그렇구 이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다독였다.

《그 생각이야 물론 좋은거지. 한데 당장 급한 문제는 어떻게 하겠소. 이게 식은죽먹기로 하루이틀에 될수 있는 일이라면 또 몰라두. 만약 그리 쉽다면야 남들이 언녕...》

수련이는 잠시 생각을 굴리는것 같더니 결심한듯 입을 열었다.

《우린 눈앞의 일에만 포로되어서는 안될거예요. 언제까지두 우는 소리를 하는 기관차대로만 남아있을수야 없지 않아요?》

《헛허, 내가 바퀴를 달라구 하는게 우는소리로 들리는 모양이구만. 나두 당장 다른 방도는 없구 법적과제로 떨어진 계획은 해야겠구 해서 그러는거지.》

모름지기 이걸 벌려놓자면 기관차와 로력을 떼돌려야겠는데 그랬다가 못하는 날이면 누가 책임지겠소?》

수련이는 입술을 옥물었다. 그는 민호가 자기의 창안을 미타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계획수행에 지장을 주게 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책임을 우려한다는것을 비로소 알았다.

《중대장동지!...》 하고 그가 말을 다시 꺼내려고 했을 때 민호의 책상우에 놓인 전화가 귀따갑게 울렸다.

민호는 그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수화기를 들었다.

《예... 운전지휘장동무라구요?... 45호는 한창 수리중에 있수다. ...수리를 앞당겨서 소운전렬차를 한번 끌어줄수 없겠는가요?... 계획된 기관차두 미처 대주지 못하는 형편에 언제 그것까지... 사정이 그런거야 어찌겠소... 나두 기관차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발편잠을 자겠수다...》

민호는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으며 답답하다는듯이 입맛을 다셨다.

《에참, 계획에두 없는 기관차를 자꾸 내라구 하니 넌들 무슨 수로 당해내겠소.》

수련이는 그의 말에서 《자, 실정이 이런데 어디 실험할 기관차를 내놓을 허편이 됐소?》 하는 속대사를 읽는것같았다.

《자, 우리 그 문제는 후에 다시 토론해보기로 합시다. 연구부문에 제기하든가 영?》

수련이는 민호가 몸을 일으키며 모자를 쥐는바람에 더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중대장실을 나온 그는 마음이 허전했다. 무엇인가 무시당한것 같기도 하면서 얼굴이 달아오르기도 했다. 향방없이 걸음을 옮겨놓고있던 그가 버릇처럼 수리차고에 들어서니 이마에 눈망울처럼 전조등이 툭 불거진 45호가 자기를 등정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는것 같았다. 방금 민호가 전화에 대고 말하던 기관차였다.

기관차열에서 무엇인가 마치로 투닥거리고있던 수리반장이 허리를 펴며 수련이를 돌아다보았다.

《음, 수련인가? 그래, 그 연구하는건 어떻게 됐나? 그걸 빨리 성사시켜야 우리도 덕을 볼텐데...》

반장은 담배를 꺼내 물었다. 수련이의 창안에 대해 늘 관심을 돌리는 그였다.

수련이는 서글픔이 어린 눈길로 반장을 쳐다보았다.

《반장아바이, 그걸...할수 있을까요?》

《응? 그럼 할수 없는길 연구해왔나?》

《당장 기관차사정두 긴장한데...》

《긴장하니까 하자는거지. 그새 연구를 더 했겠는데 어디 한번 보자구. 그래, 승산은 있었지?》

수련이는 수리대앞으로 다가가서 말없이 도면을 펼쳤다.

《이 유간조성부분에 좀 수정을 가해서 완성하느라구 했어요.》

《음...》

이때였다. 갑자기 등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는 마음들이 편하구만. 45호수리는 끝났소?》

《끝났지. 저걸 보지 못하나?》 반장이 턱으로 기관차를 가리켰다.

《저 45호는 누가 뭐라구 하든 어디 내보내지 말구 세워두도록 하시오!》 민호는 벨듯이 이렇게 말하고 발길을 돌렸다.

《원, 사람두... 제 발등이 뜨거운줄만 아는군.》

수련이는 반장이 뇌까리는 말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도면을 말아쥐고 기술준비실쪽으로 걸어갔다.

그후 어느날이었다. 수련이는 교대가 끝나면 늘 기관차수리를 도와주는 습관대로 그날도 수리공들과 함께 기관차수리작업에 달려붙었다. 그러는데 통제원처녀가 달려오더니 운전지휘장이 전화로 반장을 찾는다고 알리었다. 중대장이 없다고 했더니 반장을 바꾸어달라고 한다는것이였다. 아침에 중대장은 문지령에 나가있는 수리반에 불일이 있어 갔던것이다.

의아해하며 전화받으러 갔던 반장은 잠시후 얼굴이 병글사해서 수리공들앞에 나타났다.

《자, 역에 차판이 많이 밀렸다는데 차수리를 앞당겨서 역 차길이를 도와주어야겠네. 그리구 저 수련이가 연구한걸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보라구 철도국처장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래, 할수들 있겠나?》

수련이는 놀란 사람처럼 그자리에 서서 눈만 깜빡였다. 그는 며칠전에 반장이 도면을 달라고 해서 준 일밖에 없는데 철도국처장이 그걸 알고있다는게 모를 일이었다. 그는 반장에게로 다가가서 조용히 물었다.

《저, 정말이에요 네?》

《사실이지. 현대 왜 그러나?》

《아니, 어떻게 아시구...》

《그 중요한걸 처장동무가 모를리 있나? 자, 됐네. 이젠 들어가 좀 쉬라구. 그 불꽃청소기진 한걸이젠 내놓구 만들어보잔말야.》

수련이는 그새 조향식대차에서 불꽃청소기만이라도 떼내여 따로 시험해보려고 잠만 있으면 시험품을 만들고있었던것이다.

그는 반장의 성화에 일손을 떼고 합숙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도시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처장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오늘 따라 초초해시는 마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이름할수 없는 조바심에 가슴만 들볶이던 그는 종시 눈을 붙여보지 못하고 오후에 중대로 도로 나갔다.

전날에 불꽃청소기를 만드는 장소로 꾸려놓았던 차고안쪽으로 걸음을 옮겨놓고있던 수련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반장아바이와 민호가 자못 격한 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는것이 눈에 띄었다.

《그래 그 도면을 수련이가 처장한테 올려보냈단 말이지?》

저지기 못마땅해하는 민호의 목소리였다.

《처장동무가 전번에 내려왔을 때 새로운 혁신안들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나. 도면이야 올려보내든말든 뭘해. 그걸 빨리 만드는게 문제지.》

수리부분에서 나이 60에 이르도록 일해온 반장은 민호를 스스럼없이 대했다. 돈보기를 걸치고있는것이 반장은 불꽃청소기를 만들 철관이라도 자르고있었던게 분명하다.

《흠, 그게 그래 처장이 하라고 하면 될것 같소?》

《중대장은 왜 그걸 남의 일처럼 말하나? 차바퀴가 험해지는걸 막는게 좀 좋아서 그러나?》

《아바인 뭐 기관차가 아이들 장난감인줄 아우? 우리 형편에서 어디 그걸 벌려놓게 됐는가말이요. 게다가 꼭 성공할수 있는 일이라면 몰라두...》

《흠! 그게 바로 보수주의라는거네. 해보지두 았구 지레 겁부터 집어먹는게...》

《뭐? 수련이는 그걸 해보다가 안되면 주저앉아도 일없고 시집이나 가버리면 다졌지만 나는 기관차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이란말이요. 그래 수리계획을 못하면 수련이가 추궁을 받을것 같소? 아바이는 되지도 았을 일을 가지구 들떠서 돌아가는 수련이를 두둔하지 말구 제 말은 일이나 더 잘 하게 하는게 좋겠소!》

수련이는 반장아바이가 대꾸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았았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공구가 덩강 하고 땅에 떨어졌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민호를 쳐다본 그는 물기가 펴 도는 눈을 감추려는듯 고개를 꼭 수그리며 기술준비실쪽으로 뛰어갔다. 방에 들어선 그는 창문가에 놓인 책상앞으로 다가가서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초점없는 시선을 창문밖에 던진채 움직일줄 모르는 그의 눈앞에 멀리 산굽이를 에돌아 사라진 철길이 가물거린다.

왜서인지 그는 문지령의 철길을 생각했다. 어린 시절이 흘러간 문지령의 정다운 그 초소막... 철길쪽에 가꾸어놓고 놀던 손바닥만한 꽃밭... 기적소리... 눈보라 울부짖는 밤에도 아버지가 쉬임없이 지켜가던 그 철길...

수련이는 그 철길을 언제나 잊지 았았다. 그가 철도대학을 택한것도 그때문인지 모른다. 그는 대학 시절에 탐구심이 강한 처녀로 알려졌다. 야산등성이에 자리잡은 교사뒤 수림속의 그 《보금자리》는 얼마나 정다웠던가. 학급의 처녀들은 그를 찾을 일이 있을 때면 그 《보금자리》로 달려가곤했다. 그러면 소담한 소나무아래 놓인 나무의자에 앉아 책속에 묻혀있는 그를 볼수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던 날 그는 그 《보금자리》의 소나무에 뜨거운 이마를 대고 아버지가 한생을 바쳐 성실하게 지켜 온 초소로 달려갈것을 결심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에게 차례진 정다운 학교의 연단도 변화한 도시의 연구기관도, 대문이 활짝 열려있던 설계기관도 마다하고 험한 문지령의 계곡에 자리잡은 흥기관차대를 택했던것이다. 산이 많아서 구배와 곡선이 심한 우리 나라 철길에서 기관차 바위와 레루의 수명이 짧아지는것을 막는 문제가 매우 절실한 문제임에도 지금까지 그것이 범상하게 여겨져왔다는것을 알았을 때 그는 얼마나 가슴을 울렁거렸던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든 그것은 지체없이 해결 돼야 한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는 힘에 부친다고 주저할수가 없었

다. 하여 고심어린 사색과 탐구의 나날이 흘렀다. 대학을 찾아다녔고 문지령에도 때없이 오르내렸다. 기관사들과 토론도 하고 생소한 자동차의 조종원리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그 나날에 무르익어가는 생각을 도면에 옮겨놓으며 고심탐구하며 보낸 나날은 또 얼마였던지 모른다. 하여 자동차의 조향식조종원리를 적용한 그의 창안은 드디어 형체를 갖추게 되었던것이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열을 기약하는지 알수 았었다.

그는 자기 심정을 너무도 몰라주는 민호가 야속스러웠다. 그는 민호에게서 시대의 요구와 답을 쌓은 보신적인 립장과 태도가 느껴지는것을 어쩔수 았었다. 그때문에 민호는 수리가 끝난 기관차를 세워두면서도 역에 내보내주려고 하지 았으며 기술혁신에 대해서도 주저하는것 같았다.

#### 4

장마철에 접어들자 문지령에서는 기관차를 더 대달라고 독촉이 성화갈았다. 비물에 젖은 철길에서 바퀴가 자꾸 미끄러지며 헛도는통에 고개를 넘어가는 열차마다 보조기관차를 더 달아주어야 했던것이다.

기관차수리때문에 어느때없이 바빠 돌아치던 민호는 어느날 기기관차대로 떠나갔다. 그는 몇달전에 철도국에서 있는회의에 갔다가 기기관차대에 바퀴예비가 있다는것을 그곳 수리중대장에게서 알아냈는데 그것을 넘겨주겠다는 대답을 받아내지 못한것을 후회하였다. 바퀴만 더 있으면 예비를 조성했다가 기관차바퀴를 교체해주는 식으로 수리시간을 줄여 기관차예비를 한두대는 얻어낼것 같았다.

기기관차대에 도착한 그는 수리중대부터 찾아간다. 그런데 승무원대기실앞을 지나다가 뜻밖에 철도국에서 내려온 처장을 만났다.

《아니, 중대장이 어떻게 여길 다... 마침 만나보고 했었는데 잘됐소.》

《나를 만나려 했대구요? 그럼 혹시 전번에 말한 그 바퀴라두 해결되게 아님니까?》

《또 그 바퀴소리요? 허허, 우선 저기 좀 앉아서 얘기하지요.》 처장은 승무원대기실앞에 있는 나무의자에 가서 았었다. 그리고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물고는 옆에 았은 민호에게도 한대 권했다.

《그래, 여긴 뭇하러 왔소?》

《나한테 다른 걱정이야 있겠습니까. 바퀴때문에 이렇게 뛰어다니지요.》

《참, 답답한 일이구만. 눈앞에 있는 예비는 보려고 하지 았으니... 그래 수련동무의 창안은 진척시키고있소?》

《그것말입니까? 전번에 전화가 왔더라는 말은 들었는데 별로...》 민호는 말끝을 얼버무렸다.

《난 대장동무가 가져온 도면을 봤었는데 참 실한걸 붙잡았더군. 연구기관에서도 대단히 가치있는것으로 평가했소. 기관차예비는 바로 거게 있었던말이요.》

민호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는 처장에게도 면을 올려보낸것이 수련이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알았다. 그러니 수련이를 괜히 아니꼽게 생각한 자기가 쑥스러웠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좀 어려울것 같구 기관차수리에두 지장을 줄것 같아서... 이젠 젊은 나이도 아닌데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기가 더 싫습다.》

(흠, 그러니 수련이가 보신주의라고 한것도 옳았구만.)

처장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의자우에 놓았던 삼면자크가방을 들어 쭈르륵 췌더니 거기서 네모로 접힌 편지장 같은것을 꺼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오. 이번에 철도공장에 들렀던길에 거기서 기사로 일하고있는 먼 친척별되는 조카애를 만났었는데 그 애가 수련이와 보통사이가 아닌줄은 몰랐됐구만. 수련이의 창안에 대해 걱정하더군. 수련이가 보낸 이 편지까지 보여주는걸 후에 돌려줄걸 약속하구 몇장 달래서 가지구 왔소. 어디 한번 읽어보오.》

민호는 어리둥절해서 처장이 내미는 편지장들을 받아쥐고 들여다보았다.

《...석준동무! 저는 지금 우리가 교정을 떠난후 처음으로 만나서 강가를 거닐던 그 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지의 모든것을 그리도 깊이 이해해주는 석준동무를 보고 제가 얼마나 행복했던지 아마 모를거예요. 그런데 얼마전에 인젠 도시로 돌아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하는 동무의 편지를 받고 저는 그날밤 많은것을 생각했어요. 정말 이 순간 동무의 그 따뜻한 품이 얼마나 더 그리워지고 우리의 아늑한 래일의 꿈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오늘 동무에게 일찍 이야기했어야만 했을 귀중한 사연을 꼭 말해주고싶은 간절한 소원에서 이 글을 써요. 문지령은 제가 꿈결에도 잊지 못하는 고장이예요. 봄이면 진달래가 붉게 핀 벵랑터우로 그리도 곱게 펼쳐진 푸른 하늘...싱그러운 여름날 아침에 저의 어린 잠을 깨워주곤하던 정다운 피콜새 소리... 저 멀리 고개너머로 저의 어린 마음을 끝없이 달리게 하던 그 기적소리...

하지만 제가 문지령을 잊지 못하는것은 결코 어린시절의 꿈을 키워준고장이 정들고 아름다와서만이 아니예요. 문지령의 락석감시원이었던 저의 아버지는 외팔로 태어난 저를 몹시 사랑했어요. 하지만 문지령의 철길도 저에 못지않게 사랑했을거예요. 철없던 어린시절 제가 철길쪽에 흠어진 자갈을 한 줄로 곱게 쌓으며 놀거나 철길우에 모래를 뿌려주

는것을 보고 아버지가 그리도 대견해하며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일이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수련이두 이젠 이 철길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수련아, 아버지 배우지를 못해서 이 철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게 한스럽다. 나는 이 답에 커서 대학에 가고 훌륭한 기술자가 돼서 이 류다른 철길을 마음대로 길들여야 한다.》

그때 아버지가 하던 말이 자신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한 저의 어린 마음이 대견해서 그런것만이 아니었음을 그때는 미처 몰랐었어요.

후날 어머니에게서 알게 되었지만 폭우가 퍼붓던 날, 전쟁때에 놈들의 폭격에 입은 상처가 도진 몸도 마다하지 않고 철길로 나가 벵랑에서 무너져내리는 바위를 몸으로 떠받들어 렬차를 지나보낸 아버지... 아버지는 문지령고개때문에 지체되곤하는 기차를 바라보며 얼마나 아픈 가슴을 쥐어뜯었는지 모른답니다.

저는 대학시절에 기관차바퀴의 공회전현상에 대하여서나 바퀴와 레루사이의 력학적힘의 작용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도 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문지령의 구배진곳마다에 모래를 미리 날라다놓고 철길에 뿌려주곤하던 일이며 철길이 닳는다고 늘 걱정하던 일을 회상하곤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문지령의 철길을 잇을수 있었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이어 문지령의 철길을 길들이는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자기의 청춘을 가장 값있게 바치는 길이라고 믿었었어요.

그래요. 조향식대차와 불꽃청소기에는 저의 의무와 량심, 사랑과 꿈이 깃들어있어요. 현장체험도 없는 철부지 기술자에 지나지 않았던 저에게 처음에는 문지령의 철길과 맞선다는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생각되었는지 몰랐답니다. 하지만 조국땅 가는곳마다에 있는 《문지령》들이 많은 노력을 뺏어내고있고 렬차들이 달려가는데 밍살스런 돌뿌리처럼 걸체인다는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80년대의 비약으로 나래치는 조국의 숨결을 철길우에서 지켜싸워야 할 한 기술자로서의 의무가 어깨를 더욱 무겁게 내리누르는것을 느꼈어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의 창안을 완성도입해야만 해요. 그래서 도처의 《문지령》들에서 견인초과의 불길이 높이 타오르게 해야 해요. 바로 그렇게 하는것이 아버지가 바란것이였고 시대앞에서 지닌 의무를 다하는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그걸 저버리고 여기를 떠날수 있겠어요. 얼마전에 저는 자기에게 돌아올 책임이 두려워 보신적립장을 취하는 한 일군이 제가 조합식대차를 시도해보다가 안되면 주저앉을수도 있다느니 시집을 가버리면 다라느니 하면서 저를 들뜬 처녀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더더욱 여기를 떠날수 없다는것을 느꼈어요.

석준동무, 얼마전에 영화를 봤는데 사랑하는 처녀를 따라서 도시를 떠나 산촌으로 가는 주인공 청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다음 사연이 적힌 편지장은 없었다. 민호는 끝이 맺히지 않은 편지장을 손에 든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저 문지령 락석감시원이 수련이의 아버지였던 말입니까?》

《그렇소. 나두 이번에야 그걸 알았구만. 성실한 사람이었지.》

민호는 기관차를 몰던 시절의 일이 생각났다.

그것은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날이었다. 그날 민호는 사납게 울부짖는 비바람속을 뚫고 문지령을 뚫아오르고있었다. 그는 기관차의 운전대에 앉아 촉광이 센 전조등 불빛속에 번뜩거리는 철길을 긴장한 눈초리로 주시하고있었다. 앞에는 29키로메터지점이 있었다. 기관차의 배기소리가 점점 숨가빠졌다. 그의 온몸에는 터질듯한 긴장이 어렸다. 철길우에 떨어진 새알만한 락석이라도 기관차의 바퀴를 헛돌게 하여 돌이킬수 없는 후파를 빚어내게 할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때였다. 차창밖을 주시하던 민호의 입에서 별안간

《무엇이?!...》 하는 놀라운 소리가 튀어나갔다.

벼랑아래 침목을 가로대여 만들어놓은 락석막이 벽밑에서 문지령의 락석감시원이 푸른 신호등을 흔들고있지 않는가!

벼랑에서 굴러내린 락석을 지탱해낼수가 없어 당장이라도 무너져내릴듯한 침목벽에 버팀목을 대고 어찌로 떠받들고있는 그의 덜미를 벼랑우에서 쏘아쳐내리는 물줄기가 사정없이 치고있건만 그는 거인처럼 버티고서서 한쪽손으로 통과신호를 보내고있는것이였다.

민호는 그때 얼마나 뜨거운것을 삼키며 렬차를 몰아갔던지 모른다.

바로 그 락석감시원이 수련이의 아버지였던것이다. ...

민호는 수련이의 창안이 결코 젊은 시절에 부질없이 물어보는 열정의 산물이 아니라는것이 알리는 것 같았다.

《난 우리 조카애를 보구 수련이를 끌어갈 생각을 아예 말라구 했소. 그 앤 자기도 수련이를 미처 이해하지 못했다구 하면서 그걸 벌써 생각했었다는 거요. 그래 중대장동무는 생각되는게 없소?》

민호는 고개를 수긋한채 잠시 입을 열지 않았다.

《글쎄... 그러나 인정으로 모든걸 처리할수야 없지요. 나는 법적과제로 받아안은 기관차수리계획을 완성해야 할 사람이나나요. 책임추궁은 나한테 하...》

민호는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한채 우울하게 대꾸하다가 입을 다물어버렸다. 알수 없

는 불안이 목구멍을 꼭 막는듯 가슴이 답답해왔던 것이다.

《중대장동무는 왜 기관차에 대해서 자기만이 걱정하고 책임질줄 아는것처럼 생각하오. 나는 수련이의 청안에서 오늘뿐아니라 매일에도 기관차대를 떠메고나갈 주인의 자각과 지향을 읽는단말ियो. 그걸 알가 해서 처녀의 편지장까지 들고다녔는데 정 모르겠다면 할수 없지. 그 창안을 받아들일 방도를 내가 더 생각해보겠소.》

민호는 대구를 하지 않았다.

## 5

며칠후 민호는 부실부실 내리는 비를 맞으며 기관차대로 돌아오고있었다. 그는 정문으로 들어서다가 그 어구에 있는 게시판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수련이가 문지령에 올라와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에 크게 도움이 될 창안을 완성 도입하기 위해 싸우고있다는 큼직한 속보가 나붙어있었다. 민호는 그 소식이 인차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누구에게 묻기라도 하려는데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비물을 화난듯이 쓱 훔치고는 수리중대쪽으로 걸어갔다. 수리차고에 들어선 그는 기관차옆구리에 붙어서서 무언가 끙끙거리며 조이고있는 반장에게로 다가갔다.

《어떻게 된 일ियो? 수련이가 문지령에 갔다는게 사실ियो?》

《웅? 중대장이 왔구만. 그래 갔던 일은 어떻게 됐나?》

《수련이가 문지령에 간게 사실인가말ियो!》

《수련이가?... 갔지. 철도국처장두 가구 대장두 갔다네. 그리구 또...》

《처장이?... 처장동무가 여게 왔됐단말ियो?》

《왔됐지. 수련이는 고개우의 초소막에 가서 묵을 차비까지 해가지구 갔네.》

민호는 갈프를 잠을수 없는듯 잠시 멍해 서있었다. 기기관차대에서 만났을 때 처장이 수련이의 청안을 도입할 방도를 생각해보겠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러니 처장은 그길로 곧장 여기로 왔다가 문지령으로 간것 같았다.

《아니! 이 바쁜통에 그걸 가지구 씨름질하다니...》 민호는 화난듯이 투덜댔다.

반장이 민호를 힐끔 쳐다보았다.

《중대장은 아직도 그런 소릴 하나? 우리가 진작 손을 대야 할 일을 가지구 처장까지 내려오게 하구두... 난 수리공으로 서른해 가까이 일해오네만 우릴 위해 그렇게 애쓰는 처녀를 처음 보았네. 수련이는 이날 이때까지 거의 기줄준비실에서 보내군했다네. 처녀가 애쓰는걸 봐서라두 그럴수야 있나?》

《뉘라구요?》

민호는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내뱉고는 중대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문지령에 가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자기 방에 들러 그간의 일을 경향없이 두루 알아본 그는 마침 문지령쪽으로 가는 기관차에 올랐다. 운전실 의사등받이에 몸을 싣고 입을 꼭 다물고 앉아있던 그는 며칠째 쌓인 피로를 못이겨 깜빡 잠이 들고말았다. 그가 기적소리를 꿈결에서처럼 들으며 눈을 다시 떴을 때 열차는 어느덧 문지령을 뚫아오르고있었다.

《이 차가 몇톤을 끌었소?》 그는 옆에 앉은 기관사에게 불쑥 물었다.

《정량보다 한차관을 더 달았지요.》

《보조기관차를 달았소?》

《달지 않았습시다.》

《달지 않았다고?!》 놀라운 빛이 되어 기관사를 쳐다본 민호는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열차뒤를 바라보았다. 차장차의 옆벽에 달린 백색측등이 멀리 열차뒤부분에서 부지런히 따라오고있었다. 그는 기관사에게 고개를 다시 돌렸다.

《그러다가 사고라도 내지 않겠소?》

《수련동무가 이 고개에 올라와있는걸 모릅니까?》

민호는 의문이 실린 시선을 기관사에게 던졌다. 그는 말을 더 꺼내려고 하다가 기관사의 얼굴에 긴장이 실리는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열차가 29키로지점에 다가가고있었던것이다.

갑자기 기관차의 속력이 떨어지는것이 알려졌다. 그런데 이때였다.

《기관사동무!-》 하고 부르는 소리가 창문밖에 서 기관차안으로 날아들었다.

민호가 밖을 내다보니 허우대 큰 사람이 기관차를 따라오며 소리지르고있었다.

《기관사동무!- 속력을 최대한으로 놓으라구!- 바퀴는 미끄러질 념려가 없소!-》

민호는 그가 처장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운전실 문을 열고 발디디개를 내리서다가 익숙한 숨씨로 땅에 뛰어내렸다.

《거, 차에서 내리는게 누구요? 중대장이 아니요?》

《수고하십니까. 처장동지! 어떻게 여기까지...》

《허, 어디 오지 않게 됐소? 연구기관에서도 사람이 왔소.》 처장은 숨을 헐떡거리며 민호에게로 다가왔다.

《연구기관에서요?》

《음, 지금 수련이와 같이 저 29키로지점에서 차가 지나가는걸 관찰하면서 기관차바퀴축에 조성할 유간치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있소.》

민호는 머리가 멍했다.

《참, 그 조향식대차두 놀라운거지만 그 불꽃청소긴지 뭔지 한것두 심통한거라니까. 이제 보오. 수련이는 그걸 시험하고있단말이요.》

처장을 따라 말없이 벼랑턱 코승이를 에돌아가던

민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방금 자기가 타고 온 기관차가 29키로미터지점을 기운차게 뚫아오르고있는것을 놀라운 눈으로 바다보았다. 열차가 지나가자 철실옆에서 돌아치는 사람들이 바라보였다. 민호는 손에 꺾간자같은것을 들고있는 처녀가 수련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수련이는 얼핏 보기에 논판으로 밀고다니는 제초기처럼 생긴것도 들어다가 페루우에 올려놓더니 그 주둥이로 새파란 불꽃을 뿜어대며 고개우를 향해 쏘고 밀고달아난다.

《보오! 저게 불꽃청소기라는거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게 철길에 모래를 뿌리기보다 바퀴가 더 힘을 쓰게 하거던. 허. 이 문지령에서 보조기관차 격정을 덜게 됐으니 중대장의 짐도 한결 덜어진 셈이 아니겠소. 이제 조향식대차 앞머리에 설치할 불꽃청소기는 성공한셈이지.》

민호는 그제사 자기가 타고온 열차가 보조기관차 없이도 그렇게 거침없이 평마루로 치달아오를수 있는 까닭이 알리는것 같았다. 불꽃청소기는 바퀴가 미끄러지게 하여 기관차의 견인력을 약화시키는 페루우의 물기와 기름기 등을 가스의 화염으로 제거해버리게 만든 장치였던것이다.

《그가 어떻게 이런 궁리까지 했을가?...》

민호의 가슴은 놀라움과 신기로운데 뒤섞여였다. 문득 처장이 생각난듯 말을 꺼냈다.

《한데 내가 무얼 찾아냈는지 아오? 자, 이걸 보란말이요.》

그는 걸음을 멈추더니 품속에서 뚜껑이 다 닳아진 낡은 수첩 한개를 꺼내었다. 그 뚜껑에 《승무일지》라는 글씨가 써여져있는것이 희미하게 알려졌다.

처장은 수첩 첫장에 차곡차곡 접혀서 붙여있는 종이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문지령의 철길이 그려져있었는데 구배와 곡선, 공회전개소, 락석위험개소 등 철길의 기술상태들과 그에 따르는 구간속도, 타력조성, 제동기사용지점 등 운전조절법이 붉고 푸른 기호들과 깨알같은 수자들로 기록되어있었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민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자, 이걸 또 읽어보란말이요.》

처장은 수첩장을 펼치더니 그것을 민호의 눈앞에 내밀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고 들여다보았다.

《...오늘 나는 정량보다 60톤을 더 끌고 문지령을 오르고있었다. 그런데 29키로미터지점의 철길이 불타고있었다. 전쟁때에 놈들이 떨군 시한탄이 폭발한때문인지, 기관차의 불꽃으로 일어난 산불때문인지 요즘 문지령의 철길에서는 이따금 불이 일군한다. 29키로미터지점에 접근한 나는 멀리 불타는 철길옆에서 혼자 불을 끄고있는 감시원아바이를 보았다. 사태는 엄중했다. 빨리 차를 세우고 그 아

바이를 도와야 했다. 그런데 이때 철길우에서 불을 끄고있던 락석감시원이 주춤거리는 내 심정을 알아차린듯 무서운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며 통과신호를 높이 쳐드는것이였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서 온몸이 꺼렇게 끄울은 감시원아바이였을 지나 열차를 고개마루로 올리물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였다. 주춤거리는 순간 열차의 타력이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기관차바퀴는 한번도 헛돌지 않고 불타는 29키로메터지점을 나는듯이 통과하였다. 무엇때문이였을가? 내 마음이 락석감시원의 자기 희생정신에 감동된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것인가... 나는 알길이 없었다...》

《이걸 어디서?...》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나 눈에 익은 자기의 필적인가.

《수련이가 가지고있더군. 수련이는 이걸 보물처럼 가지고다니며 죄다 연구했더란말이요. 그는 이승무일지에서 불꽃청소기를 만들 실마리를 얻어냈다는거요.》

뜨거운 격정이 민호의 가슴을 탕 쳤다. 수련이가 그런 기특한 처녀였단말인가.

민호는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천리마로 달리는 조국에 한톤의 짐이 새로왔던 때 동맥경화를 일으킨 대목마냥 말썽을 부리는 문지령에서 견인초과를 새 높이에로 끌어올려보려고 그 승무일지를 기록하고 표준운전도도 만들었던것이다. 그것은 얼마나 불타는 기관사시절이였던가. 그런데 그후 기관차에서 내리면서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도 모르고있던 그 승무일지를 수련이가 찾아내여 것처럼 귀중히 보관하고 연구했을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이제는 자기의 가슴에서 식어져버린 열정마냥 창고의 한구석에 처박혀있었을 낡은 승무일지더미속에서 수련이가 그것을 찾아냈을것이 분명하였다.

처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수련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오? 자기는 늘 이걸 볼 때마다 전후에 이 문지령에서 싸운 사람들앞에서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는거요. 그때 그들은 불과 같은 열정을 이 고개에 쏟아부어 조국의 부름에 대답했는데 자기는 어버이수령님의 따듯한 배려를 받으며 대학을 졸업하고도 오늘 80년대의 비약에 또 걸채이는 이 문지령을 굴복시키고 길들이지 못한다면 시대앞에서 문지령에서 싸운 사람들앞에서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구 하더란말이요. 나는 가슴이 뜨거웠소.》

민호는 갑자기 가슴을 찢리운 사람처럼 주춤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가슴속으로 한가닥의 고통이 스쳐지나갔다.

수련이가 그렇듯 존경심을 품고있는 지난날의 자기는 지금... 이름할수 없는 생각이 괴롭게 가슴을 쳤다.

나는 그래도 자신을 누구보다도 기관차때문에 격정하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오지 않았던가. 한데 나는 어찌하여 젊은 기관사시절에 자기가 직접 이 모든 일을 목격하였건만 수련이와 같은 생각을 털끝만치도 하지 못했던가. 조국의 부름을 안고 젊은 피를 끓이던 그런 열정은 다 어데로 갔는가... 나는 어찌하여 당의 과업앞에서 언제나 자신의 책임과 체면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것일까. 나는 우리의 뒤를 이어 이 문지령을 길들이기 위해 그렇듯 애써온 수련이의 그 뜨겁고 기특한 마음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해주지 않았는가.

그는 질주하는 기관차앞을 가로막은 문지령처럼 수련이의 그 열렬한 지향을 막아선 《문지령》으로 되였다고 생각되었을 때 자신이 몹시 민망스러웠다. 민호는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얼마 멀지 않은 초소막 트랙에서 저녁이슬을 함뿍 머금은 떨기떨기 꽃송이들이 락조에 붉게 타고 있었다. 언젠가 수련이가 가꾼 꽃이였다. 민호는 이 끌리듯 초소막으로 다가갔다.

바로 그 붉게 타는 노을빛속으로 언젠가 눈물이 핑 도는 눈길을 감추던 수련이의 모습이며 자기의 의무와 사랑, 꿈에 대하여 열렬하게 이야기했던 그의 편지의 글줄들이 삼삼히 떠오른다. 민호의 가슴은 칼로 에이는듯 아팠다.

《아니 중대장동지가 어떻게... 빨리 오세요.》

어디선가 은방울굴리는듯한 웨침소리가 민호의 귀전에 날아온다. 민호는 방금 뭔가 책에 적고 일어나는듯 꽃밭속에서 머리를 갸웃하고 웃는 수련이의 흥조비긴 얼굴을 취한듯 바라보았다. 아,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 처녀인가...

민호는 자기에 대한 원망도 자책도 모두 잊은채 달려갔다. 마치 철길우로 날아예던 기관사시절이 되돌아온듯 그는 달렸다.

그는 이때 자신의 전진을 가로막던 마음속의 《문지령》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센 동음을 방불히 들었다. 그 울림은 이 고요한 산밭을 넘어 멀리 멀리 메아리쳐갔다.